

# 지금 왜 번역인가?

표정훈(출판평론가, 작가)

2019.11

## 1. 언어: 한국어의 확장 and 심화

역사, 전통, 민주, 이념, 개혁, 정의, 인도(人道), 민족, 사회, 자유, 질서, 정치, 경제, 문화, 권리, 의무, 국민, 세계, 평화, 인류, 행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되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말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질서의 근간이 유럽의 이념과 개념들이며, 그 개념, 표현의 매개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 일종의 기표는 한자(漢字), 상당 부분 일본이 고안해낸 한자어이며 기의는 서양 개념이다.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고종석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라고 말한 적 있다. 우리 사상, 언어의 본질적 부분이 그리스 이래 유럽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문화가 우리의 ‘지배적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염된 언어』,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며 중국인이자 일본인이고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 이스라엘인...이다.” 말의 번역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뜻이다.

국어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국어 문체가 번역문투에 감염되었다고 지탄하는 언어민족주의자들 또는 언어순결주의자들이 있다. 이에 대해 고종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어휘’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서양말의 개념을 옮겨 만든 한자어가 19세기 말 이래 수입된 것이며, 한국어 글말의 탄생과 발전, 정착 그 자체가 번역의 과정이라는 논리로 맞선다. ‘감염’과 ‘흔탁’과 ‘불순함’이야말로 언어의 본질이며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것.

번역된 말은 번역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의 다양한 변주를 겪기 마련이며 새로운 의미를 갖추기도 한다. 사회(社會)라는 말은 society의 번역어지만, society의 뜻에 해당하는 말이 일본어에는 없었다. 요컨대 society라는 말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일본에 없었다. 사회는 본래 중국에서 신령을 맞이하기 위해 벌이는 모임,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조직한 조직의 뜻으로 쓰였다. 이러한 좁은 뜻에서 더 넓고 깊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일본인들이 그것을 society의 번역어로 채택한 이후다.

일본에서 society는 처음에 ‘세상(世上)’으로 번역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세상’이라는 말은 오히려 너무 익숙했기에 제외되었다. society가 생경한 개념이었기에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사회’가 채택된 것이다. 그러는 편이 society의 뜻을 담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 요컨대 번역어의 선택과 번역 행위는 모험이다. 그렇게 시작된 ‘사회’라는 번역어는 서양의 society의 뜻을 수용하게 해준 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society 자체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이상 다음 참조. 양세욱, 『중국의 번역어와 중국의 근대』, 『근대번역과 동아시아』,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박문사, 2015)

번역 활동은 한국어의 개념과 의미 체계를 확장시키는 활동이다. 한국어의 개념과 의미 체계가 확장된다는 것은 한국인이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의미 체계가 확장되고 더욱 다양해지며 또한 심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말은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유동(流動)한다. 유동하는 말의 세계에서 번역된 말들은 그 유동의 모양새와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구실을 한다. 비록 그러한 작용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 2. 고전: 사상과 감성의 토대 구축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원하는 학술 진흥 공모연구과제 가운데 '고전학의 재구축' 과제가 있었다. 교토대학에서 주관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프로젝트인데(1998-2002), 일본학, 중국학, 티벳학, 인도학, 이스라엘학, 이슬람 및 이란학, 서양 고전학 등을 모두 포괄한다. 연구 성과를 '강좌 고전학' 총서로, 고전 번역의 결과를 '고전선집' 총서로 각각 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전학의 여러 분야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편적 고전학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새로운 고전 번역을 통해 새로운 고전상을 제시하고, 고전학 전문가 이외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고전학 이외의 학계 및 일반인들 사이에 고전 자체 및 고전의 가치와 고전학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 어떤 취지에서 설정되었는가? 다음을 읽어보면 그것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배경과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한 오늘날 일본에서, 일본의 전통 윤리는 이미 상당 정도 그 기반을 상실했으며, 메이지 시대 이래로 고무되어 왔던 개인의 자각이라는 보편적 모델도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고전 읽기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여러 민족의 사고방식과 감성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존의 인식 틀과 언어를 넘어서는 시야를 획득함으로써, 현대 일본 및 세계의 방향을 정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깊은 통찰을 통해 일본인의 사상적, 감성적 뼈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필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고전학계의 역량이 총 집결된 위의 프로젝트의 성과가 과연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는 접어두고서라도, 이미 완성(完整)한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도 고전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공적(公的)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만큼 우리의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 뼈아픔은 19세기 미국의 콩코드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1817~1862)도 느낀 것 같다. (아래 『월든』 인용문)

시정(市井)의 천박함을 넘어서서 당신에게 영원한 암시와 자극을 줄 고전어의 어휘 몇 마디나마 배운다면, 당신 청춘의 값진 시간을 보낼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비록 농부라 하더라도 언어들은 라틴어 몇 마디를 외우고 되뇌어 보는 것은 절대 헛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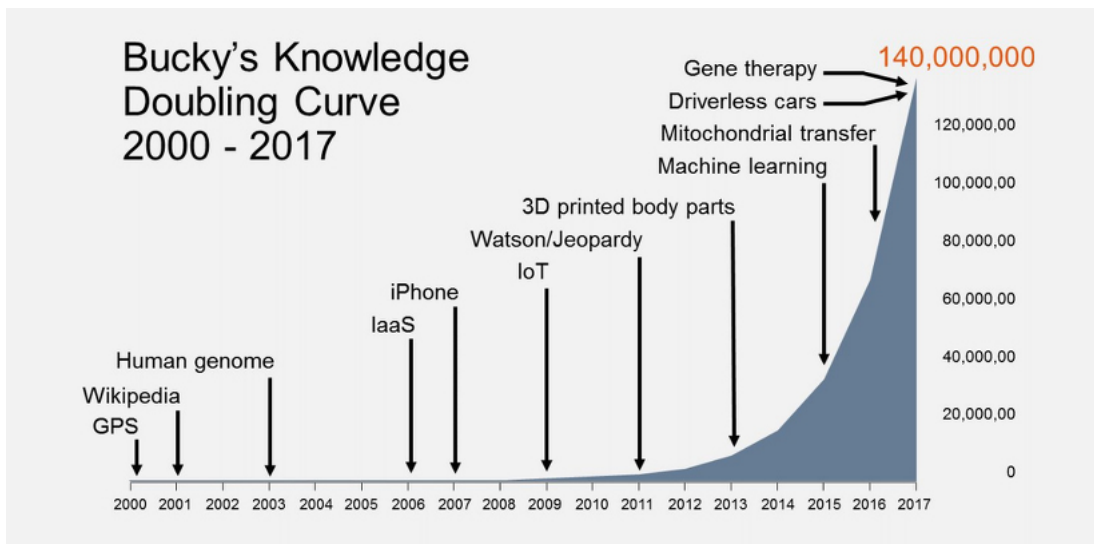
종종 사람들은 고전 연구가 보다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길을 비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험적인 학생이라면 그 책이 어느 언어로 쓰여진 얼마나 오래되었건 간에, 언제나 고전을 연구할 것이다.

고전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고귀한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전은 불후의 유일한 신탁이다. 가장 현대적인 질문에 대해 텔피나 도도나 숲도 밝히지 못한 해답이 바로 그 안에 들어 있다. 고전이 오래되었다 해서 그 연구를 그만두는 것은, 자연이 낡았다 해서 연구를 그만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 3. 지식: 번역과 축적의 시간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른바 '지식 두 배 곡선(Knowledge Doubling Curve)'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왔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부터는 25년으로, 현재는 약 13개월로, 2030년이 되면 지식 총량이 3일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지식 총량을 그 언어로 보면 영어를 비롯한 이른바 주요 국가·언어권 언어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갈수록 활용 빈도가 늘어나며 점점 더 주목받는 이유도 지식 총량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관련 있을 것 같다.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단행본 출판번역은 지식 번역·수용의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올드 미디어’(낡았다는 의미에서)에 해당되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전체 도서 발행종수 중 번역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15%대에 머물렀다. 이후 번역출판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30%에 육박할 만큼 대폭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사이 시기에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한 것. 이후 2006년 당시 전체 도서 중 번역서의 비중은 23.0%(1만 482종)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도 전체 발행 종수(4만 5,213종)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5%(9,714종)였다. 이 비중은 대체로 지금까지 이어진다. 번역 원서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축적의 시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정동 지음, 지식노마드, 2015)이라는 책이 화제를 모으며 경제·산업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일종의 유행어처럼 자주 회자되기도 했다. 책의 요지는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이란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당면 문제의 속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역량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모델은 선진국이 제시한 개념설계를 기초로 빠르게 모방, 개량하면서 생산하는 모방적 실행 전략에 바탕을 두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개념설계 역량의 확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해야 얻어진다. 새롭게 접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해법으로 제시해보고,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는 개념설계 역량을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선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찬찬히 경험을 축적해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내수시장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제3의 길이 있을까?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 문화를 바꾸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축적을 지향하도록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축적의 범위를 산업의 바깥 경계로 극적으로 넓혀 생각할 때, 비로소 선진국의 시간과 중국의 규모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축적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항상 정해진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시행착오의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쌓아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번역은 ‘지식의 수용과 축적의 시간’이다. 그 가운데 단행본 출판번역은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지식정보를 번역하여 어떤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쌓아가는’ 문화다. 괴테는 1825년 자택을 방문한 한 영국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독일어는 번역을 통해 19세기 초 ‘축적의 시간’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의 시간으로 진입했던 것이다.

“귀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독일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다른 말을 많이 알지 못해도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어나 라틴어,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의 경우 이들 나라의 최고 작품은 훌륭한 독일어 번역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그 말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 4. 번역출판의 위기 또는 문제

출판계는 위기 담론(?)에 익숙하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말이 매년 회자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좋았던 적은 언제였는가?'라고 물으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번역출판의 위기'를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몇 가지 되짚어본다.

첫째, 번역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위기. 번역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직업 번역가로 살아간다는 건 늘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다. 이에 대해 매절·인세 등 번역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가 제기되곤 하지만, '출판 시장의 현실'상 당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이에 맞선다.

둘째, 학술 번역에 대한 보상·평가 수준의 위기. 예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술 번역에 대한 보상과 평가 수준은 높지 못하다. 연구자 입장에서 자기 분야 주요 고전이나 학술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무척이나 낮은 일이다. 각종 프로젝트에 따라 논문을 다량 생산해내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셋째, 번역 비평·평가의 위기. 번역의 옥석(玉石)을 판별하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비평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미비하다. 번역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비판·비평이 아니라 사실상 비난하는 풍토도 만연해있다.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어는 대부분 힐난, 조롱, 비하하는 언어다. '건전하다'는 말의 뜻이 폭이 매우 넓긴 하지만, 건전하고 생산적인 번역 비평·평가 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번역서 에디터십의 위기. 우리나라 저자의 저서보다 번역서를 편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편견이 없지 않다. 물론 번역서의 경우에도 '번역자라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저자의 저서는 '저자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데 역량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데 비하여 번역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에 문이라 하기도 한다.

원고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편집자가 번역 원고를 마주하는 일은 우리나라 저자의 저술 원고를 마주하는 일과 다르다. 어느 쪽이 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편집자가 번역 원서의 언어에 반드시 능숙해야 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감각이 오히려 번역서 편집에서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번역서 시장 수요 편중의 위기. 번역서 가운데 분야별 비중은 매년 거의 비슷하다. 문학, 만화, 아동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분야가 50%~6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번역서 분야별 비중이 대체로 번역서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을 가리켜 위기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출판 시장 수요가 형성되고 그 수요에 출판 공급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편중 현실은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양서(良書)의 출판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고 표현할 근거가 없지 않다. 이 지점에서 번역서 출판에 대한 공적(公的) 지원의 필요성이 생긴다.

#### 맺는 말: 문명·문화는 번역이고, 번역이 곧 문명·문화다

자아(自我)는 '구성된 자아'다.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무수히 다양한 텍스트들이 교직(交織)하는 그물점으로서의 자아다. 21세기 2019년 대한민국에 사는 '나'라는 자아는 문자 그대로 동서고금의 텍스트들이 총칭으로 교직되어 구성된 자아다. 그 교직은 넓은 의미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한역(漢譯)한 역경승들, 히랍어를 아랍어로 번역한 아랍 학자들, 그 아랍 텍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한 유럽 학자들, 메이지 시대 서양어 주요 개념들을 한자어로 번역한 일본인들, 그리고 20세기 이후 외국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 애쓴 많은 번역가들. 그밖에 역사를 통하여 번역에 복무한 수많은 번역가들이야말로 오늘날 '나'라는 자아를 구성하는 씨줄과 날줄을 자아낸 이들이다.

번역서가 왜 중요하고 더 많이 제대로 번역되어야 하는가? 번역서는 지식을 수용하고 기존 지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바탕이 된다. 번역서는 우리 언어의 지평과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 번역서는 세계와 문화 인식의 범위를 확대시켜준다. 번역서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 공감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번역가들은, 그리고 번역서를 편집하는 편집자들과 펴내는 출판사들은 지식과 언어와 세계와 인간의 측면에서 헌신한다.

지금 왜 번역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왜 번역이 문제인가? 번역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에게서나 현재진행형의 문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굳이 '지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번역이 문제인 이유는 어쨌든 간단하다. 문명·문화는 곧 번역이고 번역이 곧 문명·문화이기 때문이다.

## 출판번역가의 현실과 직업윤리

윤영삼(번역가)

2019.11

번역이라는 작업을 직접 해본 사람이라면 번역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이다. 단순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노력과 인내를 쏟아 부어야 한다(번역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이라면 대개 하루 10시간씩은 번역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새로운 텍스트를 만날 때마다 번역가는 무수한 문제와 마주한다. 엄청난 학습과 조사를 해야 하고 다른 텍스트들도 수시로 참조해야 한다. 그러한 탐구작업은 실제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과정 못지않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에 비해 번역결과물에 주어지는 보상은 많지 않다. 자신이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번역가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번역가들은 각자 자신만의 전략을 짤 것이다. 안정적으로 일거리를 받기 위해 편집자들과 친교를 강화하기도 하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학위를 따거나 직접 저술을 펴내기도 하고, 또는 번역그룹을 만들어 협상력을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번역가에 대한 처우가 나쁜 것은 우리만의 사정만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번역가들을 인터뷰하여 쓴 쓰지 유미의 『번역과 번역가들』을 읽어 보면 이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말이, 번역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번역 중에서도 출판번역은 특히 보상이 넉넉지 않다. 그것은 출판번역에 보수를 적게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번역-기술번역, 문서번역, 영상번역 등-에 비해서 출판번역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이다(물론 실제로 적기도 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고, 번역으로 먹고 산다. 보수도 많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일까? 오래 번역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희열, 그리고 우리 사회와 문화에 번역이 기여하는 역할과 거기서 얻는 보람 때문이다.

출판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출판사에게만 번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어쩌면 정부에서 번역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번역행위 생태계' 속에서 그 중 한 역할을 담당하는 번역가가-더욱이 번역가 한 개인이-두서없이 떠올린 아이디어를 여기서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그보다 나는 번역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번역가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해보고자 한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번역가가 존재하며, 번역을 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번역수준도 다양하다. 번역가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정당함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 정당함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번역에 대한 보상이 낮다고 주장하려면, 그만큼 이유를 번역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번역학자 Douglas Robinson이 쓴 『Becoming a Translator』라는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힌트를 얻었다. '번역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Anthony Pym은 번역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결과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외부시선'과 번역을 직접 하는 번역가들의 '내부시선'이다. 이 두 시선은 번역가의 현실과 직업윤리에 대해 흥미로운 이분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두 시선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번역이라는 하나의 작업의 양면일 뿐이며, 긴밀히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이 두 시선을 번역가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세계를 개선해 나갈 때 번역가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출판사나 정부와 같은 다른 주체의 시혜적 보상을 수동적으로 바라는 자리에 머물기 보다는,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직업윤리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각성해나감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번역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우선 외적 지식(external knowledge)이란 번역사용자, 즉 번역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번역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다. 이들은 번역결과물- 텍스트-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 또한 번역평가기준은 철저하게 원문(source text)을 중심으로 삼는다. 물론 번역가 개인의 전문성도 눈여겨본다. 번역가로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시 말해 '번역가다운' 사람인지 평가한다. 이들에 게 중요한 요소는 또한 속도와 가격이다. 자신이 원하는 기한 내에 번역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절한 가격-대개 낮을수록 좋다-에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내적 지식(internal knowledge)이란 번역가들이 번역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다.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텍스트의 난이도,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문서편집/수정방법처럼 번역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물론, 번역계약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계약서 쓰는 법, 편집자와 관계 맺는 법, 번역료 독촉하는 법 등-들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내적지식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요인은 번역가들이 번역을 계속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 1. 직업적 자긍심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번역가들은 대개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의식이나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번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번역이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번역을 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번역가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번역은 '날림'이 될 확률이 크다.

번역가들의 직업의식을 자극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인식을 복돋기 위해서는 번역가들의 '직업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번역가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까운 번역가들끼리 모여서 저녁 먹는 친목모임으로는 직업의식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번역가들이 처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며, 자연스럽게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 2. 소득

어쨌든 번역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사람들은 번역을 계속할 것이고, 그래야 기량도 축적되고 번역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번역가로서 품위를 해치지 않는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 번역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품질을 높이면서도 번역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수록 번역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소득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작업방식을 찾아 최상의 생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IT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번역가의 직업적 지위가 올라가면 전반적인 소득도 올라갈 것이다.

### 3. 즐거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묘한 언어의 차이를 감지할 때, 절묘한 번역문을 만들어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얼마나 짜릿한지 경험해본 사람은 번역을 포기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수도 낮고 지루한 번역을 많은 번역가들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결과물도 엉망이 되기 마련이다. 번역의 수준을 높이려면, 더 나아가 번역가로서 자질과 명성을 높이려면, 번역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의뢰 받는 것만 번역을 하는 데 머물지 말고 번역가로서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에 도전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한 번역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번역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정부가, 또는 어떤 돈 많은 갑부가 내일부터 번역료를 50퍼센트씩 더 주기로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낮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준다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는 가끔 나가는 번역가들 모임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편집자들 모임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컴퓨터AS기사들의 모임에서도 들을 수 있다.

번역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면, 또 번역가 스스로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일 줄 안다면, 번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막연히 세상이 달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

# 번역 지원 제도의 현황과 과제

## : 명저 번역 지원 사업과 정암학당

김성환(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2019.11

### 1. 2018년과 2019년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 지원사업 현황

#### 1) 연도별 예산과 선정률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			2019		
	번역지원비	출판지원금	합계	번역연구비	출판지원금	합계
명저번역지원	548	394	942	1,248	600	1,848

- 연도별 선정률

(단위 : 개)

사업명	2018			2019		
	신청	선정	선정률	신청	선정	선정률
명저번역지원	53	19	35.8%	92	54	58.7%

#### 2) 세 가지 문제

통계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산과 선정률일 것이다. 예산은 2018년 9억 4천 2백만원에서 18억 4천 8백만원으로 2배쯤 늘어났고 선정률은 2018년 35.8%에서 2019년 58.7%로 1.6배쯤 늘어났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2019년 책정 예산은 집행된 것보다 더 늘어나 있었고 선정률도 책정 예산대로라면 실제보다 훨씬 더 높아야 했다.

실제 선정률이 낮은 이유는 복잡하지만 번역연구자의 오역과 평가자의 엄격함이 평가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재단이 명저번역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데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번역연구자의 문제, 평가자의 문제, 연구재단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

### 2. 번역연구자의 문제

#### 1) 명저번역 지정도서 선정



명저번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를 원하는 번역연구자가 제기하는 첫째 문제는 명저번역 지정도서의 선정 과정을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명저번역 지정도서목록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명저번역 지원사업은 매해 지정도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있는 지정도서목록에 새 도서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모든 연구자가 추천위원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도서를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연구자 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추천하거나 메일로 추천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지정도서목록에 올릴 수 있다.

선정결과를 보면 전집류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지정도서목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 경우 전집 중 한 권을 먼저 올리고 순차적으로 다음 권을 올리라고 권한다.

## 2) 번역료

번역료는 명저번역 지원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 초에는 200자 원고지당 14,0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7,000원이 기본이고 고전어의 경우 30%를 더한 9,100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명저번역 지원사업의 번역료 7,000~14,000원은 한국고전번역원의 15,000원 이상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양보다 질을 목표로 삼아야 번역료가 늘어날 수 있다.

명저번역 지원과제 도서목록을 보면 적정번역연구비가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적정번역연구비도 원성의 대상이다. 현재 적정번역연구비는 추천위원회가 책정하고 평가자가 연구계획서의 번역 샘플을 바탕으로 조정 의견을 낼 수 있다. 한 가지 해법은 번역연구자가 신청할 때 샘플을 기준으로 번역료를 계산한 자료를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 3. 평가자의 문제

### 1) 평가의견서

번역연구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평가자가 평가의견서에 제시한 오역에 대한 지적이다. 번역연구자는 대체로 평가자의 오역 지적이 부정확하거나 침소봉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오역 지적 문제는 정답을 찾기 어렵다. 오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오역 지적이 침소봉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해법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공동 번역 또는 공동 교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명저번역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 번역팀으로 신청하거나 번역자와 교열자가 한 팀으로 신청하게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공동 번역 또는 공동 교열 시스템을 실현하는 한 가지 길이다.

### 2) 학문적 엄격함

2019년 명저번역 지원사업에서 선정률이 낮아진 데는 평가자의 학문적 엄격함이 한몫을 했다. 신청자가 60점 이하의 평가 점수를 받고 탈락한 경우가 많았다. “번역 샘플이 최악이어서 도저히 선정권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다.”는 평가자가 많았다.

평가자의 학문적 엄격함이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는 낮은 선정률 문제도 정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쥔 사람들의 반응, “예산을 쥐도 못 쓰냐?”는 반응을 예상할 때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다. ‘평가자가 평가는 엄격하게 하더라도 선정은 너그럽게 할 수 없을까?’

## 4. 재단의 문제

### 1) 사업 관리

명저번역 지원사업은 연구재단이 출판까지 관리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명저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출판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다. 연구재단이 결과물의 질을 보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 2) 예산

2019년 명저번역 지원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제삼 깎아먹기였다. 저술지원사업과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신규과제를 뽑지 못한 덕분이었다. 인문사회예산은 이런 사례가 많은 듯하다. 그래서 “인문사회 예산은 생물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도 들린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예산 증액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인문사회 분야 R&D 예산이 원하는 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명저번역 지정에 더 공을 들일 수 있고 전 집류 번역도 통째로 지원할 수 있다. 번역료를 증액해 공동 번역 또는 공동 교열 시스템을 강화할 수도 있다. 평가비도 인상해 침소봉대한다는 이의제기를 줄일 수 있다. 명저번역 결과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번역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제삼 깎아먹기도 없앨 수 있다. 아예 한국번역청을 세워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도 있고 한국고전번역원이나 한국문학번역원과 같은 번역원을 분야별로 10개쯤 설립할 수도 있다.

## 5. 정암학당

정암학당은 서양 고중세 그리스, 로마 원전을 연구하고 번역 출간하는 학술 단체다. 2000년에 출범했고 2005년에는 가장 오래된 서양철학 문헌이며 동양의 사서삼경에 비견되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을 펴냈다. 2007년부터 플라톤 원전 번역본을 내기 시작해 2019년까지 플라톤의 30여 대화편 중 24편을 출간했다.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정암학당 이사장과 연구원들을 만났다. 인터뷰 중 몇 대목을 소개한다. 이 글의 맺음말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사장의 답으로 대신한다.

### Q. 정암학당의 번역 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A. 첫째, 원전을 같이 읽으면서 출간된 책에 번역자로 나갈 연구원이 초역을 합니다. 초기에는 연구원 전원이 같이 읽었으나 요즘은 팀 별로 같이 읽습니다. 둘째, 윤독하며 수정합니다. 윤독 횟수는 책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국가』는 7년 전에 초역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윤독 수정 중입니다.

### Q. 오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A. 초역을 연구하다 보면 오역으로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윤독할 때 논쟁합니다. 아주 심하게. 어떤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칼만 안 들었지 서로 거의 죽일 듯 논쟁합니다.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오역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뒤끝은 없나요?

A. 없습니다. 뒤끝이 있으면 그게 깡패지 연구잡니까?

### Q. 여러 차례 윤독 끝에 번역본들이 나오면 번역자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문체가 비슷합니까?

A. 여러 차례 윤독을 하는 목적은 오역을 찾아내고 가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체가 똑같거나 많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저마다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체가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 Q. 그래도 주요 개념의 번역어는 통일되어 있겠죠?

A. 그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문맥에 따라 같은 낱말이 다르게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정암학당의 번역 시스템이 가진 핵심 특징은 한 마디로 공동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께 읽으면서 초역하고 함께 윤독하며 수정하는 거니까요. 참 부럽습니다. 연구재단의 명저번역 지원사업은 공동 번역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이라 할 수도 있고 공동 교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의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공동 번역 또는 공동 교열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번역자와 교열자가 함께 신청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Q. 혹시 정암학당의 플라톤 대화편 번역과 교열에 원고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저번역은 초기에 200자 원고지당 14,000원이었다가 요즘은 7,000원이 기본이고 그리스어, 라틴어 같이 어려운 원어일 경우 30% 추가해서 9,100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초역과 윤독을 합쳐서 200자 원고지당 적어도 20,000원은 될 겁니다. 사무실 운영료, 세미나 운영료, 식비도 포함하면 30,000원은 될 거구요.

### Q. 좋은 번역이 이루어지려면 공동 번역 시스템 외에 또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할까요?

A. 공동 번역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지만 번역연구자들의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같이 읽고 윤독 수정하면서 논쟁하면 그게 내공이 됩니다. 내공이 쌓인 연구자들은 격심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20년쯤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도 쌓았습니다.

**Q. 이사장님께서 사비를 들여 정암학당을 세우고 고전을 연구 번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OECD 국가들 가운데 플라톤 전집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유럽은 16, 17세기에 정부 주도로 그리스어, 라틴어 문헌을 번역했습니다. 일본도 19세기 말 번역국을 두고 서양 고전 수만 종을 번역했습니다. 고전 번역서는 서로 다른 전공 연구자들이 함께 보는 원재료입니다. 덩치 큰 전집들만이 라도 나라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 명저번역 지원사업 추진 경과 및 지원 현황**

**□ 추진 경과**

- ('98)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사업으로 시작
- ('03) 번역연구기간을 1~2년으로 확대
- ('07) 번역 업적 산정기간 폐지
- ('15) 번역연구기간을 2~3년으로 확대
- ('17) 지정도서 목록 선정을 최근 3년간 추천도서로 확대
- ('18) 명저번역지원사업 연차점검 폐지
- ('19) 중요번역도서의 우선지원을 위한 해외학술서(Top-Down) 선정

**□ 연도별 지원과제 현황**

사업명	연도별 신규 선정 과제수							합계
	'98~'12	'14	'15	'16	'17	'18	'19	
명저번역지원	623	30	17	21	26	19	54	790

**□ 출간 도서 현황**

사업명	연도별 출간완료 도서								합계
	'01~'12	'13	'14	'15	'16	'17	'18	'19	
명저번역지원	297종 (518권)	56종 (99권)	45종 (76권)	22종 (57권)	26종 (63권)	24종 (37권)	13종 (30권)	10종 (26권)	493종 (906권)

**□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과제)

구분	예산액	지원 과제수
신규 과제 (2019년 선정)	949	54과제
계속 과제	299	23과제
번역권 체결비 및 출판지원금	600	-
합 계	1,848	77과제

## 학술번역의 과제와 해법 모색

이승우(도서출판 길 기획실장)

2019.11

### 현재 학술번역, 더 나아가 인문 출판은 황금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비롯한 학술 분야의 번역 인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때로는 아주 지역적인 분야에까지 전공 연구자가 있어 번역 출판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일본에서조차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국내에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도 노태우 정부 당시, 198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아닐까 한다. 그 이전 시기에는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 시기부터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를 위한 '유학'(留學)도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 시기에 해외 유학을 떠난 세대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일치하게 되어 그 숫자 면에서도 유학생 수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시아권에서 한때 일본이 해외 유학을 가장 많이 나간 시절이 있었다면, 그 바통을 한국이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980년대 후반부터 (넓게 잡아) 2010년대 후반까지 약 10~20여 년 동안 해외 유학을 떠난 한국 학생 수는 가히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현재는 한국을 이어 중국이 전 세계 주요 대학 유학생 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독일의 한 도시에 수십 명에서 때로는 100여 명 가까이 한국 유학생이 있었다고 할 정도이니, 전 세계로 학문 연구를 위해 유학을 떠난 규모는 방대했을 것이다.

2019년 현재, 그 연구 인력이 대학 사회는 물론 각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인문학은 지금이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호기(好機)라고 볼 수도 있다. 서양철학 분야만을 한정해서 살펴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 시기에는 고대철학이나 중세철학 분야 전공자가 무척 적었고 대부분 번역되어 있던 고전들도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重譯)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향은 희랍어와 라틴어까지 습득한 전공자에 의한 번역이 우리 학계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플라톤(Platon)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등 대가급 철학자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중세 후기 분야를 전공하거나 앞선 철학자들보다는 덜 알려진 철학자에 대한 연구나 철학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양철학 전반의 흐름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학계의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출판계에서도 기존 번역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신 전공자에 의한 새로운 번역본을 펴냄 — 특히 중역(重譯)의 폐단을 방지하면서 — 으로서 독자들에게 한층 새로운 정보와 학문적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상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향후 10년 이내에 급속한 연구 인력 축소 및 장기적인 학령 아동의 축소로 인한 위축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최근 대학 사회의 급속한 구조조정 분위기로 인해 더욱 암울해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암울하게 전개될 학술 번역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상유지도 매우 힘겨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앞선다. 무엇보다 연구 인력의 급속한 축소가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이다. 1998년 시행된 학부제의 폐해로 인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특히 문(文)·사(史)·철(哲)을 다루는 학문 분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철학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헤겔학회나 칸트학회 등 주요 학회에 40대 이하 젊은 연구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즉 학문후속세대가 끊어진 상태이다. 향후 10~20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의 풍부한 연구 인력은 학부제 세대에 의해 교체될 터인데, 인적 숫자의 축소는 명약관화해 보인다(이와 더불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위주의 학술 논문 — 물론 이에는 순기능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 — 양산과 번역출판에 대한 연구 평점 미부여 등 많은 요소들이 학술번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 개선의 모색점: 정책적 대안과 출판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솔직히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나 위기의식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학계와 출판계의 공동 대응이 그나마 모색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본다.

우선 제도적 차원이라 함은 민간 영역인 출판사에서의 학술번역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학술번역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내의 '동서양고전명저번역사업'을 비롯해 출판과 관련한 다수의 학술정책이 그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사업에는 시간강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등 다양한 학술 연구 인력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몇몇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출판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 내에 이른바 '출판'을 아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은 학술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분명 치명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동서양명저번역사업'만 하더라도 한국연구재단 내에 출판에 아는 직원이 없는 관계로 편집과 제작 등 책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완벽한 품질로 만들어졌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번역자 선정에서부터 최종 번역 결과물까지의 출판 이전 단계는 비교적 엄밀한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 마지막 결과물인 '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 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증할 인적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 큰 시야에서 보자면, 현재 '동서양고전명저사업'으로 선정되고 있는 목록들이 과연 '고전급'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 민간 출판 영역에서 충분히 번역·출판할 수 있는 책들까지 사업영역에 동으로써 과연 이것이 '국가' 사업의 취지에 합당하지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적어도 '국가' 사업이라고 한다면 민간 출판사들이 할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고전번역 사업에 우선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역사가인 리비우스(Livius)나 폴리비우스(Polybius)가 남긴 역사서들 같이 민간 출판사가 하기에는 힘든 고전을 말이다. 이와 같이 각 학문영역별로 선정위원회 — 학회 차원의 구성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 를 구성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각별히 어떤 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번역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향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적인 연구 인력이 급속히 축소된다는 점이다. 즉 번역해야 할 학술고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인적 자원은 급속도로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기에 현재의 전문 연구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과 연계할지도 적극적인 고민거리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함들은 결국 한국연구재단이 상당한 기간과 국가 예산을 투입해 많은 동서양 고전들을 번역·출판했지만, 과연 전체 기획 의도에 맞게 시리즈의 위상이 정립되었는지를 묻는다면 많은 연구자나 학술출판 관계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이는 1980~90년대 대우그룹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음사에서 출판한 '대우학술총서'와 단순 비교만 해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동서양고전명저사업'의 경우, '국가' 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책'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검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민간 출판사에서 번역 기획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출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출판 관련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적어도 '옵서버(observer)' 형식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번역 기획 단계부터 출판 관계자가 참여하여 최종 결과물인 '책'에 이르기까지 출판 실무자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큰 틀에서 보면 출판을 하청으로 보는 인식부터 고쳐야

끝으로 학계나 한국연구재단(정부 당국), 그리고 출판계 공히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출판을 '하청'(下請)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출판계에 종사하는 편집자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태가 되고 말았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술과 출판이 연계된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출판은 언제나 하청 취급을 받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연구재단의 '동서양고전명저번역사업'에서도 출판 관계자는 최종 결과물인 번역물이 주어졌을 때 그제서야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책이 기획되고 그 책들이 전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에서 갖는 위치 등 국가사업에 걸맞은 위상 속에서 출판 관계자의 참여로 책이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출판 관계자는 단순히 '제작비'만 받고 책을 '납품'하면 끝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오로지 최종 결과물인 번역원과 그 번역자와의 편집 과정이 유일한 개입이며, 그것 역시 현재의 출판 형태 속에서 올곧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지금은 폐지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연구자에게는 연구비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는 출판 비용이 빠져 있다. 오롯이 저술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과물인 원고가 나오기까지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따라서 각 연구자는 자신의 최종 결과물을 민간 출판사를 통해 알음알음 펴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즉 '국가'가 개입해 이루어지고 있는 '책'과 결부된 대부분의 학술 정책과 사업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출판 분야'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하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문/사회 학술 분야의 연구자들도 책을 '편집'하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는 곧 출판 행위(특히 '편집 과정')를 단순히 연구자의 보조 인력 내지 보조 행위 정도로만 보는 인식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편집자의 교정과 교열이 책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연구자도 드물다 보니, 편집 과정이 저자와 편집자의 이상적인 '정신의 교류'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순히 오자(誤字)나 탈자(脫字)를 발견해 정리해주는 정도의 일만 하는 것이 편집자의 역할이라고 보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며, 하물며 '편집'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의문시하는 연구자조차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학문 풍토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전환 역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술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학술번역이나 저술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 대부분이 출판을 단순 '하청'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전체 학술 프로그램에서 '출판'이 갖는 순기능들이 적극적으로 학술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최종 결과물인 '책'은 항상 최고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되었다.

이 땅에서 근·현대 출판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문학과 인문/학술 출판이 절정에 오른 때는 없었다. 연구 인력도 지난 세기에 비해 한층 풍부해졌고, 또한 다양성과 전문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말미암아 향후 전개될 미래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리라는 것이 학계는 물론 출판계 공히 예측하는 바이다. 아울러 출판 역시 사양산업적(斜陽産業) 요소가 강해 — 특히 학술출판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당국은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인문 연구자 인력분만 아니라 학술출판 전반에 대해서도 분명 적극적인 지원책 — 수십 년째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각급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 확충을 통한 양서 구입 사업 —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출판을 '하청'으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뀌 학술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출판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 연구자나 출판 편집자 역시 편집 행위가 '정신의 교류'라는 고도의 정신 작업을 같이 수행해가는, 즉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책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발제문 형태의 글이라 다소 거칠고 논리 전개가 부정확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2030이 보는 출판]

## 나의 이름으로 일하고 싶은 세대

김세나(퍼블리셔 운영자)

2019.11

### 나를 위한 '존버정신' 세대

“오늘 이거 함께 진행하려면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데 괜찮을까?” 편집팀장이 조심스레 신입사원에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신입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던 팀장에게 신입은 곧바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야근이라면 괜찮습니다.”

당찬 신입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는 한 출판인의 이 이야기가 나는 지금의 2030세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했다. 흔히들 2030세대 하면 회사 일보다 나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야근이라면 무조건 싫어할 거라고 짐작한다. 한참 잘못 봤다. 자신을 가장 중시하기에 성장의 기회라면 야근도 마다 않는 게 바로 지금의 2030세대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그것이 성장의 기회인지는 내가 정한다는 것! 강요되는 열정과 성장은 절대 사절이다. 된장도 내가 먹을 때나 된장이지, 회사가 떠먹이는 된장은 그들에게는 똥이나 다름없다.

직업관부터 그들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 이전 세대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책을 만든다는 신념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면, 2030세대는 회사의 발전과 출판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버티는 '존버정신' 따위는 없다. 오로지 자신,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을 위한 '존버정신'만 있을 뿐이다.

일이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려면 셋 중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돈을 많이 주거나, 노후를 확실히 보장하거나, 재밌거나! 그런 눈에 비친 출판계 사정은 어떤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연봉, 이번에 또 이직했다는 전 직장 동료,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도 없다.

### 2030 눈에 비친 출판계 풍경

우스갯소리로 '잉크만 찍어도 책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유명한 출판사는 대부분 그 시절 책을 냈던 곳이다. 지금의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곳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의 노고 덕분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잘 타고난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은 출판시장 전체가 커지지 않으니 '대표'라고 해서 별수 있겠는가. 자기 벵수만 불리는 악덕업주도 있겠지만,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표들이 더 많다.

'취괴리만 한 월급'이라고 욕하던 이들도 막상 사직서를 던지고 출판사를 차리면 그 취괴리만 한 월급도 주기 어려워 1인 출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이 없으니 실업자와 프리랜서만 늘고, 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1인출판사를 차린다. 악순환이다. 창업률로 따지면 치킨집 다음이 출판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프리랜서나 1인출판사가 모두 밀려나듯 그 길을 택한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택한 이들도 많다. 이전 세대에게는 한 직장에 오래 일하면서 승진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걱정스러운 눈빛부터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찍 프리랜서를 선언한 동료를 부러워하는 2030 출판인들이 많다.

실제로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임에도 자진 퇴사를 결행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어차피 정규직으로 취직해도 미래가 불안하다면 한 살이라도 어리고 열정이 남아 있을 때 자기 일을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딱히 연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야근과 온갖 잡무가 웬 말인가. 이들은 '워라벨(워크라이프 밸런스)'을 이룰 수 없다면, 돈을 덜 벌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선호하는 세대다.

출판사들 역시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프리랜서와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려는 게 요즘 추세이기도 하다. 조직 생활에 거부감이 있는 2030세대는 평생직장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 단기간 일에 집중하고 일이 끝나면 쉬다가 또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 진행하는 프리랜서. 발음도 아름답다. 프, 리, 랜, 서! 유음 '르'이 랄랄라 하고 "나 자유로워요" 하고 흘러가는 것만 같다. 하지만 현실도 그런가.

## 2030이 출판에 등을 돌리는 이유

얼마 전 내가 운영하는 <퍼블리언서(publilancer.com)>의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면서 신청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신청자는 대부분 2030 편집자들이었는데, '출판 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어봤다. 7년 차 미만 편집자들의 답변이 무척이나 참담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롤 모델이 없어요."

"사람을 갈아 넣는 노동구조, 상사 및 저자의 감정 쓰레기통, 적은 페이."

"점점 축소되는 출판 시장, 다른 분들은 플랜B를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

"다니고 싶은 출판사를 찾기 힘듭니다."

10년 차 이상 편집자들의 답변은 좀 달랐다. "점점 좁아지는 저자 풀이 고민", "한정된 시간을 쪼개어 책을 잘 만드는 방법", "팀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출판 일은 왜 달인이 되기 어려울까" 등등. 높은 연차의 편집자라고 사양 산업일지도 모르는 출판시장에 몸담고 있는 것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다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이들은 현실과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해왔던 일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란 쉽지 않으니, 그간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어떻게 출판계에서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2030이 출판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것은 비단 독자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판에서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 출판계의 다양한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퍼블리언서>를 굳이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인재들이 출판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래야 기존 의 유능한 인력의 이탈도 막을 수 있다.

2030세대에게 출판계를 떠나는 이유를 물으면 무엇보다 일이 재미없어서라고 토로한다. 오해하지 말자. 책을 만들고 독자에게 전하는 일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다. 자신의 업을 둘러싼 현실의 일상이 지루하다는 말이다. '재미'라는 게 반드시 연봉, 일의 양, 적성 등에만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재미없다고 하는 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그려지는 미래 모습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이다.

물론 좋은 책 만들면서 돈도 제법 벌고 즐겁게 명예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동료나 가까운 선배라기보다 대부분 출판이 호황이었던 시절에 이 일을 시작하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대표급 인사들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출판사를 차린다고 해서 그들처럼 자기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 '출판의 미래'나 '출판 트렌드' 등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더 늦기 전에 이 판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2030 출판인들에게는 다 남의 이야기 같다.

출판계에는 정말 롤 모델이 없고 미래가 없을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롤 모델이 존재하고, 얼마든지 콘텐츠업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책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과 즐겁게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본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한다.





## 나는 왜 출판이 재미있었나

나는 한 출판전문지의 편집자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각각각색의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책을 중심으로 어떤 재미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들을 기회가 많았다. 내가 접한 개개인 모두가 롤 모델이 될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모든 경험은 롤 모델로 삼기에 충분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었고 일상도 더 없이 바빴지만, 출판을 둘러싼 그 일에는 분명히 '재미'가 있었다.

그 뒤에는, 책 만드는 건 해봤으니 이번엔 책을 재미있게 팔아보자 싶어 독립서점 창업에도 도전했다. 책과 함께 50여 종의 세계맥주를 큐레이션했고, 북&베드 (book & bed)도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해봤다. 자연스럽게 북콘서트 기획과 진행도 같이 맡아서 했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BOOK씨니'라는 개인 브랜드를 쌓아가며 각종 출판 프로젝트 기획은 물론 행사 진행도 맡아 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다. 프리랜서는 결코 프리하지 않으며, 직장 동료가 없으니 상의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 치열하게 외롭다는 사실! 이런 고민만 해도 그나마 배부른 소리다. 주변엔 불안정한 수입에 고생하는 이들은 물론, 작업의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았다. 인맥이 없으면 실력이 좋아도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작업비를 떼이고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외주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서도 없어서 일로 주고받은 문자 캡처가 증거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느라 반나절을 보내기도 한다.

경험이 적은 2030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절박하다. 현실을 모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회사는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근로자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혼자 하느라 영혼이 사라져갔고, 프리랜서는 일이 없어 죽어간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

## 작은 연결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의 출판

<퍼블리셔> 커뮤니티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일단 작은 연결부터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2018년 9월 첫 모임이 열렸다. 매회 주제를 달리해, 연차 상관없이 자기 업에서 뭔가를 이뤄가는 실무자를 섭외해 발제를 부탁했다.



우리는 커다란 담론보다는 작은 서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저 사람은 나와 연차가 비슷한데 저런 생각과 시도를 하면서 일하고 있구나' 하고 건강한 자극도 받았으면 한다. 내가 그랬듯, 누군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 자기가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출판 모델을 만들어 나갈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출판의 미래를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출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의 능력이 향상되고 유명해지면 회사를 나갈까 봐 걱정하는 대표들이 있다. 그래서 일과 관련된 행사나 기고가 아니면 참여를 제한하는 곳도 종종 있다. 2030 출판인들은 그런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탄 짓을 장려하는 문화가 훨씬 효과적이다. 2030들은 인정욕구가 강한 세대 아니던가. 유명해질수록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일도 제대로 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의 탄 짓이 알려질수록,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일할수록 세상은 그러한 인재를 키워낸 회사를 눈여겨볼 것이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재가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한 출판사의 채용에 관해 취업준비생들의 문의가 빗발친 적이 있다. 그들에게 그 출판사의 연봉이나 근무조건 등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 출판사에는 탄 짓도 종종 저지르며 일도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있었다. 그게 그 출판사의 강력한 무기이고 자산이었다. 그런 그들이 회사를 나가 멋진 프리랜서로 도약한다면, 그 역시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가. 다른 형태로 회사와 관계를 맺고 파트너로서 새롭게 일하면 되는 것이다.

외주 시장이 커질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인 브랜딩에 성공한 프리랜서는 고급 프로젝트를 골라가며 일할 테고, 그렇지 못한 프리랜서는 극심해진 경쟁에서 밀려나 지금보다 더 험값에 일을 구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지금의 2030 출판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며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이유다. 그들의 커리어 인생을 평생 책임져줄 수 없다면, 매년 만족할만한 연봉 협상을 해줄 수 없다면, 부디 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 달라. 2030세대의 애사심은 거기에서 나온다.

[2030이 보는 출판]

## 책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라고?

박원익, 조윤희(『공정하지 않다』 공저자)

2019.11

언론계는 물론 출판계에서도 2030들 중에, 좋은 글을 쓰는 저자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가 젊은 필자니까 같은 세대 글쟁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주변에서 좋은 저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듣는다. 브런치,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수많은 2030들이 있는데, 왜 저자를 찾기 힘들다고 하는 걸까.

물론 2030 작가들 중 에세이스트와 소설가들은 많다. 그러나 문학 분야 외에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는 30대 필자가 있나? 특히 인문, 사회, 경제분야의 저자들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다.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를 잡은 이들은 대부분 40~50대들이다. 20~30대는 물론 40대 초반도 잘 찾기 힘들다.

전문가라는 건 어떻게 증명되나. 결국 '직함'에 달려 있다.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직함이라는 걸 내밀 수 있는 그럴 듯한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특유의 '감(鑑)성'과 '필체'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 그런 글을 쓰게 되니 점점 더 전문성은 떨어진다. 넓은 시야보다는 '튀는 글'을 쓰기 위해 좁은 시야를 강조하게 된다. 연구자들을 만나면 요즘 젊은 연구자들은 거시적인 안목이 없다고 말한다. 악순환이다. 하지만 우리 세대 저자들 중에도 무언가 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고민이다.

### 우리 세대들은 책을 어떻게 대하나

젊은 세대에서 좋은 저자가 없다면, 그건 그 세대의 독자가 줄어서일 수도 있다. 요즘 20대들은 책을 안 본다는 말은 우리도 지겹게 듣는다. 30대가 많이 읽는지도 잘 모르겠다.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학의 대가들의 주요 작품도 모르면서 문화부 기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대학에서는 요즘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인 인문 사회 분야의 고전도 안 읽고 대학원에 온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른바 '레퍼런스'가 되는 책도 안 본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출판과 책이 가졌던 권위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은 명문대 대학생조차 과거의 대학생보다 엘리트 의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대학진학을 자체가 높아졌고 인적자본의 축적 수준도 상향평준화됐을 뿐만 아니라 명문대생이든 아니든 공통적으로 사회 진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적 특권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었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가 그렇다. 과거 대학에서 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인문교양 독서에는 '엘리트 의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2030들은 특권적 교양을 소유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양적으로도 좁아진 인문사회 독서시장 내에서 2030 내부의 독서 양극화도 일어났다.

그러면 과거의 레퍼런스는 그렇다 치고 이들 세대를 사로잡을 새로운 담론이나 지적 흐름이 출판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가 물어보자. 그런 윗세대 저자들의 책을 본 기억이 희미하다. 결국 2030세대가 독서와 거리가 멀어졌다기보다는 인문사회 담론의 공급자들이 이들의 수요에서 멀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또 하나, 2030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SNS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한다. 거기에서 관심사가 생기면, 그 관심사에 대한 지적 욕구를 찾기 위해 2차적으로 책을 찾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에게 책은 그 자체로 '풍덩 빠져서 헤엄치고 싶은 즐거운 호수'가 아니라, '망망대해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수영하는 법'이 필요할 때 집게 되는 것이다.

사실 책을 읽지 않는 2030들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 간단하다. 결국 각박한 경쟁에 지친 다수의 젊은 세대가 집어 드는 것은 노벨문학상 수상작보다는 나를 지금 당장 위무해주는 감성 충만한 책이거나 서브컬처(subculture) 서적이다. 그러니 이 세대의 독서가 줄어드는 것을 2030 독자들의 지적 수준이 하락해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세대들은 독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필요성부터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자, 저자로서의 2030보다 출판인으로서의 2030들의 역할에 대해

그럼에도 우리는 책의 필자가 되었다. 그것도 잘 안 팔린다는 인문, 정치, 사회 분야의 저자다. 우리는 별종일까? 히키코모리일까? 우선은 활자화된 형태의 담론에 대한 집착 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세대 내에서는 일종의 별종이라 볼 수 있긴 하겠다. 하지만 활자화된 담론을 내놓는 것은 어느 시대나 원래 별종들이 하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히키코모리는 아닌 듯하다. 여러 번 단행본을 내면서도, 최근에는 깨달은 것이지만 출판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고도의 사회적인 협업 과정이기 때문에 히키코모리 성향을 갖고 있으면, 저자로서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공저자와 엮어서 출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겪어보니 새삼 여러 사람들과의 호흡이 중요했다.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냈으니 같은 세대의 에디터들을 만나봤다. 비슷한 또래의 필자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난 에디터들이나 출판사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만나 본 2030 출판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세대의 공통점은 발견하려는 시도가 과연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 다만 여러 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에디터는 우선 저자가 갖고 있는 욕망을 공감하는 동시에 그러한 욕망의 자기객관화를 도와주는 어려운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에디터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자신의 관심사와 지적 욕구를 책으로 풀어내는 에디터,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관심사와 자신의 관심사를 어떻게든 연결시켜 책으로 풀어내는 에디터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중 후자의 에디터들은 다소 활자화된 형태의 담론에 대한 수집욕을 가진 오타쿠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느 성향의 에디터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만약 책이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넓히려려고 한다면, 책을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는 에디터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책의 생산자는 사실 저자가 아니라 출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30 세대의 저자들이야말로 좋은 출판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2030들이 책의 저자를 꿈꾼다면 그 이유는 뭘까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는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글 쓰는 일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단행본 필자가 되려고 했던 걸까. 책은 SNS 공간에서 과감하게 내치르는 실험적인 글과 달리, 세 번 네 번 다시 숙고하면서 쓰게 된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온건'해지고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글의 논리적 구성과 근거를 더 고민하게 되다 보니 내용이 더 알차진다는 장점을 스스로도 분명하게 느낀다.

아무리 가벼운 내용을 다뤄도, 어쨌든 단행본 출판은 양복을 빼입고 면접을 보는 느낌이다. 면접에서 진지하게 상대를 설득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불락하거나 차단할 수 없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진검승부를 보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호흡이 길다는 게 단행본의 가장 매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10분 동안 내 말을 듣게 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한 시간 동안 내 말을 듣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시간이 길수록 그 일은 어려워진다. 단행본은 그런 매력을 가진 글쓰기다.

또한 우리에게 책이란 마지막 남은 권위 있는 미디어다. 인터넷에 흘러 다니는 콘텐츠를 재미있게 보지만 그 콘텐츠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웃고 즐기면 그만이다. 이제는 언론사의 기사도 그렇다. 예전에는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할 때 신문기사를 근거로 많이 내세웠는데, 요즘은 그런 논쟁을 하면 "신문에 나온 걸 믿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하지만 책을 근거로 들면 그나마 믿고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행본의 필자가 된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이 책에 나온 주장을 근거로 논쟁을 벌일 만한' 말을 하는 글쟁이가 된다는 의미다.

만약 '책도 어차피 네 생각에 불과하잖아', '거기 나온 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 맘대로 해석하잖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온면, 그나마 지금 단행본 출판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매력도 떨어질 것이다. 그건 저자의 책임만은 아니다. 출판사의 담당 에디터는 신문사의 데스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저자로서 많이 느낀다. 그래서 출판에서 '객관화'라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저자들은 자기객관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 이름이 박힌 책을 낸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의 관중(관심층)의 성격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2030들을 출판 콘텐츠의 저자로 등장시킬 유인요소는 오히려 크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오늘날의 2030들은 “내가 뭔데 책을 내?”라는 질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책을 내지”라고 말할 수 있는 별종들이 점점 그런 별종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별종들의 관중 끼기 책이라는 형태를 통해 더 많은 동세대 독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낮은 전문성이 대중성이라는 장점이 되거나, 좁은 취향이 개성화라는 매력이 되어, 독서 인구를 늘이는 데 이바지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어쨌든 책은 많이 안 읽지만,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는 것 같다. 책을 읽는 10명 중의 9명이 아니라, 책을 쓰는 10명 중의 1명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느낀다. 그런 점에서 동년배들의 독자들을 만나보면, 과거 독자들이 저자에게 가졌던 ‘선망과 존경’ 같은 건 약해진 듯하다. 특히 동년배 필자라면 더욱 그렇다. 저자인 ‘나’가 독자인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미리 말해두었거나, 내가 쓴 것보다 더 잘 썼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를 잘 대변해주는 동년배 필자라면 인정한다. 그런데 그런 필자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맡겠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2030세대에게는 콘텐츠를 구매해서 소비한다는 개념보다는 나 자신이 콘텐츠를 후원한다는 주인의식, 권리의식이 더 뚜렷하다. 이들이 일상적으로 유튜브 브나 트위치를 후원하듯이 인문사회 담론에 대한 그런 방식의 후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가 저자로서 하는 고민이다. 왜냐하면 저자이기 전에 독자로서 우리도 과거에 책을 읽는 기쁨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책을 읽는 것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순수한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기쁨이 덜하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서 유행하는 담론의 정형화된 구조와 패턴을 어느 순간 알게 되면 ‘어차피 그게 그거’라는 느낌이 들며 심드렁해진다.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2030세대 상당수는 인문사회 분야의 저자와 출판사들이 강고한 담합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4050들이 새 책을 내면 ‘안 봐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간혹 참신한 발상을 하는 저자 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그럴 때는 뭘 듯이 기쁘다. 일단 우리부터 그런 저자인지를 생각해본다. 쓰다 보니 고민상담이 되었다.

[2030이 보는 출판]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말’은 바로 합시다

이연실(문학동네 편집부 국내5팀장)

2019.11

### 1. 출판인들이 쓰는 이상한 말

우선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들에서 나 역시 100퍼센트 자유롭진 못하다는 것을 밝힌다. 출판계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몇 있다. 이 말을 직접 쓰거나 접할 때면 나는 바쁘게 일하다가도 손이 멈춰지곤 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심표 하나, 조사 하나에도 전전긍긍하는 우리 편집자들의 언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조금 더 정확한 말을 쓰기 위해, 중복되는 말이나 모호한 말로 내용을 흐뜨리지 않기 위해 교정지를 백백이 메우는 우리가, 교정지 밖에서 독자들을 향해 쓰는 말 또한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신작 출간 초기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 출판사들에서 하는 마케팅으로, 작가의 친필사인본이벤트가 있다. 작가가 면지에 한장 한장 서명한 친필사인본 이벤트는 작가의 공이 들어가는 만큼 독자들의 호응도 좋다. 출간 초기 책에 대한 평가가 퍼지기도 전에 기꺼이 작가의 이름만 믿고 구매해주는 독자들에게 대한 보답으로서도 이 이벤트는 가치 있다. 그런데 요새 자주 보이는 ‘엇비슷한’ 마케팅으로 ‘친필사인본’ 이벤트가 있다. 나는 이것이 좀 희한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의 사인 한 장을 받아서 도판으로 인쇄한 것이라면 ‘사인본’이라고 표현하면 족하지 않은가? 사인을 당사자의 친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씨로 하는 법은 없다. 작가가 직접 한 권 한 권 육필로 서명한 책이라면 ‘친필’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친필’과 ‘인쇄’를 한 단어로 묶여넣은 ‘친필사인본’이라는 말의 감각은 조금 괴상하다. 나는 이 단어가 마치 ‘기계로 뽑은 수타 짜장면’처럼 억지같이 느껴진다.

단순히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들은 ‘친필사인본’을 친필사인본과 종종 헷갈린다. 필압(筆壓)까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생생한 사인본을 보고 ‘친필’이냐고 묻는 전화가 출판사로 심심찮게 걸려온다. 출판인들은 ‘친필사인본’과 ‘친필사인본’의 차이를 대번에 인지하지만, 독자들은 아니다. 이 오묘한 눈속임 같은 ‘친필사인본’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나는 기왕 사인본 이벤트를 할 거라면 가급적 나의 저자들에게는 친필사인본으로 요청하곤 했다. 그러나 이것은 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 이 친필사인본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친필사인본’ 이벤트를 내걸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보도 ‘친필사인본’이라는 말은 좀 비겁한 것 같다. 독자들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는 이런 말은 서점과 출판계에서 자정해야 하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출판계에서 흔히 쓰는 카피 중에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라는 말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출간 전 예약판매를 진행했고, 예판기간 중에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킨 책이라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라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언제부터가 출판계에서 이 말은 관성적으로 쓰이고 있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을 이마에 붙이고 있는 모든 책들이 과연 정말 출간과 ‘동시에’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는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시장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허둥지둥 우리의 책에 베스트셀러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한다. 이런 조금증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라는 정확하지 않은 말에도 스며 있는 게 아닐까?

나의 저자인 모 작가님은 내가 약간만 과잉된 카피를 썼다 하면 ‘약은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를 하면 즉각 처벌받는데, 왜 책은 아무리 과장광고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신 말씀이었으나, 책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명확한 구매효과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광고 한마디라도 더 삼가고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리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아무리 책을 파는 게 급선무일지라도 언어를 다루는 우리가 독자들에게 건네는 말은 조금 더 엄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 2. 베스트셀러 조작만큼 나쁜 스테디셀러 조작

이번에 내가 비판할 일들로부터는 난 자유롭다. 편집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나는 한 군데의 출판사에 몸담아왔고, 내가 속한 회사에서 이 일은 절대금지였다. 그러나 지금 출판계에서 이 일은 너무나 만연해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 거의 없어졌다. 바로 '쇄수 부풀리기'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책들이 100쇄 200쇄를 찍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출간된 지 몇 개월도 안 된 책이 100쇄를 찍은 기적적인 경우도 본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중쇄란 말 그대로 이전의 쇄가 거의 소진되어 새 책이 필요한 경우에 찍는 것이다. 사전에도 '쇄'란 "책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간할 때, 그 출간횟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고려대한국어사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새 일부 출판사들은 한 번에 한 쇄씩 찍지 않는다. 이를테면 10쇄와 11쇄를 한 날에 동시에 인쇄한다. 분명 같은 날에 인쇄에 들어가는데도, 쇄수를 바꾸고 발행일에도 며칠쯤 차이를 둔다. 굳이 안 해도 될 '판권같이'를 해가면서 이 번거로운 짓을 하는 이유는 책의 전국 판매부수를 명확하게 카운트할 수 없고, 발행부수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 업계에서 출판사들이 홍보에 써먹기 좋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치'가 바로 쇄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쇄'는 출판사가 하루에 몇 쇄씩 자의적으로 고무줄처럼 쪽쪽 늘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출간 후 오랜 기간 동안 쇄를 거듭한 책은, 그 책이 곧 스테디셀러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 베스트셀러 위주의 세상에서 독자들이 스테디셀러를 알아볼 유일한 명확한 기준은 판권에 기록된 '쇄'다. 비단 발행부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단 한 번도 베스트셀러 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적이 없는 책이라 할지라도 수년, 수십 년간 차근차근 거북이처럼 쇄를 늘려온 책은 좋은 책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쇄'는 판권면에서 바로 이런 스테디셀러를 독자들에게 조용히 웅변하는 역할을 하는 수치이다.

출판계의 악습인 사재기는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지고 처벌받는다. 나는 '쇄수 부풀리기'가 스테디셀러를 조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재기'만큼 지독한 악습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렇게 '쇄수 부풀리기'를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이다. 단기간에 많은 부수를 찍는 베스트셀러가 시간과 땀을 독자들의 애정을 필요로 하는 스테디셀러의 자리까지 탐내며 쇄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작가, 독자, 출판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말이라는 '중쇄를 찍자!'의 본뜻이 어쨌든 '쇄수만 최대한 늘리고 보자!'는 아닐 것이다. 판권에 기록된 쇄는 책의 나이테와도 같다. 책의 나이테를 무리하게 임의적으로 늘린 '쇄수 부풀리기'를 그저 홍보의 한 수단이라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베스트셀러는 종종 마케팅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스테디셀러는 오직 독자들의 꾸준한 지지로 시간을 견뎌낸 책들만이 누려야 마땅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 3. 현장편집자들에게 더 많은 소통과 배움의 기회를

지금까지 나는 출판인들이 책을 만들고 알리는 과정에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작지만 중대한 잘못에 대해 말했다. 이번엔 이 판에서 일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2018년 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글로벌 출판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콘텐츠 기획 역량 향상' 부문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미국 뉴욕에 다녀왔다. 지나치게 긴 이름이 매우 '공공기관 사업'스럽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뉴욕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너무나 유용하고 재밌고 충격적이었다.

그간 책 뒤표지 추천사에서나 보았던 뉴욕의 '퍼블리셔스 위클리' 사무실로 아침에 출근하면, 난다 긴다 하는 뉴욕의 출판인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지금 뉴욕의 출판시장과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 들려주었다. 우리 또한 한국 출판인들의 현실과 고민을 무수히 털어놓으며 핑퐁처럼 토론과 질문을 주고받았다. 점심을 먹으며 멀찍이 나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가까운 치폴레에서 허겁지겁 브리또를 입에 쑤서 넣고도 다음 세션에서 만날 출판인들과 단 몇 분이라도 더 여유 있게 대화하고 싶어 후다닥 돌아왔다. 말로만 듣던 사이먼앤드슈스터(Simon & Schuster) 같은 초대형 글로벌 출판기업부터 직원이 열 명 안팎인데도 기획력으로 단단히 무장하고서 뉴욕 한복판에서 여유 있게 살아남은 소규모 출판사들의 사무실까지 발바닥에 붙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영어로 서툰 내가 작년에 내가 이렇게 뉴욕의 출판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출판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분들 가운데, 현장기획편집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유려한 영어회화 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어서였다고 생각한다. 합격 후 뉴욕에서 현지출판인들과 소통할 때는 동시통역이 지원되었다. 영어에 능숙한 다른 편집자들조차도 현지출판인들과의 대화와 각종 세미나에서 출판용어나 전문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동시통역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어 좋았다고들 했다.

사실 지금 내가 기획편집일을 해나가는 데 유려한 영어회화가 필요한 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흥원에서 내가 다녀온 과정 외에 출판계의 해외 연수나 해외 교육 과정의 문은 '외국어 능통자'들에게만 열려 있다. 우리말과 글을 다루는 기획편집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지원한다면 영어실력이 필수조건이 되는 아이러니—자연히 국내도서 기획편집자들보다는 해외편집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내가 얻은 이 잊지 못할 경험과 배움의 장이 나는 앞으로도 더 크게 가급적 많이 열리길, 이것이 내가 누린 드물고 특별한 경험에 그치지 않길 바라본다.

돌아보면 출판계에서 후배들을 위해 남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선배들은 자주 뜬금없이 욕을 먹거나 고난에 직면했던 것 같다. 2019년 내가 참석한 출판인 행사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시작한 '출판정담'이었다. 출판인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장님들, 너무 익숙한 원로급(?) 편집자들 말고, 한창 현장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자리다. '출판정담' 행사는 참석자를 모집하기 시작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나도 큰 도움을 받았다. 새로운 시도이다보니 '출판정담'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때 이해할 수 없는 억측과 오해의 말도 떠돌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들은 바로 나의 이야기였고,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 이야기였다.

책도 안 팔리고 먹고살기는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출판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할 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장 우리의 생계를 잇게 해줄 책 한 권을 근근이 만드는 일,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 책들을 사주고 추천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출판인들에게 우리의 일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멋진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한다. 매년 역대 최악의 출판 불황이 갱신될지라도 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무궁무진하며, 이 판이 그래도 재미있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하다.

출판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후배들을 위한 새 판을 깔아주는 일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현장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폭넓은 관점과 시야로 발견해주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젊은 우리는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싶다.



[2030이 보는 출판]

## 그 ‘숨은 작가’를 편집자는 몰랐을까

김민섭(작가, 출판사 정미소 대표)

2019.11

“작가가 출판사를 만들었다고요. 뭔가 어중간하게 책을 판 작가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첫 책을 만들고 물류계약을 위해 유통사를 찾았을 때 들었던 말이다. 사실 비슷한 말을 몇 차례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기는 처음이었다. 그에게 ‘어중간하게’의 범위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대략 3만부 내외라고 했다. 내가 낸 다섯 권의 책 판매량을 다 합하면 그 정도가 간신히 넘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중간하게’라든지 ‘그럭저럭’이라든지 하는 언저리에도 못 가는 셈이었다. 그에게 다른 작가들의 책을 내고 싶어서 출판사를 만들었고, 내 책은 여전히 다른 출판사에서 내려 한다고 하자 잘 믿지 않는 눈치였다.

모 작가는 내게 작가가 출판사를 내는 데 업계의 반감이 있으니 SNS를 통해 해명 비슷한 것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들이 보기에 나는 인세 10%에 만족하지 못하고 판매마진까지 다 가져가려는, 혹은 출판을 단순히 책을 만드는 일로 끝난다고 보는, 차라리 자신이 만들어 팔면 더 잘될 것이라고 믿는 불만 많은 어중간한 작가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금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안다. 아마 내가 업계 종사자라 해도 ‘아, 네, 어디 한번 잘해보십시오.’하고 그가 잘되기보다는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지켜보려 할 것 같다.

사실, 글을 쓰는 자리에서 책을 만드는 자리로 오게 된 것은 모든 작가들이 가지고 있을 어느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2015, 은행나무)부터 『경계인의 시선』(2019, 인물과사상)까지 5년 동안 6권의 책을 출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내가 글을 쓰는 한 개인으로서 소진되고 있음을 알았다. 어느 경험이나 감각들을 책으로 내어놓고 나면 그것은 다시 글의 소재로 삼을 수가 없게 된다. 동어반복이나 자기표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서평은 “김민섭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것 같아.”라는 것이다. 정작 쓴 사람은 김민섭이라는 작가의 서사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었지만 나는 ‘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하고 두려워졌다. 그 즈음 나는 ‘김동식’이라는 작가를 만나게 되고, ‘문화류씨’ 작가를, 그리고 ‘차무진’ 작가와 ‘노정석’ 작가를 차례로 만나게 된다. 내가 대학에서 나와 만난 새로운 지도교수라고도 부르는 이 몇몇 작가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그 실제 없는 두려움을 안고 몸도 마음도 계속 소진되어 갔을 것이다.

김동식 작가를 만난 것은 2017년 9월이었다. 그는 ‘복날은 간다’라는 ID로 온라인 게시판에 단편소설을 썼다. 1년 4개월 동안 300여 편을 쓸 만큼 그는 쉬지 않고 쓰고 있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10년 넘게 아연주물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그의 글은 무척 특별했다. 대학에서 현대소설을 연구하면서도 그러한 글을 읽어본 일이 별로 없었다.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걸려진 것이 많았지만 이처럼 재미있는 글을 소설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다. 나를 통해 그의 글을 읽어 본 요다 출판사 대표가 나에게 기획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나는 소설집을 출간하는 데 관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김동식 작가는 아주 잘되었다. 『회색인간』을 비롯한 8권의 소설집이 1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2018 오늘의 작가상’ 최종심에 올랐고 각 서점의 연말 기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소설가로 명명되었다. 그의 글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겠다는 제안도 많았고 실제 계약에 이르기도 했다.

『회색인간』 출간 이후 나는 타인의 책을 만드는 것이 무척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타인을 발견하는 일의 기쁨을 알았다. 평범한 노동자가 이 시대의 작가가 되는 그 1년 남짓한 과정은 정말로 가슴 벅치는 날들이었다. 정작 김동식 본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담담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면 모두 한다는 ‘리커버 에디션’에서도 “고맙습니다.”하고 말할 뿐, 나를 비롯해 오히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호들갑이었다.

김동식 작가의 글을 처음 읽어 본 요다 출판사의 대표는 그가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놀라움을 섞어서 물었다. 나는 그에게 “제가 찾았습니다.”하고 역시 장난스러움을 섞어서 답했다. 그러나 김동식 작가는 한 번도 숨어 있었던 일이 없다. 오히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개방된 게시판에서 1년 넘게 자신을 드러내왔다. 재미있는 글을 찾아 읽는 중고등학생이라면, 각 게시판의 ‘이야기’에 익숙한 평범한 개인이라면 모두가 그의 ID를 알았다. 그래서 그의 책이 출간되었을 때 ‘복날’의 책이 드디어 나왔으며 그들이 구매자로 나선 것이다. 것처럼 “저 여기에 있습니다.”하고 모두의 앞에 나와 있던 작가도 없었다. 그것을 업계의 편집자들만 몰랐다.

어쩌면 출판업계는 공모전이라는 공고한 제도를 믿으며 완성된 작가와 소설만을 기다려 왔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나는 김동식 작가의 소설을 두 사람의 편집자에게 보여 주면서 “이거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혹시 출간해 보시면 어떨까요?”하고 물었지만 그들은 “정말 재미있지만 누가 책으로 만들겠어요. 그럴 만한 글은 아니에요.”하고 답했다. 그가 글을 쓰는 동안 자비출간 형식의 제한 두어 번을 제외하면 편집자에게서 정식으로 연락이 온 일은 없다고 했다. 『화색인간』 출간 이후 그가 “이렇게 많은 출판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할 만큼 여러 출판사의 출간 제안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만한 일이다.

젊은 편집자 몇 명이 나에게 “저도 김동식 작가의 글을 게시판에서 읽고 있었는데 책으로 낼 용기가 없었어요.”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건 그에게 그만한 안목이나 용기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보다 오래 공부해왔고 좋은 글을 보는 눈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편집장이나 대표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기에 굳이 ‘김동식’이라는 장르를 소개하기보다는 업계의 문법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반성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어떤 편집자는 김동식의 성공 이후 “김동식 같은 작가를 왜 못 찾아.”라는 말을 내부에서 들었다고도 했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추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를 숨은 작가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돌아보아야 한다.

“1년에 한 명씩만 김동식 같은 작가를 찾아주세요.” 요다 출판사의 대표는 나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외부 기획자’라는 무언가 정체불명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게 “김동식 같은 작가는 김동식 밖에 없습니다.”하고 답했지만, 나는 이미 다음 작가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문화류씨는 작가와 만나게 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주로 자랐고 그러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것을 각색한 소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특이한 점이라면 그가 모든 글을 핸드폰으로만 쓴다는 것이었다. 단행본 2권 분량의 글을 오로지 엄지손가락으로만 썼다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글을 쓰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려다가 김동식 작가가 잘되는 것을 봤습니다. 1년만 더 써 보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작가가 같이 책을 만들어 보자고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년 만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구원받은 심정이 되고 말았다. 김동식 작가의 잘됨이 단순히 그와 출판사, 그리고 기획자 한 사람의 잘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것처럼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꾸준히 글을 써 온 평범한 개인이 용기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미소’라는 출판사를 만들었다. “개인의 고백을 응원합니다.”라는 사훈 같은 것과 함께였다. 나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글을 쓰면서 대학이라는 세계에서 나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시기의 나에게 대학이 내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다. 모두에게 그러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고백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이 정미소에서 도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러한 개인을 발견하고 응원하고 싶어졌다. 나는 현대 소설을 오래 연구하고 강의해 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게시판의 여러 글들을 일부러 많이 찾아 읽었다. 언젠가 책으로 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글들이 아주 많았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의 작가도 출처도 알 수가 없어서 그 감동만 기억하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숨은 작가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책으로 내고 싶다’는 감탄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읽고 발견하고 그들의 세계 바깥으로 그들의 길을 내어주고 싶다.

그러던 중 차무진 작가를 만났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작가였는데, 그의 글은 다른 작가의 소개로 읽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신작인 『인더백』에 내가 관여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다만 그와의 식사 자리에서 그가 “저는 OOO 작가와 같은 글을 쓸 수 없어요.”하고 말했을 때 내가 “OOO에게는 OOO의 세계가 있고 차무진에게는 차무진의 세계가 있잖아요. 저는 차무진의 세계도 좋습니다.”하고 답한 일이 있다. 얼마 후에 만난 차무진 작가는 나에게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 출판이라는 것은 아마도 한 작가의 세계를 독자에게 내어 보이는 작업이다. 한 권의 책에는 글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삶의 태도와 그의 세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한 권의 책을 잘되게 만드는 것은 독자들에게 ‘이 작가가 잘되면 좋겠다.’는 감각을 공유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편집자들에게는 결국 그러한 작가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정미소 출판사에서는 두 달 동안 두 권의 책이 나왔다. 『삼파장 형광등 아래서』(노정석)는 고3 학생이 쓴 시와 에세이와 일기를 모은 것이고, 『내 이름은 군대』(이상문)는 우울증으로 불명예전역을 신청한 성소수자 청년의 수기다. 내가 노정석 작가의 글을 브런치북 공모전의 대상으로 추천했을 때 그의 구독자는 두 명이 있었다. 그러나 ‘글 쓰는 학생입니다. 글과 함께 자랍니다.’라는 자기소개문을 본 순간 나는 이 작가가 좋은 글을 썼을 것으로 믿었고, 그의 글은 나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 자신을 가장 담담하고 단단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고등학생 작가였다. 이상문 작가는 ‘백림서사’라는 매니지먼트의 대표 김현우 씨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군대라는 세계에서 나와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한 도정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노정석과 이상문, 두 작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글을 '기록'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노정석 작가는 교육학을 전공하려는 자신이 이후에 어느 위치에 다다랐을 때 지금 학생으로서의 시선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현재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했고, 이상문 작가도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매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정미소 출판사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세계를 고백하고 기록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책으로 출간하려고 한다. 출판업계가 이러한 일을 독립출판이나 1인 출판의 영역에만 맡기지 않았으면 한다. 만든 책을 유통망을 통해 타인에게 내어 보일 힘을 갖춘 많은 출판사들이 좀 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소명과 사명을 말하는 것만큼 타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도 별로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책을 만드는 일이라 믿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싶다. 내년에는 네 명의 작가와 네 권의 책이 정미소에서 도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응원하며, 책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도정 역시 응원한다.

---

[2030이 보는 출판]

## 비즈니스를 잊은 선생에게

조팀장

2019.11

### 1.

기억에 남는 풍경 #1. 어느 출판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표가 내게 질문은 하지 않고 본인 얘기만 했다. 주옥같은 말씀으로 가득했던 30분 출판 특강. 공짜로 많은 걸 배우고 나와서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당최 나를 왜 면접장에 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특강의 이유를 알았는데, 그건 내가 이력서에 썼던 희망연봉이 그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기억에 남는 풍경 #2.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본부장이 나를 부르더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변명만 길게 늘어났다. 끈대들은 그렇게 전임자의 방만 경영이나 회사 시스템을 탓하고서 자기도 피해자인 양 불쌍한 얼굴을 한다. 그런데 나한테까지 그런 쓸데없는 변명을 구구절절 하는 모습이 진짜 불쌍하게 보여, 화가 나기보다 동정심이 일었다. 그의 작전은 분명 먹혀들었다.

두 사례에서 보듯 끈대들은 말이 많다. 가르치려 들거나 변명하려 든다. 듣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계몽의 대상에 불과하다. 하긴, 그 세대의 진보 지식인들은 내가 대학에 다닐 때도 조용히 공부하고 졸업해서 삼 들고 안전한 삶의 길을 모색하라고 조롱했고, 토플 책을 덮고 짱돌을 들라고 훈계했다. 물론 영리하게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짱돌을 버리고 토플 공부를 했고 그 토플 점수로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졸업 전에 취업도 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업계답게 선생 노릇을 하려는 분이 많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은 썩 빠고, 세상 모든 일에 참견하며 날카롭고도 아프게 까댄다. 정치적으로 누구보다 진보적인 그들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외주 비용을 제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평소에는 출판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연봉을 줄 때는 어려운 업계 사정을 말한다. 우습게도 다들 자기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는다.

이런 그들이니 90년대생과 케미가 잘 맞을 리 없다. 솔직하고 자유롭고 단순한 그들이 당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 중 일부는 그들에게 빈정대고 모욕감마저 준다. 내가 아는 몇몇 90년대생 능력자들은 그런 선생들에게 잘못 걸려 상처만 가득 안고 회사를 떠났다.

### 2.

건방진 말이란 걸 알지만 해야겠다. 출판 업계에 필요한 건 선생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선수다.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인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건 좀 그만하고,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장사가 되어야 한다. 선생이 아니라 선수가 필요한 이유다. 한 출판사도 계간지를 폐간하고 선생 노릇을 하던 기획위원들이 나가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선생이 아니라 편집자가 원고를 고르니 집 나간 독자가 돌아오는 것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나는 사업을 할 줄 아는, 독자를 만족시킬 줄 아는 유능한 선배 출판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단순한 매출 압박으로, 그러니까 부하직원들을 잘 쪼는 식으로 한 철 장사를 해나가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표 혼자 잘나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곳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꾸준히 되는 집들을 보면, 리더가 직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판을 잘 깔아준다. 권한을 위임하고, 실패가 허락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누구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보다 자기 직원이 더 귀한 줄 알고 직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물론 이 모든 건 매출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걸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잘 알기에, 첫 번째 과제인 매출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잊지 않는다.

되는 집들은 이처럼 '매출 → 매출이 나오는 시스템 → 인재 양성 →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건다. 비싼 외서 판권이나 스타 저자, 심지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과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출판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사업을 하는 경영인이라기보다 선생 노릇에 익숙한 이들은 주로 환경을 탓하고 급변하는 세상을 탓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쓸 만한 젊은 편집자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한탄한다. 그 독설의 끝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걸 정녕 모르는 걸까. 사람들 말마따나 그 많던 3년 차 편집자는 다 어디로 간 걸까.

덕분에 80년대 중반생인 내 또래 팀장들은 대리급 편집자의 공백으로 매일같이 격무에 시달린다. 팀의 리더 역할과 허리 역할을 동시에 해내느라 뼈를 갈며 일하는데, 끈대 선생들은 'Latte is horse'로 시작되는 훈계만 반복한다. 그런 혹사 끝에 성과가 나올라치면 온갖 이유를 대며 보상에는 인색하게 군다. 젊은 그들이 차라리 전직 혹은 창업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유다.

대내외적으로 '좋은 복지'와 '평생 고용'을 약속하는 출판사라고 인력 이탈 사정이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다. 그런 환경에서도 직원들이 퇴사를 선택하는 걸 보며, 이번엔 젊은 세대의 '그릿 없음'이 도마 위에 오른다.

선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단순하다. 기회와 가능성이다. 이렇게 일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내 기획과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성과를 내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조직에서 자신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지금 사장에게 충성했는데 행여나 앞으로도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대부분은 가혹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완전 소진되어 제품에 나가떨어진다. 회사로서는 열심히 일해준 A가 나가서 조금 아깝고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B를 뽑아서 대체하면 그만이니깐. 어차피 그렇게 자동차 부품 같 듯 구성원을 갈아치우며 지금까지 달려온 조직이니깐.

### 4.

선배 출판인들에게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지만, 어느덧 나도 선배보다 후배가 많아졌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래위로 욱먹기 딱 좋은 중간관리자가 됐다. 90년대생과 함께 일하며 나의 성장과 그들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앞서 비판한 선배 출판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려울 것 없다. 이미 앞에서 다 말했다. 말 많은 선생이 아니라 비즈니스 선수가 되는 거다. 후배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게 내 역할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팀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받게 해주는 팀장이 되고 싶다. 내가 아는 한, 그런 팀장이 되는 데는 아주 현실적인 3가지 방법이 있다.

1. 정치력을 발휘해 목표 매출을 낮춘다.
2. 목표 매출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낸다.
3. 인센티브 제도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쓴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팀장 아닐까. 최소한 가르쳐주는 것만 많은 선생보다는 훨씬 나은 리더가 되는 길 아닌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찾은 답은 고작 이 정도다. 이 글을 읽고 미숙한 나를 계몽하고 싶은 선생들이 많겠지만, 이럴 땐 어른답게 좀 참고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반대로 내가 팀원들을 향해 마음먹은 것처럼, 나에게도 돈 벌 기회를 주실 분이려면 무슨 말씀이든 어떤 제안이든 대환영이다.

### 조팀장

11년차 편집자. 3년차 편집팀장. 어린이 출판으로 시작하여 실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책을 만들어왔다. 공정성보다 실용성을 더 중시하는 80년대생이다.

##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2019.11

지난 9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으로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중간발표 성격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이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필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저자, 출판사, 온·오프라인서점, 전자책, 도서관, 독서, 소비자 및 관련 단체·기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11월 13일에 마감된 이 청원에 찬성한 사람은 모두 20만 9133명이었다. 현재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서정가제'와 연관된 것은 모두 103건이다. 이번 청원을 제외하고 올해 올라온 7건(마지막 청원은 3월 19일)의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은 참여 인원이 모두 4명 이하였고, 지난해 4월 29일의 청원이 3만 4701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20만 명 돌파는 상당한 숫자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 답변 내용이 '정가제 폐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가제 조항이 바뀌려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 들어 지난 2년여 동안 국민청원 약 69만 건 가운데 공식 답변 기준을 넘은 것이 130건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청원의 추천 규모는 작지 않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3만 명,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33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단체를 만들어 정가제 반대 여론몰이에 나선 움직임도 있다. 특정 스타트업의 결제 앱을 이용해서 책을 사면 연말까지 20% 할인 혜택을 준다며 공공연하게 현행 정가제 위반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서정가제 반대를 공론화하면서 특정 사업의 이익과도 연결시킨 사례다. 이 업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가제 반대 여론이 커진 배경에는 근래 전자책 시장에서 정가제 질서를 확립하려던 움직임이 불러일으킨 오해도 한몫 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민간조직인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전자책의 정가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2월 11일 <전자책 분야의 도서정가제 준수 방법 안내> 공문을 전자책 유통사 및 플랫폼 업체들에 발송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정가 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 9월에 이 위원회는 출판법 제 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책 정가의 판매 사이트 표시'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과 신고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내용을 10월 23일 전자책 유통사와 플랫폼에 공지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이미 현행법에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것이 갑작스런 정가제 강화 조치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겨났다. 모든 웹소설과 웹툰을 정가에 판매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무료 웹소설과 웹툰이 사라질 것이라거나, 대여가 사라져서 작가와 판매업체, 독자에게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진 것이다. 현재 전자책은 간행물을 의미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정가 표시를 하면 정가 판매가 가능하고 부가세도 면세된다. 하지만 해당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가 판매 의무가 없다.

이번에 20만 명을 넘긴 국민청원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책값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다. 동네서점, 독서인구, 출판시장, 초판 발행부수가 줄어든 것이 도서정가제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거나, 프랑스에서 2년 지난 책을 제한 없이 할인한다고 하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독서인구 감소가 도서정가제 강화 때문이라면, 도서 할인율이 높던 그 이전 시기의 독서율 감소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15년(100 기준)부터 2018년 사이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45만큼 상승한 데 비해 출판물은 103.41로 그보다 더 낮은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 책 생태계와 관련된 부정적 현상들이 모두 현행 도서정제 때문이라면, 출판사 수와 출판 발행종수가 정가제 변동과 무관하게 지난 10여 년간 매년 증가했고 2015년 이후 독립서점이 대폭 증가한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다만, 출판 선진국들이 저렴한 페이퍼백과 문고본을 출판하고 전자책에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청원의 결론은 “부담스러운 책값이 독자를 책과 멀어지게 하므로 정가제를 폐지하라”는 것인데, 정말 정가제만 없으면 책값이 대폭 저렴해지고 독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장 정가제의 뿌리부터 없앨 일이다. 도서정가제가 책값을 상승시킨다는 소비자들의 전제는 오해다. 물론 2014년 까지 시행된 과거의 정가제에서는 구간 도서의 광폭 할인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직간접 15% 할인으로 제한된 데 따른 상대적 책값 부담 증가는 있다.

그렇지만 도서정가제 적용 유무가 책값(독자 구매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나 시장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처럼 가격제도가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 상대적 비교만 가능할 뿐이다. 완전한 정가제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는 책값 논란이 없었다. 책값 수준은 정가제나 아니냐 하는 가격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권 시장 규모를 반영한 평균 발행부수와 제작비, 엮가본 출판 규모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출판사, 온·오프라인서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를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각 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그저 절충하는 방식으로는 책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을 추동하는 가격제도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명확한 의지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업계의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테면 페이퍼백이나 문고 같은 엮가본 출판은 도서정가제와 무관하게 독자와 출판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길이며, 공공도서관과 기업(직장)도서관의 대대적 확충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출판·독서 진흥책이다. 독자의 책값 부담을 줄이면서 책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

이제 정가제라는 가격제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책 생태계 관계자들과 국민이 바라는 출판산업과 독서환경의 지평을 넓히는 진화가 필요하다. 정가제는 당연히 그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의 시사점은 거기에 있다.

####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현재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겸 출판정책연구회장이며,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을 역임했다.

---

# 그림책이 몰려온다

김향수(그림책향, 향출판사 대표)

2019.11

## 20년 전쯤,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방이 전국에 100곳이 넘었다. 대표라 할 만한 책방은 일산에 있던 '동화나라'였다. 이곳 책방지기는 1997년부터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이끌며 동화를 '어른도' 보는 책으로 끌어올렸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도 한 몫 단단히 했다. 좋은 책은 권하고, 그렇지 않은 책은 과감히 비판했다. 동화가 잘 팔린다 하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출판사들도 이 모임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다. 사람들은 드라마인 줄만 알았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말괄량이 삐삐'가 동화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팀 버튼 감독의 영화화 덕에 더 잘 나갔다. 바야흐로 동화 전성 시대였다.

오래 가지 못한 시대.

10년쯤 지난 2007년 즈음에는 문을 연 책방보다 닫는 책방이 훨씬 많았다. 그 당시 동화나라 정병규 대표의 어느 인터뷰에 따르면, 그리 많은 책방이 40여 곳만 남았고, 어린이 책만 다루는 곳은 5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루려는 글은 아니기에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책을 정가에 팔지 않던 대형 서점의 할인 공세가 가장 큰 적이 아니었나 싶다. 굵직한 문학 출판사들도 뛰어들 만큼 대세였던 동화는 2019년 오늘, 우습게도 몇몇 굵직한 문학 출판사의 동화를 빼고는 갈 길을 잃고 말았다.

## 다시 20년 전쯤,

어린이 전문 서점의 주인은 동화였다. 그림책은 영유아나 보는 책이었다. 그나마 있던 매대는 유럽과 미국, 일본 번역서들 차지였다. 1987년 세계 저작권 협약 체결국이 된 한국이었지만, 1993년 말 시공주니어, 1995년 비룡소가 미국과 유럽 그림책을 정식 수입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그림책을 베끼거나 해적판을 자유롭게 내던 참이었다. 그림책이라는 명칭도 '그림동화책'이었다. 다분히 동화의 성격이 짙었다. 2001년 웅진주니어가 수입 창작 그림책 시장에 가세했다. 보림출판사는 1994년부터 연필과 크레용이라는 그림책 창작 시리즈를 내며, 단행본 그림책 창작 시장을 열었다. 길벗어린이도 우리 민화를 따와 새로운 그림책 창작에 도전했다. 이 시도는 1997년, 이 시리즈 편집에 참여한 이호백 작가가 새로 만든 재미마주 출판사로 이어졌다. 초방책방은 2000년 초반부터 창작 그림책을 펴내는 한편, 우리나라에는 없던 창작 그림책 워크숍을 열어 신인 작가들을 발굴했다. 창작 그림책 태동기를 넘어 이제 막 출산기에 접어드는 시기였다. 나는 신경숙 대표의 그 열정에 빛을 졌다.

## 출발은 늦었지만, 그림책 시계는 빠르게 돌아왔다.

2004년, 일이 터졌다. 볼로냐 어린이 도서전에서 신동준의 《지하철은 달려온다》(초방책방, 2003)와 조호상 윤미숙의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웅진닷컴, 2003)가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고경숙의 《마법에 걸린 병》(재미마주)이 수상함으로써 그림책 1세대 출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한 번 트인 물꼬는 건잡을 수 없는 법.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한두 권씩 수상, 2015년 6개 전 부문 라가치상 수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까지 세웠다. 2013년부터 창작 그림책을 펴낸 신생 출판사 반달은 모두 4권(2015년 1권, 2018년 2권, 2019년 1권)의 라가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24권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도	구분		출판사	제목	글/그림
2004	픽션	우수상	웅진닷컴	팔죽할멈과 호랑이	조호상/윤미숙
	논픽션	우수상	초방책방	지하철은 달려온다	신동준
2006	픽션	우수상	재미마주	마법에 걸린 병	고경숙
2009	논픽션	우수상	여원미디어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	마중물/김윤주
2010	픽션	우수상	웅진싱크빅	석굴암	김미혜/최미란
2011	논픽션	대상	창비	마음의 책	김희경/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우수상	시공주니어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2012	픽션	우수상	상출판사	그리미의 하얀 캔버스	이현주
2013	픽션	대상	창비	눈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오페라 프리마	우수상	쌤북스	가시산	박선미
2014	뉴호라이즌	대상	컬처플랫폼	먼지 아이	정유미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쌤북스	털	김수영
2015	픽션	우수상	컬처플랫폼	나의 작은 인형상자	정유미
			반달	담	지경애
	논픽션	우수상	이야기꽃	만들레는 만들레	김장성/오현경
	뉴호라이즌	우수상	시공주니어	때루때루	박연철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현암사	위를 봐요!	정진호
복스앤씨즈	우수상	주니어김영사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안영은/김성희	
2017	픽션	우수상	이야기꽃	이빨 사냥꾼	조원희
2018	뉴호라이즌	대상	반달	나무, 춤춘다	배유정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반달	너는 누굴까	안효림
	특별상(예술)	우수상	비룡소	벽	정진호
2019	픽션	우수상	창비	사과나무발 달님	권정생/윤미숙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반달	그림자 하나	채승연

〈한국 라가치상 수상역사(2004~2019)〉

### 상을 받는 건 틀림없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편,

이 라가치상은 우리 그림책의 위상과 방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영유아나 보는 학습과 교양 중심의 초기 창작 방향에서 벗어나 순수 창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라가치상이 대량으로 쏟아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창작 그림책이 결가지에서 벗어나 본류로 진입했다는 얘기가 다름 아니다. 또 하나, 우리 창작 그림책은 2013년부터 상을 받을 때마다 한 차례도 빠짐없이 '오페라프리마' 부문을 수상했다. 신인상이다. 무슨 말일까? 그림책을 처음 낸 작가에게 주는 상. 한국에서 신인 작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다. 갑자기? 어쩌지?

### 그림책 창작 워크숍 전성시대,

우리나라 그림책 창작 시장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2005년부터 그림책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었다. '창작 그림책 작가 층이 너무 얇다.' 그래서 SI그림책학교 조선경 작가를 찾아가 그로부터 8년 동안 작가들과 숨을 나눴고, 2013년부터 〈그림책향〉이라는 워크숍을 열었다. 13권, 65권. 이 두 워크숍의 결과물이다. 2013년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던 그림책 창작 워크숍은 이제 10여 개에 이른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신인 홍수가 났다. 이곳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림책만 해도 한 해에 수십 권은 된다.

창작 워크숍이 많다는 것은 곧 창작 그림책 출판사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는 실험성 있는 작은 출판사는 물론 큰 출판사도 신인 작가들의 책을 앞다투어 낸다. 신인에 혈안이 된 느낌. 격세지감이다. 잘 나가는 작가 잡기에 붉은 눈을 껌뻑이던 큰 출판사를 익히 보아온 내게는. 부디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신인 작가의 뒤편 출판사에 건주어 적지 않기만을 못 출판사 대표에게 바란다.

### 창작 그림책 작가들이 있기 전,

시공주니어와 비룡소, 웅진주니어로 쏟아져 들어온 해외 그림책의 세례를 받은 세대들이 있었다. 아이들로 치면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고, 부모들로 치면 1960~70년대 생들이다. 이 부모들은 단행본 시장에 쏟아지는 그림책들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와 동화 읽는 어른 모임도 동화에서, 그림동화에서, 그림책으로 영역을 옮겨갔다. 사립 작은 도서관들의 약진도 이어졌다. 그림책 읽는 모임이 수없이 생겨났다. 라가치상이 뭔지도 모르던 독자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깔린 그림책에만 주는 칼데콧상과 함께 라가치상이 어린이계의 노벨상이라며 추켜세운다. 뽀꼬리를 좀 달자면, 사실 내 기준에서 진짜 노벨상은 7억 원의 상금이 걸린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이다. 노벨상처럼 이 상은 책이 아닌 작가에게 준다. 그림책 작가 중에는 손 탕이 이 상을 받았다.

### 30년으로 달려간다.

역사가 깊다고 수준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창작 그림책을 보면 분명 짧은 역사에 견주어 수준이 놀랍도록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림책 출간 종수와 향유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이었던 인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국제 도서전에서 상을 받고, 작가층이 늘었다고 해서 향유층이 늘는 것은 아닐 테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찍은 지 오래인 나라에서 그림책 시장이 커졌다는 건 그림책의 역사성과 함께 사회적, 내용의 다양성이 큰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 먼저 역사성.

30년이 되어 간다. 90년대 생이 30대가 되어가고, 80년대 생이 아이를 키운다.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보고 자란 세대와, 옛날과는 다른 창작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보는 세대가 한 시대에 존재한다. 90년대 이후 세대는 그림책을 보던 어릴 적 기억이, 아이만 보는 책이라는 이분법을 걸러낸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림책을 손에 쥐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다. 마치 어른이 되어서야 부모의 무게를 헤아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듯. 80년대 이후 세대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며 함께 배우고,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림책을 산다.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그렇다. 그들의 그림책 역사는 이제 곧 100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스스로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함께 본다. 웃고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춘다.

### 사회성.

이렇게 그림책을 향유한 이들이 많아지면 또 한 가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책을 만들지 않아도, 책을 짓지 않아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림책 전문가가 된다. 자신이 원래 하던 일과 그림책을 엮어 스스로 새로운 전문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림책을 나눈 경험을 책으로 엮는다면, 심리학이나 철학과 연결해 여러 그림책을 소개하는 책을 펴낸다. 이렇게 책을 펴내면 도서관, 학교, 기업체에서 강연을 요청한다. 자연스럽게 그림책 문화가 사회 속으로 스며든다.

책을 읽지 않는 현상도 그림책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림동화책은 읽는 책이었지만, 그림책은 읽지만 보는 책이고, 보지만 읽는 책이다. 이 순기능의 작용이 매우 술술 돌아간다. 짧기 때문에 즐리지도 않고, 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림책 속에 투영하는 일도 쉽다.

### 내용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은 사회성을 만들어 냈다. 그림책은 동화의 짜임새 있는 플롯에 비해 열린 장르다. 글이 많은 그림책도 있고, 적은 그림책도 있고, 아예 글이 없는 책도 있다. 장르 속에 또 수많은 장르가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아무리 쉬운 책도 어른 책이고, 어려운 책도 어린이 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림책 속에는 겨우 글과 그림이 들었을 뿐인데, 이 둘이 어울려 수많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니 아이와 청소년과 여자와 남자와 중성과 아주머니와 아저씨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향유할 수 있다. 향유. 누구나 그림책을 지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여 송정 그림책 마을 어른신들이 지은 그림책을 보면 너무너무 솔직담백해 가슴이 찡하다.

‘글이나 그림은 도시에서 공부하는 자식과 손주들에게나 해당되는 거라고 여겼던 어른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관에 모였다. 농사짓는 것보다 ‘월~씬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시작은 반이었다. 책이 나오자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마을이 바빠졌다. 그림책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로,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맑은 정화수가 되어 소박하고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서 웃다가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목구멍에 알 수 없는 아릿한 슬픔이 걸리기도 한다.’

### 오래 갈 것 같다.

30년 역사로 이렇게 넓고 깊게 자리하는 문화라면,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져도 생명력이 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림책 시장은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않는다. 끊임없이 세계의 문을 두드린다. 유럽은 자존심이 높지만 긴장하며 우리 작가와 그림책을 눈여겨본다. 일본은 정치의 후진성과 엮여 역사에 비해 뒤떨어진 지 십 년도 더 지난 듯하다. 중국도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상하이 도서전이 볼로냐 도서전과 손잡은 일은 예사롭지 않다. 베트남도 뭘 일인가 하고 눈을 비빌 것이다. 미국의 견고한 성도 무너질 테다. 그게 현상이다. 현상이 현재가 되게 하려면 나도 눈 부릅뜨고 허벅지 심줄을 당겨야 한다.

---

[빅데이터로 읽는 우리 시대 언어]  
**나는 어떤 맛집이 될 것인가?**

김정구(다음소프트)

2019.11

**[맛집의 명과 암]**

이른바 '먹방'이라 불리는 식(食) 중심 예능 프로그램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였다. 그때부터 '맛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급증하기 시작했고, 4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인기를 이어가는 스테디셀러 키워드다. 이제 자기만의 맛집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맛집 탐방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맛집만 찾아다니는 식도락 전문 모임(크루)까지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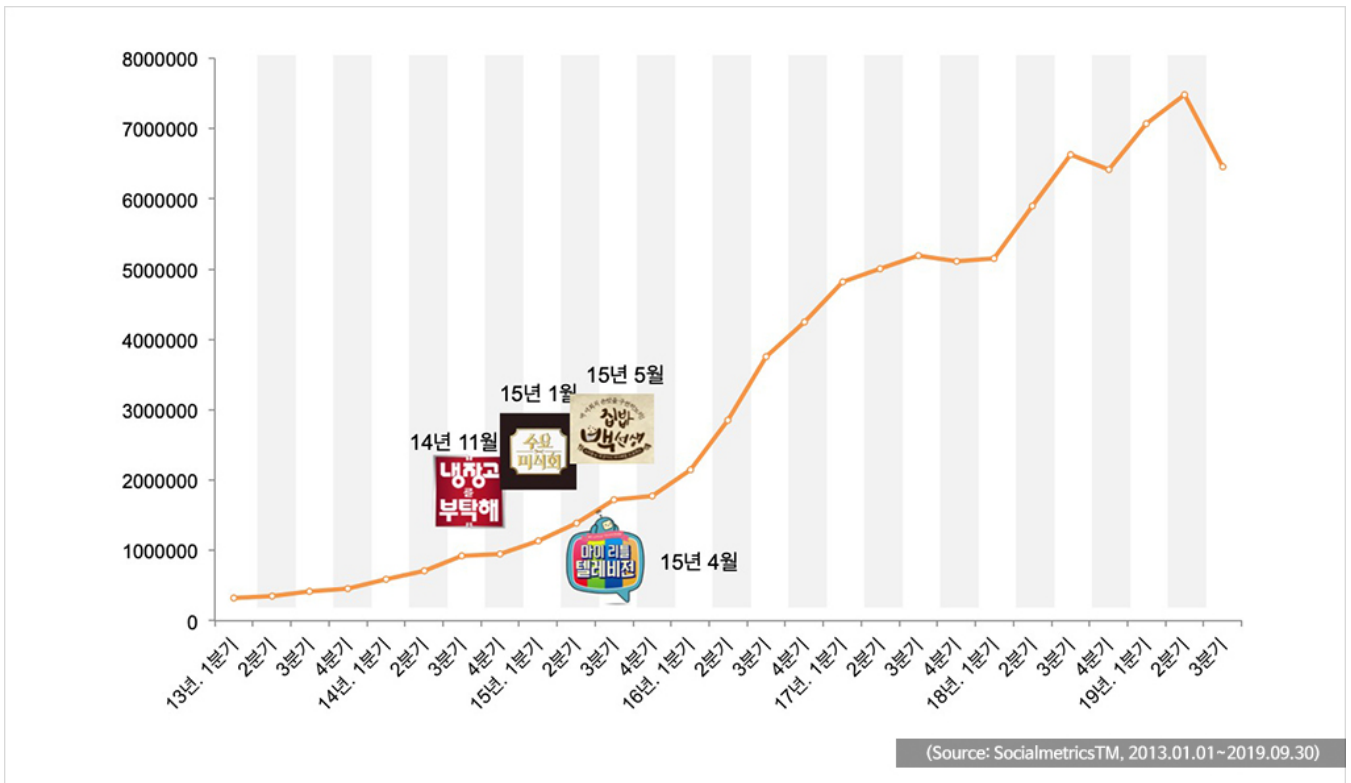


표1. '맛집' 언급 추이

하지만 맛집 검색 문화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른 산업과 유사하게 업주(혹은 회사)가 바이럴 마케팅 전문 업체에 돈을 써 SNS 상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글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해서 작성한 순수 맛집 정보는 그만큼 찾기 힘들어졌고, 검색 피로도도 함께 증가했다. 맛집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싶어도 무수한 홍보성 게시글을 마주해야 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지해 필터링을 해야만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방편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오래 못 간다.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맛집' 이야기가 점점 가격과 분위기보다는 맛 자체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소비자들은 진정성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갈수록 중시할 기세다.

“블로그 맛집을 보고 주소 찾아 네비 켜고 갔지만 10개중 1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비추천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온 어떤 요리연구가 한 분 역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거 맛집은 가끔적 안 가려 하는 1인 중 한 사람입니다.”

“을지로 쪽에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녔다면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곳 '통일집' 참고로 50년 이상 된 데다 간지가 아주 넘쳐흐르는 허름한 간판들. 이러한 오래된 감성들이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긴 하나 항상 자리가 없어서 웨이팅이 기본이라고 한다. 그래도 가격만큼의 고기 퀄리티는 받쳐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 [OO맛집의 등장]

지난 번 글에서 다루었던 검색어 '푸어'와 유사하게 '맛집'도 의미 변화를 겪고 있다. 본래 '맛집'이란 음식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가진 공간을 'OO맛집'이라 명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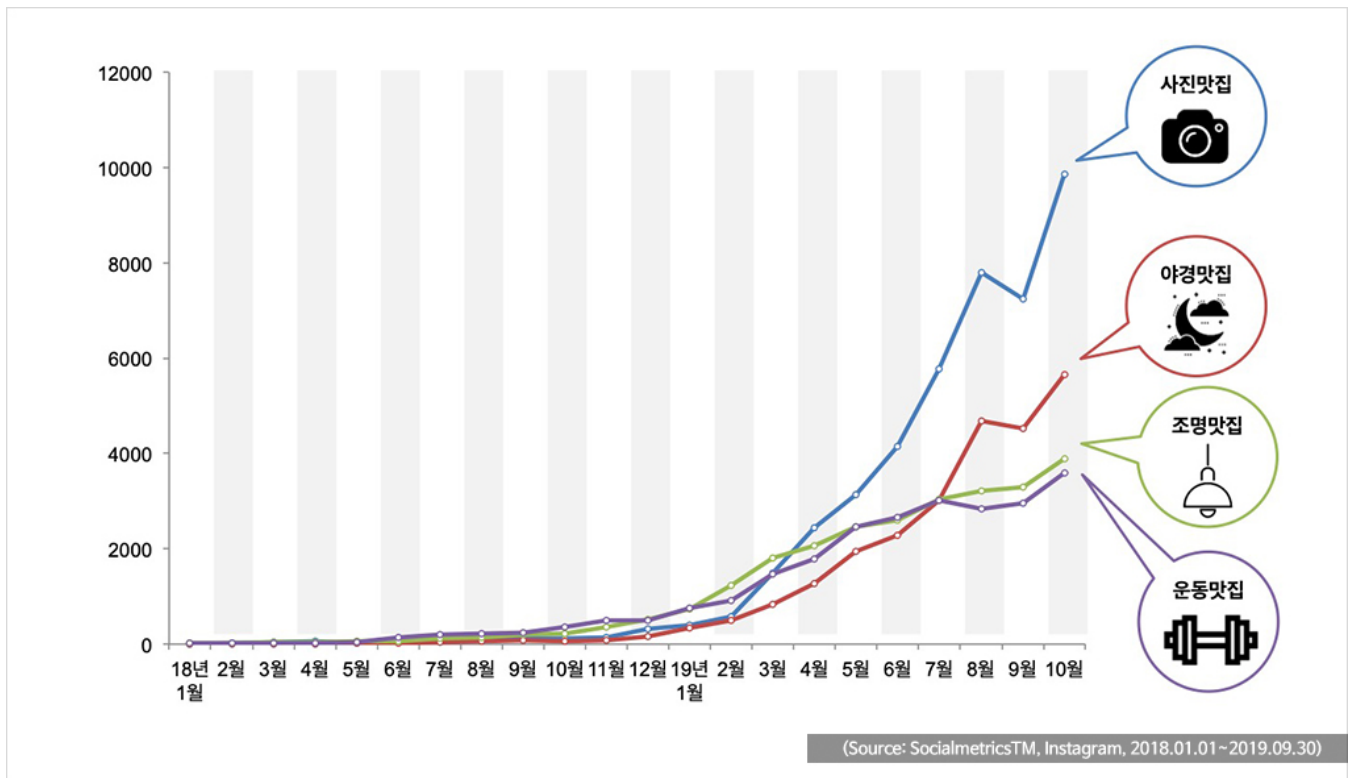


표2. 주요 'OO맛집' 언급 추이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을 때 분위기 있는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은 '사진맛집', 운동이 즐거운 곳은 '운동맛집'이다. 사진의 프레임을 채우는 조명, 햇살, 빛, 풍경, 컬러 등의 공간적 요소들에도 '맛집'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음악, 인테리어 같은 취향 요소를 두고도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진맛집 #젠틀몬스터펜디카페 #사진잘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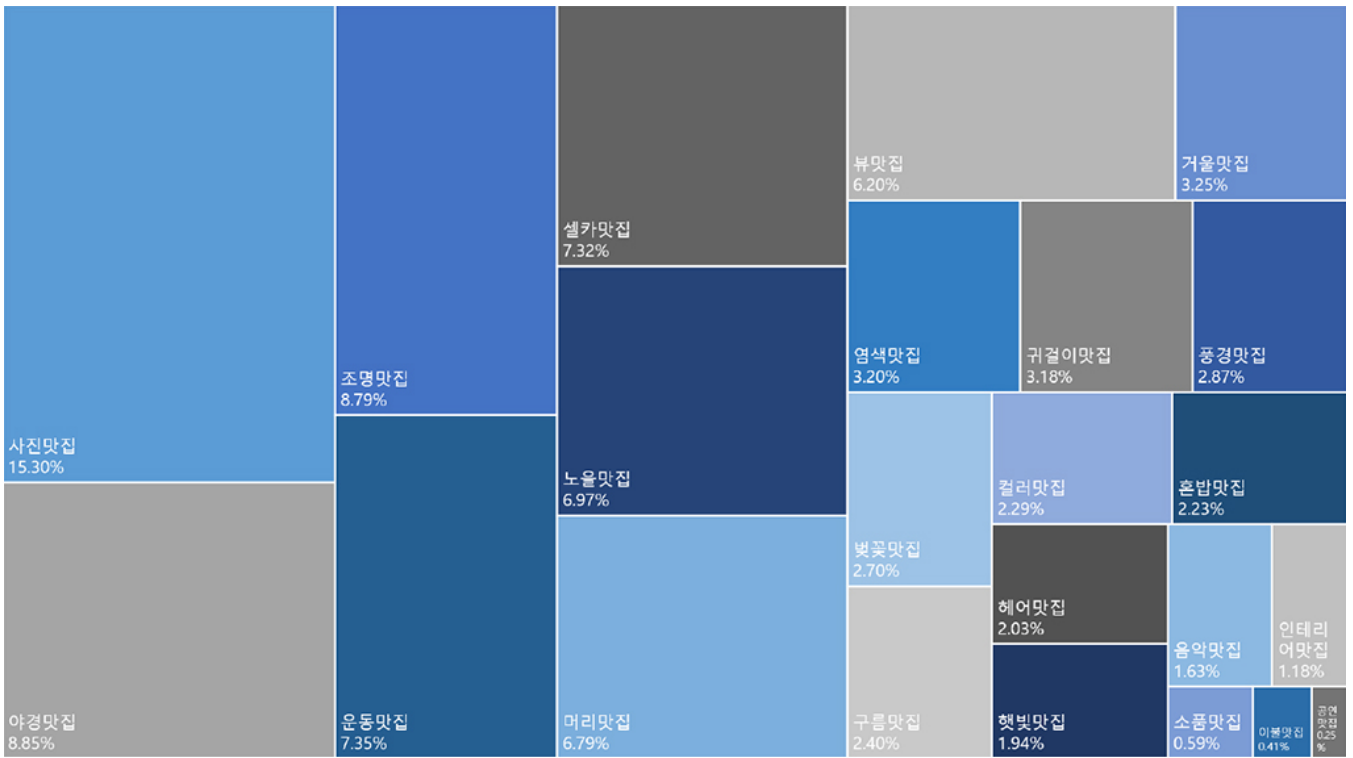
#거울맛집 #프리츠한센 #리빙디자인페어

#운동맛집 #헬스 #운동기구좋은

#이집 화장실 #조명맛집 14시간 비행 열심히 가 봐야쥬?

#햇빛맛집 #헤이리카페 #헤이리르시앙스 #엔틱카페

#책맛집 #그림책가게 #섬복스 #somebooks



(Source: SocialmetricsTM, Instagram, 2018.01.01~2019.09.30)

표3. 'OO맛집' 트리맵

그 결과 맛집과는 무관하게 여겨지던 다양한 영역에서 'OO맛집'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맛집', '야경맛집', '조명맛집'을 중심으로 취향, 풍경, 인테리어 등과 연관된 다양한 'OO맛집'으로 이야기된다. 1년 남짓한 기간에 'OO맛집'으로 명명된 신조어가 무려 20가지 이상 등장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신조어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십 건의 파생어를 남기며 생존하고 있는 키워드(언어)는 생각보다 매우 적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OO맛집'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 [굿즈 맛집이 된 메가박스]

브랜드보다는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된 'OO맛집'과 달리 스스로 'OO맛집'으로 등극한 브랜드도 존재한다. 메가박스가 그런 경우다. 전국 100개 점포에 686개 스크린을 가진 메가박스는 업계 1위인 CGV(156개 점포/1146개 스크린)와 2위 롯데시네마(120개 점포/860개 스크린)에 비해 점유율은 3위이지만, 자신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굿즈(goods)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전까지 메가박스가 품질 좋은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다 메가박스가 오리지널 티켓을 한정판으로 발매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메가박스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고, 팝콘도 먹는데, 사진으로 찍을 것은 다 똑같은 영수증뿐'이라는 아쉬움에 메가박스는 착안했던 것. 오리지널 티켓의 두꺼운 종이 값과 약간의 인쇄비만 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사진 찍기 좋은 콘텐츠(고퀄리티의 한정판 티켓)를 얻기 위해 기꺼이 메가박스를 찾았고, 인증까지 했다.

심지어 영화 값보다 비싼 가격에 오리지널 티켓이 중고로 거래되기도 한다. 얼마 전 개봉한 '겨울왕국2' 오리지널 티켓의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가 '(오리지널 티켓을 가질 수 있는) 한국인이 너무 부럽다'고 언급했고, 해당 트윗은 약 13만 회 이상의 리트윗과 35만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한국인 너무 부럽다"는 말과 함께 해외서 '13만 리트윗' 된 '겨울왕국2' 오리지널 티켓 사진



(Source: Insight.co.kr)



(Source: 메가박스)

그림1. 메가박스 오리지널 티켓

물론 메가박스 오리지널 티켓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타 영화관의 VIP 등급을 버리고 옮겨올 정도는 아니다. 메가박스의 점유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CGV를 역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 관점에서 봤을 때 메가박스는 오리지널 티켓의 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굿즈맛집'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메가박스 오리지널 티켓에 대한 반응〉

"메박... 왜케 열일해요...? 타 영화관 VIP 버리고 넘어왔잖아요. 앞으로 뼈를 문겠어요 ♥"

"메박 미쳤네요. 이걸 소장각!"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주세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에는 'OO맛집' 범주의 확장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이제는 헤어도 맛집이 있고, 책도 맛집이 있다. 과연 나는, 혹은 내 브랜드(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맛집에 속할까? 하루 정도는 '사진맛집'을 찾아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나만의 엣지(edge)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연말이어도 좋겠다.

[서점다이어리 4]

## 우분투북스, 3년의 시간이 남긴 것들

이용주(우분투북스 서점 대표)

2019.11

초록색 책방, 노란 불빛의 책방, 먹거리를 파는 서점, 음식과 정원에 관한 책이 많은 책방...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분투북스라는 책방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책방의 컬러와 분위기를 떠올리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책방에서 발견한 책의 인상으로 책방을 기억에 담는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는 주인장과 나누었던 대화로 책방의 시간을 기억하며, 어떤 독자는 책방에서 머물며 책을 읽었던 시간과 그때 흘러나온 음악으로 책방의 인상을 간직하기도 한다. 이처럼 책방은 사람들이 저마다 느낀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되어 간다.



우분투북스 전경(왼쪽), 우분투북스 테마서가(오른쪽)



## 우분투북스, 3년의 시간을 넘다

2016년 8월 중순,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술집과 음식점이 즐비한 골목에 책방 하나 열었다. 초록색 외관에 간판의 영문 로고만 하얀 색인 책방은 돌출간판 하나 없이 심플한 모습이다. 그렇게 시작한 책방은 어느덧 3년을 넘겼고, 그 사이 책방 맞은편의 중국음식점은 지난달 네 번째 간판을 바꿔달았다.

3년, 흔히들 소규모 자영업이 성공적인(?) 안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3년을 넘긴 것이 곧 성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 시간을 버텨내고 나니 책방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간으로서 인지도가 생겼고, 그런 만큼 자주 찾아주는 단골도 늘어났으며, 몇몇 분들은 공간에 애정을 가지고 뭔가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도 한다.

예를 들면 책방 앞에 화단을 만들고 가구어 주시는 분 덕분에 책방은 계절마다 꽃과 풀이 옷을 갈아입으며 싱그러움을 유지한 채 손님을 맞이한다. 그런가 하면 책방에서 내어준 차 한 잔, 책방에서 들여놓은 음악,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에 감동하여 단골이 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책방 외관을 손수 그림으로 그려 액자에 담아 선물해 주시는 분도 계신다.

그런 분들의 마음과 응원이 오늘의 책방을 만들어오고 3년을 넘긴 지금도 책방을 지키게 하는 힘이다. 3년을 돌아보니 책방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시대에 책을 팔아 책방을 유지한 일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고, 책방을 사랑해주고 책방에 소중한 마음과 솜씨를 나누어 주신 분들이 계시니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얻은 셈. 그러니 3년 이후는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 책방의 일, 업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

책방을 시작한 뒤 한동안 많은 분들이 책방에 오셔서 훈수(?)를 두셨다. 커피나 음료를 팔아야 한다거나 책방이 눈에 잘 안 들어오니 돌출 간판을 달라거나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등 책방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난 충고들이다. 지금이야 그런 훈수를 두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돌이켜보면 책방은 책만 팔아서 먹고살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다.

그 씁쓸한 태생적 한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약간의 오기(?) 같은 것이 발동했다. 책방이 책으로 먹고살 수도 있음을 증명해보리라는 생각 말이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책방들은 나름의 주제와 개성이 뚜렷한 공간들이 많다. 음식점으로 치면 모든 메뉴가 다 있는 종합 분식점이 아니라 한두 가지 메뉴만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인 셈이다. 전문점의 생명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손익을 맞추기 위해 다른 메뉴를 들이는 순간 전문점의 개성은 사라진다.

우분투북스는 '자연, 건강, 음식을 주제로 한 책방'이다. 책방에 갖추어 둔 책의 80% 정도가 그런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우연히 책방에 들어와 책장을 둘러본 분들도 "여기는 음식 책이나 정원, 나무에 관한 책이 많네요. "하고 느낄 정도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사람들은 우분투북스를 그런 책방으로 기억하고 일부러 찾아온다. 그렇게 찾아와서 책장을 둘러보며 대형서점에서는 보지 못하던 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한다. 독자가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책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은 그 책을 고심해서 들여놓은 책방지기의 기쁨이기도 하다.

매일 책방에 들일 책을 고르는 기준은 자연, 건강, 음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적합한가 아닌가가 최우선이다. 그런 주제에 맞다면 그림책부터 인문학, 소설, 사회학은 물론 과학 분야까지 모두 책방에 들여놓을 수 있다. 책방지기가 매일 책방에서 하는 일의 80%는 책을 고르는 일이다. 새로 나온 책을 고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종종 이미 나온 책들 중에 잘 모르고 있던 책들을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검토하고 고르는 일을 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책을 고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 자주 오시는 단골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책인가 하는 기준이 추가된 것. 즉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 맞춘 도서의 선정과 선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누군가 '좋은 책방의 기준은 좋은 손님'이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책은 너무나 많고 아무리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도 책의 출간 여부를 잘 모르는 책은 생גיע 마련이다. 이럴 때 책방의 독자 중에 특정 분야의 책 가운데 책방지기가 잘 몰랐던 것을 소개해 준다면 책방의 책장은 더욱 풍성해진다.



북큐레이션 강의(왼쪽), 우분투북스 내부 책장(오른쪽)

## 공간의 힘, 이야기를 담다

책방을 열고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나씩 해왔다. 매년 한 차례 해외의 서점을 탐방하며 안목을 넓히는 일과 그렇게 해외 서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매년 새로운 서비스를 한 가지씩 늘려가는 것이다.

첫해에는 팜파티, 직거래 장터 등 농촌과 교류를 통해 책방 손님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알리는 일을 했다. 제철음식을 생산하는 농가를 소개하고 농산물을 나누는 일은 책방을 시작하며 생각한 '건강한 책과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다'는 콘셉트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그 뒤 몇몇 2차 가공 농산물은 책방에서 판매도 했고, 그 중 작두콩 차는 환절기만 되면 많은 손님이 찾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농가와와 교류나 직거래 장터는 지금도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한다.

둘째 해에는 도서 구독 서비스인 <책 정기구독>을 선보였다. <책 정기구독>은 매월 3~5만원 내외의 책을 책방지기가 직접 골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매달 책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30명 내외로 인원은 제한된다.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대기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신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집에서 받아본다는 편리함과 편지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우분투북스 <책 정기구독>의 매력이다.

셋째 해에는 <블라인드 데이트북>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권 정도로 시작한 서비스는 지금은 월 30여 권으로 늘었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해 약간의 힌트만 제공한 상태로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제목을 모르고 사야 한다는 부담은 독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작용해 책을 구매하는 요인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책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이 '선물 책'으로 구매하기도 하는 등 관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다.



책 정기구독 서비스(왼쪽), 블라인드 데이트북(오른쪽)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는 의도된 기획이기보다는 외국의 서점을 탐방하면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을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책방을 준비하던 해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일본과 유럽, 미국의 책방을 탐방했다. 책방이 어렵다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들은 조금 나은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책방을 운영하는가 등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본 것. 그렇게 보고 확인한 것을 책방에서 직접 실험적으로 도입해본 것이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이었다. 책방을 하는 많은 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리가 생길 때마다 나누다 보니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책방도 늘었다.

책방의 일은 책을 고르고 진열하며 판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책방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걸 전제로 한다. 책방을 찾아올 수 없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책방이 찾아가는 것이다. <책 정기구독>은 바로 책방이 독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인 셈이다.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활동도 책방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책방의 서비스를 맞보고 싶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하나인 셈이다.

## 외부 활동, 경험을 나누다

책방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가운데 하나가 외부 강연이다. 책을 고르고, 진열하고 특정한 주제로 서가를 꾸미거나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책 추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을 강의를 통해 나누는 일은 도서관재단에서 일할 당시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다. 지금도 한 달에 적게는 2~3회에서 많게는 5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주로 서점과 도서관, 학교나 기업 및 관련 단체나 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북 큐레이션>을 주제로 한 강의는 책방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물론 공공 도서관 사서, 학교 도서관의 사서 교사 분들이 수강 대상이다. 책은 많고 독자들이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책을 독자들에게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책방을 열기 전 후로 매년 한 차례씩 다녀온 해외 서점 및 도서관 탐방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도 강의를 통해 소개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오랜 기간 출판, 잡지, 도서관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책방을 시작하고 책방의 주제와 이슈에 맞는 책을 북 큐레이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외부 강연 요청을 수락하고 강연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렇게 책과 관련한 공간들이 다양해진 독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공간을 이용하여 공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때로는 작은 책방을 하나 운영하면서 참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진 경험을 나누어 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활동을 포함한 대전의 책방들과 함께 연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일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가는 것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북스 책방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책방을 시작하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생각이다. 그 사이 전국에 동네책방들도 두 배 이상 늘어나 500개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로운 책방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또 문을 연다. 이제 그렇게 규모가 늘어난 책방들이 동네 구석구석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년의 시간으로 안주할 수 없는 이유다. 3년을 건너온 경험과 책방 우분투북스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응원의 힘으로 다시 3년, 다시 5년을 향해 긴 호흡으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자 한다. 우분투!!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동네책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국 80여 개 동네책방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네책방'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단행본 도서를 주로 취급하는 작은 서점입니다. 여기서 '작은'의 의미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 자본과 물질만능의 사회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천천히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 **이용주(우분투북스 서점 대표)**

우분투북스 책방지기로 일하며 북큐레이션연구소 소장으로 도서관, 서점 및 학교 등에서 북큐레이션 관련 강의를 한다.

[서점다이어리 5]

##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며

이진(제주 노란우산 대표)

2019.11



그림책방 노란우산 - 본점 외관

6년 전 도시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다. 7살, 4살 남자아이 둘을 두고 남편은 작은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며 밤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고,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느라 쉴 틈도 정신도 없이 하루를 나야 했다. 분명 들어서 버는데도 도시 생활은 점점 더 쪼들려갔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어도 그새 소비가 늘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아토피와 만성비염으로 약을 수년간 복용해 오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함께 마음껏 뿔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 집에서든 까치발을 하고 다녀야 하고, 뛰지도 구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웠다.

특히 도시의 초등학교 소식은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좁은 교실 안에서 뛰지도 못하고, 운동장에서 맘껏 놀지도 못하며, 심지어 쉬는 시간 화장실도 허락받고 다녀와야 하고, 하교할 때까지는 자기 책상 앞, 뒤, 옆 친구들과하고만 놀아야 한다는 말에 우리 부부는 작은 시골 학교로의 전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시골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골 탐방에 나섰다.

도시 근처 시골 마을과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시골로 가면 일자리가 없었다. 농사를 짓고 살 수도 없는 데다 우리에게 그만한 땅도 재력도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카페 운영과 병원 일인데 이걸 도시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나? 그럴 경우 누구라도 한 사람이 도시로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해야 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카페를 할 수 있는 시골이 어디 있지?” 고민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제주였다.

제주는 어디를 가도 마을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작고 아름다운 학교들이 있었다. 마음껏 뿔 수 있는 천연 잔디 운동장도 있었고, 심지어 바다가 보이는 학교들도 있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숲이 있고 바다가 있었다. 우리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서둘러 오느라 도시의 카페를 정리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렸다. 그때도 이미 제주도 이주 붐이 들썩일 때였다. 집도 카페를 할 만한 장소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제주 서남쪽 중산간지역 작은 마을에 카페와 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집이 딸린 건물을 임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작정 시골에 카페를 열었다. 바닷가도 아니고 도시나 읍내 변화가도 아닌 시골 작은 마을 길가에 로스터리 카페를 열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와서는 정신없는 사람들이라 했다. 장사는 되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묻는가 하면, 그냥 구멍가게를 해라, 김밥이랑 어묵을 팔아라 등등 격정 반 타박 반을 했다. 더러는 딸감을 주거나, 꿀을 따서 가져다주기도 했다.

장사가 잘 되진 않았다. 그렇지만 도시에서보다 소비가 확 줄어 생활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아이들과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카페를 일찍 닫고 아이들과 숲으로 바다로 갈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바다에서 보말이며 게를 잡으며 놀고, 숲에서 나무도 타며 열매도 줌고 맘껏 뛰놀 수 있었다. 어느새 아이들이 수년간 앓아온 아토피와 만성비염마저 말끔히 없어졌다. 아이가 자려고 누워서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여기 제주 와서 너무 좋아. 우리 여기 계속 살 거지?”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우리가 애쓰는 걸 아이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참 감사했다.

문제는 카페였다. 수익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중산간마을은 관광지도 아닌 곳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단골손님이 지나가는 말로 “여기에 서점하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서점 열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카페 안에 작은 책방을 넣어 보자 싶어 준비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서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물어볼 데도 없었다. 책 유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도와 줄 사람을 물색했다. 대전에 살 때 둘째아이가 북스타트를 하면서 만난 그곳 계몽문고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고 무작정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계몽문고는 우리에게 꿈같은 공간이었다. 책임어주는 서점으로도 유명한 곳이어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가서 맘껏 책을 골라 읽고 사왔다.

이동선 대표님은 서점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주시며 “내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다 빚이에요.(서점을 시작하고 나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서점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동네마다 서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려서 책도 보고, 동네 사랑방과 같은 그런 책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해봐요.” 그러면서 제주에 사는 지인을 소개해 주셨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의 관장을 지낸 허순영 관장님이었다.

허순영 관장님을 만나 어떤 서점을 할지 의논했다. 무슨 책을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그림책이 좋다고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 있는 책이면 모두 좋았다. 그림 책을 보면 행복해진다. 그림책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림을 보면서 그 세상에 풍당 빠지는 느낌이 든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누구에게든 잘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예술 그림책방을 꿈꾸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그림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림책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런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나 제주에서는 더욱 희박한 일이기도 했다. 때마침 박연철 작가가 진행하는 그림책 창작과정인 ‘더북’ 수업이 제주에 개설되었다.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림책을 더 잘 알 수 있겠다 싶어 수강까지 하게 되었다. 16개월 동안 창작 수업을 통해 그림책 한 권을 만들어가며 그림책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그림책에 대한 안목도 갖게 되었다. 덤으로 더미북을 만들어 출판사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그림책 출판 계약까지 하게 되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림책방 노란우산 - 본점 스케치

또한 그림책테라피연구소 원장 황진희 선생님과 함께 일본 그림책 투어를 다녀온 뒤에는 시골 작은 책방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시골에서 작은 책방을 열어도 될까 싶었으나 카페와 책방은 참으로 찰떡궁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일본만 해도 그림책 박물관, 그림책 미술관, 그림책 마을, 극장, 서점이 도시에 있지만 시골마을 한적한 숲에 있는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안에는 모두 작지만 북삼과 카페가 함께 있었다. 전시작품을 보고, 책을 둘러보고 차를 마시며 그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보며 카페 안에 책방을 넣는 게 가능해 보였다.

여행에서 보고 온 것을 토대로 카페 안에 서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림책에 딱 맞는 책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남편이 예전에 취미로 배웠던 목공을 살려 우리만의 서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설피고 조잡하지만 우리가 그림책을 어떻게 비치할지 고민하며 만든 서가는 그림책을 놓는 순간 아주 멋진 컬렉션이 되었다.



그림책방 노란우산 - 본점 내부

책방을 열고나서 함께 그림책여행을 다녀왔던 선생님들의 입소문에서 시작해서 몇몇 그림책 작가 강연까지 열게 되면서 작은 시골 책방 카페에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게 되었다. 참으로 '그림책의 힘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에서 입으로 제주 그림책방이 소개가 되니 이제는 제주에 여행을 오면 한 번쯤 들르는 책방이 되었다.

더불어 그림책 심리학과 그림책 테라피에도 관심이 늘면서 그림책방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다. 그림책을 좋아해서 읽고, 더 나아가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훌륭한 자가 치유인 것 같다. 대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그림책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하나둘 알아가면서 하나뿐인 나, 남들이 모르는 나를 찾아가는 모임을 책방을 열기 전부터 시작했다. 예전에 정신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상처를 아무렇게나 덮어 두고 사는지 알았다. 솔직히 나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하겠는가. 그림은 긴 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을 한 장면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보여주기도 한다.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 또한 그림 속 정서는 글보다 빠르게 직관적으로 마음에 전달된다.

5년 전 시작한 엄마들 그림책 읽기 모임인 '그림책, 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모임은 책방의 큰 힘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책방의 정체성과 가치가 세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우리 책방에는 아이들보다 어른 고객이 훨씬 많다. 수업이나 강연 행사도 어른을 위한 것이 많다. 엄마가 바뀌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기에 우선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교육이랄 것도 없이 엄마들이 그림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엄마들에게 주로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읽어주기를 권한다. 그림책은 남이 읽어주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엄마들 모임이 생기고 나니 다른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는 밀줄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빠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었다. 독서평론가이자 한국 도서관친구들 대표인 여희숙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서울에서 내려와 직접 독서 모임을 이끈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엄마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엄마들 모임까지 생겼고, 십대 밀줄독서모임도 생겨났다. 밀줄독서모임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발견에 눈 뜨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제, 환경 이야기, 역사와 나라 사랑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씩 실천해 보고, 자원봉사도 하며, 혼자서 힘들었던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소통과 연결의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독서 모임을 하는 엄마들 몇몇이 모여 바느질 동아리도 만들었다. 지역의 제로웨이스트 리빙랩인 지구별가게와도 연계해 소창으로 다회용 휴지나 손수건 행주 등의 보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제 소분샵 같은 벌크샵도 책방 한 칸에 두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강연과 행사도 열어 환경 문제와 제주사랑 나아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책읽기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주 평범하고 비전문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림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의식을 바꾸는 책을 읽고 나누며 실천할 것들을 찾아 함께 강의도 들으며,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이런 일들을 다 가능하게 했다.

제주 사람들의 거리감은 다른 지방과 다르다. 살면서 경험하는 공간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30~40분 거리만 돼도 굉장히 멀게 느낀다. 그래서 올해 1월 제주 시내와 가까운 곳에 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 2호점인 광령점을 열었다. 본점인 안덕 서광점은 구옥을 고친 작은 공간이어서 여러 모로 아쉬움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으면서 좀 더 넓은 곳에 2호점을 열면서 이전부터 꿈꿔온 작은 전시 공간과 강연 시설까지 갖췄다. 문을 열고 1년 동안 그림책작가 5명의 원화전을 했고 여러 작가들의 강연과 제로웨이스트 강연, 견학팀들의 행사를 했으며 지역의 도서문화행사 자문위원과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림책방 노란우산 - 광령점 스케치



그림책방 노란우산 - 광령점 내부

요즘은 책방지기들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 특히 제주에 200개가 넘는 작은 책방들이 생기면서 책방의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책방지기들의 강연을 의뢰하는 곳도 많아졌다. 제주 생활은 그리 낭만적이거나 여유롭지 않다. 제주에 올 때만 해도 자연에 묻혀 오름과 숲, 바다로 다닐 줄만 알았다. 웬걸, 책방과 카페를 하면서는 한곳에 메이는 삶의 연속이었다. 우리 책방은 정기 휴일인 일요일에만 쉰다. 정말 성실하게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런데도 방문했는데 닫혀 있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혹시 언제 방문했는지 물어 보면 일요일이다.



책방이 일요일에 왜 문을 닫는지 따지듯 묻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시골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제주가 관광지라 여행 와서 들르는 곳이다 보니 혹시 애써 책방을 찾아온 분이 헛걸음칠까 신경 쓰인다. 그래서 가끔 연락이 오면 휴일에도 문을 열어드렸다. 제주에서 책방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분 중에 단기 방학하듯 자주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장사는 신뢰와 성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기 휴일 외에는 닫은 적이 없었다. 한번은 3년째 명절에도 고향에 못 가고 휴가도 못 간 걸 안타깝게 여긴 한 작가님이 일주일간 책방을 봐주어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약간의 여유와 융통성이 생겼나보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임시휴일을 공지하고 하루 이틀 책방을 비우기도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문을 닫거나 휴가를 가지 않는다. 책방은 정말로 책만 팔아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여러 강연과 행사를 진행하며 모객을 했을 때 수익이 조금 난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책방들이 문을 닫거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다. 우리 그나마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유지가 가능하다.



그림책방 노란우산 - 본점 간판

현재 제주도 책방 200여 곳 중에서 15%이내 정도만 정상 운영되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무인책방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도 정말 자주 폐업을 하고 그냥 하던 대로 병원에 다시 취업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땐 정해진 휴일과 휴가가 있기에 그냥 쉴 수 있었는데 책방을 하면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어려워졌다.

가끔 작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은 언제 쉬어요?”라고 물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왜 그럴까? 우리 사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면 또 힘을 내서 책방을 열고 꾸려간다.

제주에서 책방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술그림책전문서점이라는 특성화된 책방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마저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읽고, 나를 읽고 또 사람을 읽어주는 책방이고 싶다.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의 연결고리가 되는 곳이 책방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책방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림책 읽어주는 그림책방 노란우산이고 싶다.



그림책방 노란우산 - 본점 내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동네책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국 80여 개 동네책방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네책방'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단행본 도서를 주로 취급하는 작은 서점입니다. 여기서 '작은'의 의미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 자본과 물질만능의 사회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천천히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빅데이터로 읽는 우리 시대 언어]

# 라이프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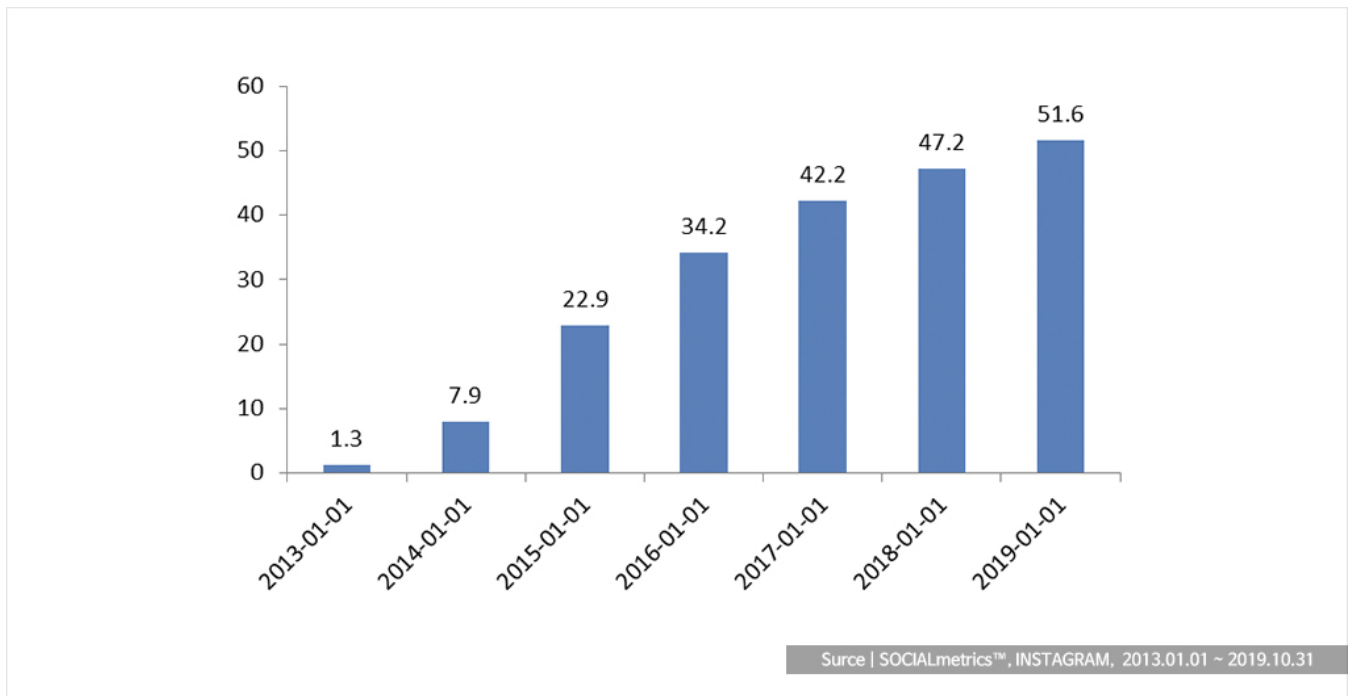
정유라(다음소프트 대리)

2019.11

## [라이프스타일이란 용어의 대중화 : 키포크와 초타야의 등장]

요즘 주요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라이프스타일'이다. 누구나 들어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생활양식'쯤 되겠지만 완벽하게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커져왔다. 2019년 10월 현재 그 관심도는 2014년에 비해 일곱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점에 가도, 쇼핑몰에 가도,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도 하루 몇 번씩 이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Data 1 :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10만건당 언급량 월별추이)

'라이프스타일'이란 단어의 언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2015년이다. 2014년 국내에 출간된 두 가지 서적이 이 개념과 용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하나는 마스다 무네아키의 『라이프스타일을 팔아라』이고, 다른 하나는 <키포크(KINFOLK)>의 한국어판 1호다.

『라이프스타일을 팔아라』에서 그 개념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은 마케팅 서적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들이 저마다 ‘타겟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 커머스 콘텐츠의 확장이 가속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방향과 고민이 깊어지던 때에 마스다 무네 아키가 선보인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가능성인 츠타야의 다이칸야마 T-site는 모두가 따라가야 할 성지로 여겨졌다. 츠타야의 성장을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대형 유통업계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란 개념을 재고했다. 이때부터 한국에는 T-site에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한 ‘라이프스타일숍’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같은 해 ‘평범한 일상의 소박한 삶’,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이라는 소개와 함께 국내에 출시된 <킨포크 1호>는 출간 즉시 모든 카페의 테이블 위에, 감성적인 인스타그램 사진의 한 컷 속에 놓이게 되었다. 키포크는 표지만으로도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라이프스타일이란 단어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는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킨포크라이프스타일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후 라이프스타일 앞에 붙은 최초의 고유명사가 ‘킨포크’라는 점이다. #킨포크라이프스타일이란 해시태그는 소박하지만 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호로 통용되고 있다.

츠타야가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연결했다면, 키포크는 라이프스타일과 여유를 이었다. 이 두 콘텐츠를 통해 대중화된 개념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한국화했다. 이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숍’과 ‘감성카페’ 외에도 거의 모든 일상에서 이런 계열의 단어들을 만날 수 있다.

## [한국판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나혼자 산다와 브이로그]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 플랫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인스타그램에 이어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가깝게 언급되는 콘텐츠는 ‘예능’이며, 관심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것 중 하나는 브이로그(Vlog)로 대표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대표 라이프스타일 예능으로 언급되는 것은 ‘나혼자산다’이다. ‘나혼자산다’는 미션을 수행하던 야외 버라이어티에서 사생활 공개라는 관찰 예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다. 이를 기점으로 방송사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편성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예능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나혼자산다’ 이전의 예능 속 출연진들은 철저히 연기자로서 ‘업무중’임을 보여줬다면,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업무 외 시간 동안 그들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즉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아침식사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집은 어떻게 꾸몄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취미생활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나혼자산다’가 한국화한 라이프스타일의 표현 방식이며, 시청자는 이러한 사생활 공개 형태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있다. 브이로그가 대표적인 예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브이로그’는 개인의 일상과 사생활을 기록하고 보여주는데, 마치 ‘나혼자산다’의 한 장면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브이로그 콘텐츠로는 식사 준비, 출근 준비, 퇴근 후 취미, 심지어 청소 방법까지 철저히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했던 일상의 장면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본 적 없는 유튜브가 출근을 하고 장을 보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며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실제 친구보다 더 자세히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나혼자산다’와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의 인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생활이 정체성이 되는 시대’라는 점이다. 그가 하는 일이나 명함의 타이틀이 개인의 정체성을 보장했던 ‘성실한 일꾼’이 주목받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사생활을 포기한 채 커리어상으로 초고속 승진을 이룬 최연소 타이틀의 ○○보다, 매력적인 사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XX를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 [라이프스타일의 확장 : 물질소비에서 경험소비로, 의식주에서 취미로]

그렇다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표현과 감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순위	Jan-16		Jan-17		Jan-18		Jan-19	
	search_keyword	빈도	search_keyword	빈도	search_keyword	빈도	search_keyword	빈도
1	패션피플	1195	행복	2234	사랑	2839	여유	1197
2	여유	952	여유	1225	행복	1170	최적	747
3	행복	389	감각적	960	패션피플	771	행복	726
4	합리적	239	패션피플	510	여유	652	패션피플	491
5	사랑	205	럭셔리	411	즐거움	377	즐거움	271
6	럭셔리	195	즐거움	364	아름다움	364	사랑	250
7	스타일리쉬	194	실용적	257	감각적	357	매력적	223
8	신개념	194	스타일리쉬	221	스타일리쉬	346	감각적	213
9	아름다움	192	사랑	221	합리적	303	안심	162
10	매력적	182	럭셔리	214	매력적	247	독창적	148
11	감각적	131	매력적	207	열정	242	아름다움	143
12	즐거움	126	아름다움	172	럭셔리	241	독보적	142
13	웰빙	94	기쁨	161	트렌디	198	스타일리쉬	125
14	기쁨	93	열정	152	감성적	183	이국적	108
15	귀여움	63	웰빙	147	진정성	114	럭셔리	105

Source | SOCIALmetrics™, INSTAGRAM, 2017.01.01 ~ 2019.10.31

Data2 : 라이프스타일 연관 감성 키워드 연간 변화 top 15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연관 감성어는 '여유로움'과 '행복'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선언과 같다. 그런 중에도 행복과 여유를 주축으로 한 럭셔리하고 스타일리쉬한 라이프스타일에서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라이프스타일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독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요소는 '라이프스타일' 연관 관심사 키워드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순위	Jan-16		Jan-17		Jan-18		Jan-19	
	label	빈도	label	빈도	label	빈도	label	빈도
1	인테리어	12726	일상	34527	일상	36552	일상	17022
2	일상	11425	인테리어	26287	인테리어	22448	인테리어	15281
3	패션	7602	패션	15611	패션	13626	패션	10409
4	집스타그램	3596	홈스타그램	8115	여행	11024	취미	4646
5	홈스타그램	3518	홈스타일링	5093	취미	5481	홈스타그램	3483
6	일상스타그램	1843	집스타그램	5062	홈스타일링	4826	운동	3468
7	데일리그램	1449	여행	4498	홈스타그램	4682	집스타그램	3053
8	셀프인테리어	1309	일상스타그램	3491	집스타그램	4600	여행	2583
9	패션스타그램	1170	취미	2625	일상스타그램	2443	홈스타일링	2489
10	운동	1045	생활	2603	소확행	2433	살림	2047
11	홈스타일링	957	쇼핑	2492	살림	1951	셀프인테리어	1240
12	여행	782	셀프인테리어	2339	셀프인테리어	1924	스포츠	1188
13	살림	717	카페스타그램	1431	패션스타그램	1227	원데이클래스	1187
14	문화생활	616	패션스타그램	1206	운동	1195	휴식	1128
15	다이어트	593	하우스그램	1123	식사	1076	워라밸	1009

Source | SOCIALmetrics™, INSTAGRAM, 2017.01.01 ~ 2019.10.31

Data 3 : 라이프스타일 연관 관심사 키워드 연간 변화 top 15

'스타일리쉬한 라이프스타일'에서는 '패션' '인테리어'와 같은 의식주의 소비가 중요했다면, '독창적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취미'와 '여가활동'이 중요해진다. 라이프스타일의 범위가 의식주에서 취미와 휴식으로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 집의 모습을 넘어 나의 '취미'와 '휴식의 장면'이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규정짓는다. 인스타그램 콘텐츠로는 #먹방에서 #취미스타그램으로, #맛집투어에서 #원데이클래스로 옮겨간 양상이기도 하다.

우리의 사생활에서 '취미'와 '휴식'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작은 원데이클래스 수준의 일회성 경험일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사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일이 아닌 취미, 야근이 아닌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취미와 휴식에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사생활에 주목해야 한다.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화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물질적 결핍보다 취향과 취미의 빈곤함이 더 고민거리인 시대다. 누구나 '라이프'는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정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자신을 돌아보고 그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좋아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천편일률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선명하고 반짝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은 이와 같이 소비가 아닌 경험을 통해 견고해질 것이다. 독창적인 삶의 방식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삶과 행복의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많은 취미부자, 더 많은 취향부자들이 자신의 취미와 취향을 설파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존재하는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초타야스타일, 키포크스타일이 아닌 ○○○스타일의 고유명사를 스스로 만들고 빛낼 수 있도록 개인의 매력적인 사생활이 존중받고 주목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정유라(다음소프트 대리)**

다음소프트 연구원. 학사과정으로 경영학과 불문학을 전공했고, 석사과정으로 문화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쉽게 감명 받고 그 이유에 대해 오래 생각하는 것이 취미이다.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의 현재와 변화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사람과 사회를 관찰하고 그것을 왜곡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직업을 통해 스스로가 조금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

[에세이]

## 책, 읽기와 접하기

김남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19.11

직업상 매일 책을 접한다. 책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접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 접하거나 만나는 모든 책을 다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접하거나 만나는 것’은 어떤 건가? 관심이 생긴 주제와 관련해 책 제목과 저자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책 제목이나 저자 제목을 가지고 알파벳으로 정리된 도서관 색인카드를 뒤적여 책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당연히 컴퓨터 검색을 이용한다. E-book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대출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검색을 통해 찾아낸 청구번호를 갖고 그 책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 서가에 직접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부터 책을 ‘접하거나 만나는’일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책들이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 있기에, 내가 찾던 책 주변에는 그와 관련된 주제들의 책들이 꽂혀있기 마련이다. 먼저 내가 목표로 정한 책을 서가에서 뽑아 든 후 그 주변에 꽂혀 있는 책들의 제목을 살핀다. 나의 관심을 불러내는 책이라면 뽑아 목차를 살펴본다. 목차만 보아도 책의 흐름에 대해서, 그 책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목차를 훑어보는 것이니 정식으로 책을 ‘읽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은 사실상 정식 독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 자극을 준다. 제목과 목차는 미끼처럼 내 관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그로부터 책의 내용을 상상하게 한다. 제목이 준 힌트가 나의 기존 지식과 연상에 가미되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구성된다. 마치 상대의 이름만 알고 있는 소개팅 전날 밤 같다.

물론 그런 흥분감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정작 책의 내용은 나를 실망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생겨난 아이디어는 내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안겨 주기도 한다. 이것이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책을 ‘접하거나 만나는’ 것이 주는 기쁨이다. 스스로 도서관을 설립하기도 한 아비 바르부르크라는 독일 학자는 이를 “좋은 이웃의 법칙”이라 불렀다. 한 책과 다른 책들의 사이, 곧 책들의 이웃이 특정한 책 한 권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접하는’ 혹은 책과 ‘만나는’ 이 과정과 비교해보면 책을 본격적으로 ‘읽는’ 일은 오히려 흥미롭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책들은 애초 제목과 목차가 안겨준 흥분을 무참히 작살내버리기도 한다. 저자의 내용과 주장, 논거를 따라가려면 상당한 집중과 노력을 요구하는 책들도 있다. 이런 책을 읽는 과정이 즐거운 것이라고 감히 말하기는 힘들다. 저자의 논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의 압축된 문장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유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책의 생각과 논지를 정리하고 거기서 간과되거나 빠져있는 생각의 고리들을 보충하는 과정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책을 읽는 일은 정신은 물론 상당한 육체적 에너지도 소모되는 노동에 가깝다. 이런 과정을 거쳐 힘겹게 ‘읽은’ 좋은 책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 그 책의 생각들에 나의 생각이 화학적, 전기적으로 반응하며 일으켜 낸 통찰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면서부터다. 마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새롭고도 신기하게 다가온다. 좋은 책이 주는 약효는 사후적이면서도 꽤 오래간다.

대학 도서관에서도 E-book을 제공한다. 이제는 온라인 데이터로 접할 수 있는 책들의 종류와 수도 꽤 늘어났다. 이-북은 내가 원하는 책을, 도서관까지 찾아가는 발품을 팔지 않아도 쉽게, 그 자리에서 금방 읽어볼 수 있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내가 찾던 것이 그 책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나 문장이고 그를 급히 인용해야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북은 도서관에서 내가 찾은 책 주변에 꽂혀 있는 책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을 생략시킨다. 내가 특정하는 바로 그 책을 곧바로 내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게 하면서 그 책과 이웃이 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책들로의 접근은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책의 경우 뿐 아니라 전자기기를 통한 ‘검색’의 논리 전반에 적용된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걸 순식간에 곧바로 특정해주는 검색의 가능성은 우리가 찾는 것의 주변과 이웃들을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비유가 허락된다면, 서로의 스펙을 분석, 곧바로 적정 결혼 상대자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삶의 경험을 배제하는 경향을 갖는 것과도 유사하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이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기회 자체를 제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책 말고도 우리가 '접하고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유튜브만 클릭해보아도 수없는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유튜브를 통해 악기와 외국어, 요리, 공예나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유튜브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특정 목적을 벗어나는 관련 콘텐츠를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쳐난다. 자신이 본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추천영상이 다음 동영상으로 뜨고, 내가 보고 있는 영상 아래에는 관련영상들의 리스트가 주르륵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포스트가 내 타임라인에 게시되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SNS라는 매체적 특성의 핵심인 링크는 나의 타임라인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과 사람, 사건과 이미지들을 접하고 만날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바르부르크가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과 책들 사이에 대해 말했던 '좋은 이웃의 법칙'이 전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과 사진, 영상, 음악 등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콘텐츠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독일 매체학자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사진, 축음기, 영화와 같은 기술 장치가 개발되기 전 모든 감각정보를 기록하고 유통시키던 유일한 매체가 문자였던 시기를 문자독점시대라 부른다. 문자가 감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은 카메라와 녹음기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자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언어라는 기호로 전환시켜 기록한다. 소리는 음표나 의성어, 메타포로 바뀌고 시각적 경험 또한 형용사, 부사 등을 동원한 문장으로 묘사된다. 이 과정에서 감각정보는 필터링된다. 키틀러의 말을 빌면 문자는 '감각적 데이터 흐름을 상징적 격자로 걸러내어'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감각정보는 텍스트를 읽으며 마음속에서 그 감각들을 상상하고 떠올리는 독서를 통해서만 재생된다.

이 독서능력은 꽤 오랜 기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획득되기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자가 저장한 감각정보를 되살릴 수 없다. 사진, 영상, 녹음기 같은 기술적 매체는 이와 다르다. 여기서 감각정보는 문자라는 상징적 기호로 걸러지지 않은 채 저장된다. 그렇게 저장된 감각정보를 재생하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도 없다. 평상시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보듯 영상을 듣고 보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기술적 매체는 그 성격상 '읽기'보다는 '접하고 만나는' 매체라는 것이다.

책을 접하고 만나는 것과 이런 '전자화된 감각정보'를 접하고 만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책과 책 사이와 유튜브 영상과 영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접하고 만나는 것'의 귀결이 두 매체에서 서로 다르게 펼쳐진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책의 제목과 목차를 보며 책의 내용을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 곧 책을 '접하거나 만나는' 일은 책을 읽거나 쓰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흘러가는 영상들을 접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먹방 영상은 날 불현 듯 허기지게 하지만 그로부터 어떤 먹방 영상을 만들까를 고민하지는 않는다. 요리 영상이 주는 자극은 요리를 시도하게 하지 요리 영상을 찍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하다. 대개의 경우 감동적인 소설은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울 수는 있지만 소설을 쓰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멋진 여행 책은 우리에게 여행을 떠나도록 부추기지 여행 책을 쓰도록 자극하지 않는다. 물론 여행 책의 영향으로 여행을 좋아하게 된 사람이 이후 여행책의 저자가 될 수도 있다. 요리 영상에 자극받아 요리를 즐기게 된 사람이 이후 스스로 요리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책을 '접하고 만나는' 일이 결국 다시 책으로 귀결된다면, 유튜브 영상을 접하는 일은 그 바깥, 곧 삶의 영역으로 뻗어 나간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책을 '읽는 것', 독서가 오래전부터 지향해왔던 목표다.



[해외통신]

## 더 큰 협력을 기대하며 : 2019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회 참가기

왕루이닝(王瑞玲, 중화서국 대외협력부 총책임자 ·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번역 조영환

2019.11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 교류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거의 성과처럼, 심도 있는 문화 교류와 출판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문화적 동질감과 친근감이 제고되고 양국 문화는 더욱 번영하고 사회 문명도 진일보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출판그룹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고, 10월 30일에는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회>에 참가하였다. 이들 출판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1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무인서관, 107년 역사의 중화서국, 68년 역사를 가진 인민문학출판사 그리고 중국 유일의 국가급 미술, 음악 출판사인 중국미술출판총사와 인민음악출판사가 있으며 동방출판센터, 중국민주법제출판사, 연구출판사, 중역출판사, 세계도서출판공사, 현대출판사,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 등도 있다. 이들 중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는 중국 출판 업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수출입 양도 가장 많은 출판사로서 국제 도서전 주관 기관이기도 하다.

양국 주최 측은 출판계와 학술계, 번역계, 문화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여러 매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행사와 합작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 인사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어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양국의 출판, 학술, 문화와 언론 분야에서 교류와 합작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상담회는 중국출판그룹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양측은 이를 위해 두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준비했다. 10월 30일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RYSE 호텔 5층 RYSE Space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이 행사에 중국과 한국의 50여 출판사가 1,000여 종의 도서를 가지고 참가하니 그야말로 뛰어난 책들이 한 방에 가득 모인 셈이었다. 참가 도서의 내용은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사전류, 아동 도서, 자기 계발서,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했다.

개막식에서 중국출판그룹 단장 저우씨페이(周锡培)는 중국출판그룹 단위에(谭跃)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장의 친필 축하 편지를 대독하였다. 편지에서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한 성과를 치하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 출판계 동업자들의 전폭적 지지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국 출판의 합작을 지속하기 위해 행사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도 힘껏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도 축사에서 16명의 중국출판그룹 일행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수확의 계절, 가을에 한중 양국이 상담회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한국 측을 대표하여 중국출판그룹 측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중국출판그룹이 오랫동안 좋은 책으로 한국 독자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해 힘쓴 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저우 단장은 상무인서관 창업주 장위안지(张元济) 선생의 서예 작품을 선물로 답례하였다. 그는 "한 가문이 수백 년 계속 이어지는 데는 덕을 쌓는 것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일은 독서"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출판 문화계 동업자들이 다 같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회 당일 비즈매칭 상담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고 성과도 탁월하였다. 행사장 내에 출판사마다 마련된 전시 부스에 견본 책을 비치하였고, 그 뒤에는 회사의 브랜드 로고와 중점 도서를 인쇄한 입간판을 세워 두었는데 색조가 선명하고 강조하려는 점이 잘 드러나 있었다. 중국 측 출판사는 모두 각자 전용 상담 테이블을 놓아두고 통역사도 한 명씩 배치했다.



비즈매칭 상담 진행 모습

행사장에 놓인 11개 테이블마다 주최 측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작한 자료집 두 권이 놓여 있었다. 이 도서 목록은 도합 30여만 자나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 디자인, 번역, 편집을 거쳐 인쇄까지 하는 데 1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진흥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한국 출판사의 간단한 소개와 도서 출판 소식을 미리 공지했다. 그리고 쌍방의 희망과 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에 참가한 출판사를 서로 연결하고 예약을 주선해 주었다. 덕분에 중국출판그룹 참가사는 평균 8~9차례의 일대일 판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상담은 점심 식사와 오후 세 번의 티타임을 제외하고 한 차례에 30분씩,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현장의 클래식 음악은 그윽하고 기품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도서 전시와 상담에 참여한 한국 출판사는 웅진씽크빅, 북이십일, 다락원, 민음사, 학교방 등 25곳이었다. 출판사의 도서가 내용 면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이들 출판사 이외에 단독으로 예약한 출판사도 있었는데, 이들은 지혜정원, 돌베개, 민속원, 로크미디어, 음악세계, 세광뮤직출판사 등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측은 상담회 현장에서 중국출판그룹 대표단 내의 각 분야 책임자 그리고 단원들과 소통하며 인적, 물적, 자금 방면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며 많은 출판사가 상담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가자들은 모두 특별히, 이번 한중 문화 교류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미리 현장에 도착해서 견본 책을 검토하면서 상담 시간을 기다렸고 어떤 이는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명함을 건넸다.

양측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도서와 문화 상품을 추천했고 새로 알게 된 사이든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든 관계없이 모두 흥금을 터놓고 합작을 논의했다. 현장 스태프는 의향서를 출력하고 복사하느라 실 새 없이 회담장을 돌아 다녔다. 현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견본 책을 펼쳐보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모두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상담 내용이 많아지면 자연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나는 법이다. 마감 시간이 되어도 많은 출판사들이 자신이 뜻한 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여 여운이 남았다. 스태프들은 재촉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하였고 통역사와 판권 대리인들도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주의를 환기하였다. 점심 식사에 식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마감 시간에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다가 사진을 찍자고 불러대는 통에 상담을 중간에 끊고서 무대에 올라 단체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행사가 끝난 뒤 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모두 놀라운 성과에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음을 아쉬워하였다.

하루 만에 현장에서 6건의 합작 계약이 성사되었고 각종 합작 의향을 확인한 것만도 100여 건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동방출판센터는 한국 로크미디어에서 출간한 경영 관리 베스트셀러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중국어 간체자 판권을 계약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유명 경제학자 홍춘욱 교수가 경제와 역사를 결합하여 금융의 시각에서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출판사는 한국의 국학자료원이 펴낸 『한국미의 재발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 책을 중국에 소개해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이웃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체득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999년에 창립된 지혜정원 출판 미디어 그룹은 장장 6권으로 이루어진, 인민문학출판사의 『구주표묘록』의 종이책,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판권을 선뜻 계약하였다. 이는 『구주표묘록』이 전통 출판과 뉴미디어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또한 『구주표묘록』이 창조한 동양식 판타지 세계가 한국 독자의 공감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상무인서관은 전통문화 위주의 도서를 중점적으로 추천하였는데, 그 중에서 『맹자 공개 강좌』로 대표되는 유학 관련 저서가 한국 측 출판사의 주목을 받았다.

중화서국은 여러 해 동안 누적 집계 50여종의 우수한 전통 문화 도서 판권을 한국에 수출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중화의 지혜』를 계약하였고 『중화 경전 고적고』 시리즈를 전시하였다. 그리고 한국학 자원이 풍부한 몇몇 한국 출판사와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공동 구축, 판매 등의 가능성을 깊이 검토하였다. 인민문학출판사는 국제 출판 교류와 합작 방면에서 음악 분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음악세계, 세광뮤직출판사와 각각 『음악 명가 명작 보급』 『국가 음악 명편』 두 종의 합작 의사를 확인하였다. 중국민주법제출판사는 법률 전문 출판사로서 한국 법률 관련 출판사 두 곳과 『법의 지도』와 『로마법 수업』을 비롯한 여러 권의 도서 교류 의향을 확인하였다.

중국 출판그룹은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한국 출판사가 많기도 하였지만 모두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충분한 실력을 갖춘 대형 출판 그룹도 있지만 규모는 작아도 역량 있는 전문 출판사도 있었다. 전통을 탈피하여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출판을 하는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전문 분야를 파고들어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전통 출판사도 있었다. 활기차게 잘 진행되고 있는 문화 체험도 있었고 풍부하고 다양한 창의적 작품도 있었다.

중국의 현대출판사와 중역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는 한국 도서의 품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아동 도서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아동 도서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면서 한국 도서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표지 디자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특히 융통성 있는 다양한 마케팅 모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멀티미디어 홍보, 다원적인 국내외 합작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독특한 내용을 해외 합작사와 함께 기획해서 발간하여 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브랜드 노출을 증가시켜 쌍방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배워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문화 교류의 성과를 총결산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행사장 입구에서 특별히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회 성과를 전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서 양국이 수출한 실물 도서 일부와 표지를 전시하여 양국 문화 교류의 성과를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합작 쌍방의 친근감을 더했다. 이미 알고 지내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견본 책 앞에서 서로 마주 보고 웃으며 진행하던 합작 과정의 여러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한국의 시인 나태주의 시집 『모두가 네 탓』에 실린 '풀꽃'을 원고지 형식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작해 전시해 두었는데, 이는 많은 이의 눈길을 끌었다.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 성과전시회 모습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시는 문학의 최고 경지이다. 한국 시인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서정시에 젊은 한류 아이돌 이종석의 낭독과 감상 그리고 서문을 결합한 공동 작업에 아름다운 표지 디자인까지 갖춘 이 작품의 중국어판은 중국의 문학 애호가와 한류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창의적인 마케팅 방식과 해외 수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울 수 있었다.

29일 열린 '중국명사 고전특강'에 대해서도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 행사에는 중화서국이 판권을 관리하고 있는 작품을 쓴 작가 두 명이 초청되었으며 이미 한국 판을 출간한 바 있다.

두 명의 강사 중 한 분인 북경대 중문과 교수로 미국과학진흥회(AAAS) 회원이기도 한 리링(李零)은 선진(先秦) 시기 고고 연구 및 고대 한어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독서를 즐겨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문의 기초 또한 튼튼하다. 문장은 꾸밈없고 필치는 익살스럽지만 내용은 심오하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저술 활동을 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다 보니 연구의 분야도 다양해진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인 삼고(고고학, 고 문자, 고문헌)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저서도 많다.

『꽃 사이 술 한 병 놓고』,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 보내다』, 그리고 『새가 노래한다』는 남녀 사이의 문제, 병법(兵法) 전통 문화에 대한 반성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의 수필은 깊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리링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대 국제 회의장에서 '리링과의 대화-나는 고전을 읽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동양사학과 김병준 교수 등 13인 학자들과 함께 고전의 가치와 힘 그리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성균관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는 '리링이 손자를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내용은 그가 손자를 깊이 연구하게 된 연유와 손자 연구의 의의와 실용 사례 등이었다. 그 자리에는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서대, 서울교대, 홍익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의 전공 교수와 영화·출판·연론계 종사자 그리고 100명에 가까운 학생과 중국 문화 애호가들이 참여하여 강연을 경청하였다. 한국 측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담자로 소장파 동양 철학 전파 유튜브인 임건순 씨를 초대하였고, 그는 한국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은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는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손자병법』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손자가 중국인들의 정신세계와 문화 심리적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일본에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손자병법』을 상업과 경영의 도리로 활용할 것을 권하는 책이 많은데, 선생님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피지기에서, 적의 약점을 알기보다 내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등 10여 개를 질문했다. 리링 교수는 모든 질문에 일일이 꼼꼼하게 대답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90분에서 30분 더 연장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모두 아쉬운 마음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울림이 있는 후기를 남겨주었다.

10월 30일 저녁에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리링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그의 작품으로는 『전쟁은 속임수다』, 『유일한 규칙』, 『집 잃은 개』, 『꽃 사이 술 한 주전자』, 『호랑이를 산에 풀어주다』, 『리링의 주역 강의: 죽고 사는 건 운명이며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 등이 있고 『노자』는 10월 말에 출시되었다.

청화대 인문 학원 교수이며 교육부 강학자 특별 초빙 교수인 장귀강(張國剛) 교수는 주로 중국 고대사, 중서 문화 교류사 및 역사학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수당사, 유럽 한학사, 중서 문화 교류사 방면에 조예가 깊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지나간 일을 비추어 치도에 도움을 받는다"는 『자치통감』은 내용이 조리가 있고 서사가 명확하다. 이 책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민생의 회복을 기록한 것인데, 역사상 국가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얻은 흥망성쇠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

장 교수는 동서 문화에 대한 넓은 시야와 고금 역사를 관통하는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자치통감』에서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핵심 20가지를 세심하게 선정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시각에서 전통 문화의 정수를 자세히 살피고 정치적 득실, 왕조의 흥망성쇠 흔적을 추적하며 수신제가, 경세치국의 도를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로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장 교수의 『자치통감』은 출간되자마자 넓은 관심을 받아 그해 '중국의 좋은 책'으로 선정되었고 수많은 국가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한국에서는 올해 봄에 출시되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귀강 교수는 10월 29일 오전, 삼화고전연구소에서 한국의 저명한 한학자인 『자치통감』 연구자 중앙대 권종달 교수와 면담하였다. 권 교수는 한국의 『자치통감』 연구 일인자로 원전 전체를 번역한 바 있으며, 현재 『속자치통감』을 번역하고 있다. 그는 올해 80세로, 40여 년 동안 『자치통감』을 연구하며 집필을 멈추지 않았고 삼화고전연구소와 삼화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권 교수의 연구실과 저서를 둘러보고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자치통감』을 연구하고 전파해 온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시했다. 그런 후 자신의 저서 『자치통감』 한글판에 권 교수가 서문을 써주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삼화출판사 정철재 사장과 권희선 편집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두 교수는 『자치통감』의 가치에 대해 흥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역사 연구의 방법, 역사학자의 입장과 역할 등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한중 양국의 중량급 전문가의 대담은 마침 사마광 탄생 1000주년 기념일(11월 17일) 전야여서 모두의 감동은 더 깊었다. 장 교수는 권 교수에게 사마광 탄생을 기념하는 일련의 세미나와 문화 행사에 참가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행사 마지막에 두 교수는 서명한 책을 교환하고 기념 촬영을 한 뒤 사마의 고향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같은 날 저녁, 장 교수는 성균관대 국제회의장에서 '자치통감과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연합뉴스 보도부 부장 김태식 선생은 퇴근 후에 서둘러 도착하여 대담자 역할을 맡았다. 그 자리에는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서대, 서울교대, 홍익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의 전공 교수와 영화, 출판, 언론계의 문화 인사 그리고 100여명의 학생과 중국 문화 애호가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하였다. 옛 것을 배워 현재에 통달하고 중국과 서양의 지식을 관통하며 아우르는 장 교수는 유머가 넘치는 언어를 구사하며, 십 여 개의 작은 고사를 통해 이론과 이치를 확실하고 명쾌하게 가르쳤다. 현장에서는 열띤 질문이 쏟아졌는데, 내용은 학술연구, 기업관리, 가정경영, 개인계획 등 여러 방면의 문제를 망라하였다. 강연 후 일부 전문가와 학생들이 사인을 부탁하면서 줄이 이어졌다. 사인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참가자들도 있고 관계자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자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장 교수는 10월 30일 오전 서울대학교 국제 회의장을 찾아 '중국 역사 주기적 위기와 그 원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동양사학과 김병준 교수, 한국외대 김상범 교수, 서울교대 김종섭, 김정식 교수 등 10여 명의 학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내용은 통일과 분열의 사회 변화와 이익, 권력, 모델 모순 그리고 제도의 제약 등의 문제였다. 토론회가 끝나고 어떤 전문가가 후기를 썼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교류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출판그룹 한국방문단 일행 16명은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동점, 파주출판도시, 삼성출판박물관, 인쇄박물관, 열화당 도서관 등 출판문화기구와 위즈덤하우스, 문학동네, 북이십일 등 한국 유명 출판사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을 위해 토론하며 한중 출판계의 저작권 합작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더하였다.

중국출판그룹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회' 행사 외 중국출판그룹의 한국 내 명사강연과 일련의 학술간담회, 및 한국출판업계 방문 및 문화체험은 한중 양국출판업계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국내 중화권 전문에이전시 및 문화기획사인 연아인터내셔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한중문화를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중국출판그룹 한국방문단 16명과 작가 방문단 4명은 서울의 7개 행사를 원만히 마치고 손조롭게 귀국하였다. 6일 동안 우리 일행은 전문가 대담, 신간 발표, 대중 강연, 독서 감상회, 저작권 상담회, 출판 성과 전시회, 서명식, 언론 인터뷰와 보도, 문화 체험, 그리고 출판업계 관계자들과의 심층적인 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문화를 교류했다. 우리는 이번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출판그룹 단체 사진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해외통신]

## 2019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참관기

최현경(프리랜서)

2019.11

### 아시아의 '볼로냐아동도서전'을 꿈꾸는 국제 도서전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CCBF: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Children's Book Fair)이 2019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유일한 아동 도서전으로, 2013년 첫 전시를 열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개 글을 보면, 이 도서전은 중국의 아동문학(‘0세에서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로 표현)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우수한 아동문학을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어린이 독서 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Go global, bring in’으로 요약되는 이 전략은 오늘날 중국 출판 산업 전체의 방향성에도 일치한다. 과연 이 목표에 부합하는 도서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는 도서전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며 판단해 보자.

일단 첫눈에 들어오는 도서전 분위기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아동관이나 서울국제유아교육전 같은 느낌을 준다. 하나의 전시관에서 운영되는 행사인 만큼, 볼로냐 도서전에 비해 아직 규모 면에서는 한참 모자라 보인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중국의 대형 출판사와 서점 부스들이 저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게 꾸민 큼지막한 위용을 뽐내며 전체 분위기를 주도한다. 중국 출판사와 서점 부스에서는 도서 판매와 함께 저마다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책 전문가 강연, 전시, 서점 운영 등 다채로운 독자 참여 행사를 벌여 시중 수많은 인파가 붐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자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인다.





북적거리는 중국 출판사 전시관(왼쪽),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의 국제관(영국관, 프랑스관, 이탈리아관)(오른쪽)

전체 전시관의 4분의 1 정도로 짐작되는 국제관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이다. 국제관 쪽은 업계 관계자, 작가 등이 아닌 일반 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저작권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차분함 속의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일단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세계 출판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해외 출판사들의 참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25개국 367개사가 참가하였고(194개 해외 참가사 포함), 올해는 정확한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체 400여 개 회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워낙 규모가 큰 데다 해마다 15%씩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하니, 어느 나라든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수출에 중심을 둔 아동 출판사에게 상반기에는 볼로냐 도서전, 하반기에는 상하이 도서전이 한 해 동안 치러내야 할 주요 이벤트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은 작년부터 볼로냐피에레(BolognaFiere)에서 공동 운영을 맡고 있다.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을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이다. 이 회사는 현재 뉴욕저작권박람회(New York Rights Fair)와 상하이 도서전 운영을 맡고 있으며, 2년 후인 2021년부터는 '모스크바국제아동도서전'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기존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의 부대 행사로 신선했던 듯하다.) 다소 과장하면 어린이책 업계의 세계적 패권을 이 회사에서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볼로냐 도서전은 온라인 저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때 다소 침체기에 접어든 느낌이었으나, 해마다 새로운 시상 제도를 만들고 참가사에 한정된 상을 수여하여 부스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매회 수준 높은 작가 강연과 기획전을 마련하고, 글 없는 그림책(silent books)이나 논픽션 그림책을 비롯해 어린이책의 새로운 흐름을 조명하는 등, 어린이책 및 일러스트레이션 업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로냐 도서전은 어린이책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가하고 싶은 세계적인 축제로 탄탄히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도서전 운영의 노하우와 형식이 상하이 도서전에도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다.

## 도서전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시상 제도와 작가 강연 및 전시

볼로냐 도서전에서 고안한 형식이 상하이 도서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시상 제도가 그렇다. 가장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시상 제도는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Bologna Illustrator's Exhibition)'에 해당하는 '황금바람개비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상(Golden Pinwheel Young Illustrators Competition)'이다. 16세 이상 39세 이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포맷으로만 출품이 가능하다.

볼로냐와 다른 독특한 점은 중국 작가 육성과 세계 시장의 소개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 작가 부문과 세계 작가 부문을 별도로 시상한다는 점이다. 심사 또한 국내 위원과 해외 위원을 비슷한 비율로 선정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실력 있는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중국 및 세계의 출판계에 내보이고, 세계 작가들과 출판사들의 관심을 중국으로 끌어 모으기도 한다. 'Go global, bring in'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제도로 보인다.

올해에는 72개국 1999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최종 심사대상 50인에 한국 작가 안소민이 선정되어 도서전 로비에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아직은 이 상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국내 작가 및 출판사들의 관심이 부족한 듯한데, 상하이 아동도서전의 세계적인 위상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또 아직은 유의미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직접 중국 출판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이러한 상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시관 로비에 설치된 황금바람개비 젊은일러스트레이터 상 전시. 대상 수상자인 Guilherme Karsten의 작품과 한국 작가 안소민의 작품.



천보추이 국제아동문학상 수상 그림책

한편 볼로냐 라가치상에 해당하는 그림책상으로는 '천보추이(陈伯吹: 상하이 출신 아동문학 작가) 국제아동문학상(Chen Bochui Inter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Picture book Award)'이 있다. 중국 단편, 중국 동화, 국제 그림책의 세 부문 가운데 해외 출판사는 국제 그림책 부문에 출품할 수 있다. 중국 그림책 2권을 포함한 총 5권의 도서를 선정하며, 상금은 각각 5만 위안이다. 이 상 역시 아직은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지만, 세계적 작가 리즈베트 츠베르거나 어린이책 평론가 레오나드 마커스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권위가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시상 제도와 함께 볼로냐의 포맷이 이식된 가장 두드러지는 제도는 '일러스트레이터 서바이벌 코너'이다. 이곳에서는 도서전 기간 내내 세계적인 작가 및 아트디렉터 들의 강연, 워크숍, 포트폴리오 리뷰 등이 이루어진다. 작년에는 한국의 이수지 작가와 데이비드 새넌, 키티 크라우더 등이 참여했고, 올해도 데이비드 맥컬레이, 리즈베트 츠베르거 등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도서전 주최 측과 여러 출판사들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유명 작가와 평론가, 출판인 등 전 세계 어린이책의 흐름을 선도하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다양한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예술 관련 그림책 전시와 연계하여 해당 작가 및 편집자(퐁피두센터 출판사나 테임즈앤허드슨 출판사 편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 뉴욕타임스 어린이책 편집자 마리아 루소가 이끄는 어린이 독서 진흥에 관한 강연, 포르투갈 독립 출판사 '파토 로지코'의 대표이자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안드레 레트리아의 강연 등 풍성한 강연이 이어진다. 이렇게 전 세계의 유명 작가나 편집자, 아트디렉터 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쁨, 이고르 올레니코프 같은 작가들을 오다가다 마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은 개인적으로 주변 출판인 및 작가들에게 이 도서전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 성장하는 중국 아동 출판계의 역동적인 분위기

최근 몇 년 동안 살펴본 중국 아동 출판계는 전 세계 어린이책의 오랜 역사를 한꺼번에 흡수하기라도 할 기세이다. 이미 한국의 교원이나 미래엔 수준의 대형 출판사가 술하게 많은데, 끊임없이 새로운 대형 출판사들이 어린이책 시장에 진출한다. 거대한 인구와 자본력을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거세지만, 내부의 창작 동력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세계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물론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리며 엇비슷한 책을 너도나도 펴내는 중복 출판이 만연하여, 창의적인 국내서를 개발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거세다고 한다.(한 해에 발급하는 ISBN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이책 시장의 80% 정도는 수입 도서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입된 책들이 중국 국내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어린이책의 성장 과정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90년대 중반부터 2천년대까지 크게 확대된 어린이책 시장에 전 세계의 수많은 양서가 몰려 들어왔고, 이를 접한 창작자와 독자 들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한국 그림책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양분이 된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규모 면에서 우리를 훨씬 압도하는 중국의 어린이책과 작가들이 작품성과 예술성으로도 전 세계를 휩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중국 출판계는 그 스펙트럼이 무척 다양해 보인다. 여전히 주류는 학습 연계 도서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어 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해서, 영어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출판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학습 교재를 들고 중국을 찾는다. 학습 교재와 무관한 출판사들도 대형 시리즈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다. 일반 단행본이라 해도 최소 5권은 되는 시리즈를 원한다. 과학이나 수학(STEM) 주제, 사회성 및 감정 교육에 관련된 그림책 시리즈들이 특히 인기가 많다. 단행본 한 권 한 권에 집중하여 기획하는 우리의 중소 규모 출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몇몇 저작권 에이전시들이 비슷한 주제의 여러 출판사 도서를 묶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했는데,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도서 소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과학 그림책들

그러한 한편으로 중국 출판인들의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점점 더 까다롭게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예전에는 간단한 소개 자료나 초안만 보고도 계약서 사인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전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계약이 진행되는 식이다. 예전에 선호하던 알록달록 예쁘장한 그림체를 폄하하며 좀 더 예술적인 그림책을 원하는 곳도 높은 출판사도 있고, 예전에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던 한국이나 일본 특유의 과장되고 만화적인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퍼블리셔스 위클리 상하이도서전 소개 기사에 나온 'Rights Solution'이라는 에이전시의 활약을 지켜볼 만하다. 전 세계 독립 출판사들의 저작권 판매를 대행하는 신생 회사인데, 여러 다양한 출판사와 계약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콘텐츠, 포맷을 가지고 하나의 종합 출판사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다. 한국의 소규모 출판사나 에이전시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전략이다.

전 세계 출판계는 자국의 독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도서 매출 확대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도 대형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중소 규모 출판사와 작가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다양하게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위 글에서 조금씩 인용하기도 했지만, 이번 상하이아동도서전에 참가한 출판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아래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관련 기사 URL :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childrens/childrens-industry-news/article/81775-success-stories-at-the-2019-shanghai-children-s-book-fair.html>

## 한국 출판계에 대한 관심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관의 성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에 한국 그림책 전시관을 설치하고 한국의 우수한 그림책을 소개했다. 전시 신청 도서 가운데 중국 수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53종의 그림책과,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도서, 주요 중국 수출 도서 등을 전시하였다.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주연경 작가의 『오케스트라』를 테마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하게 전시관이 꾸며졌다. 전시관 양쪽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책 소개 영상이 상영되어 지나가던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각 전시 도서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엽서를 함께 진열하여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도서와 엽서를 세트 전시하니 표지만 쏘고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그림책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주연경 작가는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과 자신의 그림책 철학을 어떻게 그림책 창작 과정에 녹여 내었는지 심도 깊은 강연을 펼쳤고, '나만의 오케스트라 책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필자는 성장하는 중국 출판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창작 그림책 30년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진지한 관심과 연이은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그림책 전시관 부대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



한국관 풍경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그림책 전시관의 수출 상담을 맡은 정연혜 연어인터내셔널 대표는 한층 뜨거워진 중국 출판계의 반응에 몹시 고무된 인상이었다. 정연혜 대표와 직원, 전시관 통역사 세 분이 잠시도 쉴 틈 없이 도서 소개 및 수출 상담에 불려 다녔고 현장 오피 문의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팅에 마치 한류 스타라도 된 기분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015년 베이징국제도서전, 2018년 상하이아동도서전에 이어 세 번째 중국 방문이다. 2015, 16년에는 새로 출간된 창작 그림책은 빠짐없이 판권 문의가 들어올 만큼 한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사드 문제 이후로 계약된 책도 출간 허가를 받지 못해 출간이 지연되면서 판권 문의가 뚝 끊겼다. 그렇게 2년쯤 공공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작년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올해 상하이도서전의 한국 전시관에 끊임없이 출판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것이다.

중국 출판계 입장에서 한국 그림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화적, 정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목표나 주제성이 강한 책을 멋스러운 그림책으로 잘 소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상하이도서전 강연으로 한국 그림책의 30년사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한국 그림책의 과제를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주제 의식이 담긴 이야기를, 예술성과 문학성을 갖춘 그림책 속에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에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러한 책이 꾸준히 등장한다면 한국과 중국,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두루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그림책을 해외에 소개해 온 저작권 수출 담당자로서 개인적인 바람도 정리해 본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의 3자 분업 및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해외 도서전 관련 사업이 세 기관에 나누어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구심점이나 핵심 인력이 부족하여 매번 맨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받곤 한다. 담당자들의 헌신성은 언제나 충분하고 넘치지만, 지속성과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조금은 아쉽다. 전시 도서 선정 과정, 전시관 컨셉 결정, 현장 방문 작가나 연구자, 편집자 등 한국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발제자 선정, 국제적인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모션 행사 기획 등,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 나은 프로모션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 **최현경(프리랜서)**

2001년부터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며 저작권 수출입 업무도 병행했다. 현재 프리랜서로 어린이책 기획, 편집, 번역 및 연구,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해외통신/중국]  
**〈82년생 김지영〉 출판한류 의미와 시사점 분석**

김택규(중국통신원)

2019.07



『1982년생 김지영』 한국어판, 중국어판, 타이완판, 일본어판 (왼쪽부터 순서대로)

조남주 작가의 화제작 『82년생 김지영』은 이미 전 세계 17개국에 판권이 판매되었고 올해 상반기 일본과 타이완에서도 차례로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본판은 1월 출간 후 3일 만에 4차례 증쇄되었고 3개월간 판매량 13만 권을 돌파하며 일본 아마존 외국문학 분야 1위에 올랐다. 타이완판도 5월 출간 후 2주 만에 증쇄를 찍었고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종이책 30위, 전자책 4위에 올랐다.

2019년 9월 귀저우(貴州)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된 중국판도 중국 최대 온라인서점 당당닷컴에서 10월 16일 기준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봤다.('중국서도 '82년생 김지영' 열풍...베스트셀러 1위', 조선일보 2019. 11. 17). 이 기사는 믿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초판 4만 부가 금세 소진된 데 이어 전체 제작 부수는 6만5천 부를 넘었다고 했다

당시 광저우 출장 중에 이 뉴스를 접한 필자는 일부러 시내 중심의 서점가에 들렀고, 과연 베스트셀러 코너에 『82년생 김지영』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다. 광저우가 대도시이긴 해도 중국의 문화 중심지 베이징, 상하이와는 꽤 거리가 먼데도 어느 서점에서나 『82년생 김지영』이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중국 출판계에서 한국 도서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2017년 말 한국의 사드 배치와 한한령 개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감개무량하기까지 했다.



광저우 연합서점 매대 위의 『1982년생 김지영』

50여 일이 흐른 현재 『82년생 김지영』은 당당닷컴 12월 첫째 주 소설 분야 25위이다. 그간 판매량이 급감한 걸까? 분석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했다. 11월에는 소설 분야 32위였고 10월에는 아예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차근차근 순위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0월 16일에 당당닷컴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1위에 올랐다”는 국내 뉴스는 거짓이었던가? 아무래도 중간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듯했다.

관련 중국 뉴스를 검색해보니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1위’가 아니라 ‘신간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1위’였다. 당당닷컴의 신간 베스트셀러는 최근 3달간 출시된 도서 판매 성적을 매긴 순위이다. 즉, 『1982년생 김지영』은 10월 중순 어느 한 시점에서 잠시 신간 소설 중 1위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1982년생 김지영』이 중국 서점가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당닷컴 올해 11월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10위를 살펴보자. 1위는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인간실격』, 2위는 위화(余華)의 『인생』(活着), 3위는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 4위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백야행』, 5위는 마이자(麥加)의 『인생해해』(人生海海), 6위는 루야오(路遙)의 『평범한 세계』(平凡的世界), 7위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간의 고독』, 8위는 서머셋 모옴의 『달과 6펜스』, 9위는 림광빈(羅廣斌), 양이엔(楊益言)의 『홍암』(紅岩), 10위는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였다.

이 중 2019년 신작은 마이자의 『인생해해』뿐, 나머지는 전부 출간된 지 오래된 국내외 고전과 스테디셀러이다. 32위인 『1982년생 김지영』보다 위에 있는 도서를 전부 훑어봐도 신작은 고작 국내 도서 2권, 외서 1권뿐이다. 그 외서 1권도 오츠미치의 호러물, 『여름과 불꽃과 나의 사체』이므로 『1982년생 김지영』은 사실상 현재 외국 순문학 신간 중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11월까지의 누적 판매 부수는 18만 부로 알려져 있다).





2018.11.16. 조남주 작가 베이징 한국문화원 독자와의 대화)

중국 최대 서평 사이트 더우반(豆瓣)에 올라 있는 서평 현황을 봐도 『1982년생 김지영』의 중국 독서계 내 영향력은 가늠이 된다. 『82년생 김지영』보다 두 달 앞선 2019년 7월에 출간되었고 위의 11월 소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23위인 중국 작가 다빙(大冰)의 『아이』(小孩)는 서평 수가 352개에 불과한 반면, 『82년생 김지영』은 『아이』보다 순위가 9계단 밑인데도 서평 수가 무려 8374개나 된다.

5위인 중국 추리작가 마이자의 신간 『인생해해』는 서평 수가 14306개이지만 출간 시점이 2019년 4월로 6개월이나 빠르고 장르도 추리물인 것을 감안하면, 『82년생 김지영』은 판매 성적과는 별도로 중국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작품으로 떠올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2년생 김지영』의 댓글 중 가장 많은 동감을 얻은 것은 아래와 같다.

diduan: 2019. 8. 12

거의 모든 동아시아 여성들은 김지영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여성으로서 당한 그 불공평한 일들을 떠올릴 것이다. 나는 내가 엄마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졌는지 생각해본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수많은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여성들은 어쨌든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고난과 장애물이 가득하다. 최근 몇 년간 나는 내가 아는 여성들에게 있는 힘껏 이야기하고 있다. 제발 쉽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많지 않았던 자유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충고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여권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처지에 동감하는 여성 독자들이 많으며, 바로 그들의 존재가 『82년생 김지영』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만든 주요 동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의 중국판 역자와 출판사도 주목할 만하다. 역자인 인자쉬안(尹嘉玄)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국 화교, 즉 한국에서 살다가 타이완으로 돌아간 화교로서 타이완판 『82년생 김지영』의 역자이기도 하다. 중국판 『82년생 김지영』의 출판사는 타이완판 『82년생 김지영』의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 쓴 것이다. 두 판본은 단지 간체자와 번체자의 표기 차이만 있으므로 간단한 편집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에 관한 중국 서평을 훑어보다 보면 “200쪽도 안 되는 분량이 순식간에 읽힌다”, “가독성이 좋다” 같은, 번역의 품질에 대한 호평이 자주 눈에 띈다. 그간 기계적이고 비문학적인이라는 혹평을 자주 들던 중국의 한국문학 역자들에 비해 인자쉬안은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어 출판번역의 수준에서 아직까지 타이완이 중국보다 한 수 위라는 필자의 심증을 한층 더 굳히게 했다.

중국판 『82년생 김지영』은 표면상 귀저우인민출판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최대 민영출판기업 중 하나인 베이징모테(磨鐵)도서유한공사가 저작권 수입, 편집, 제작, 유통을 전부 담당했다. 2007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6개 출판 브랜드로 연 평균 600여 종의 도서를 내며 1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베스트셀러 소설의 기획과 마케팅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필자의 생각에 10월 중순 『82년생 김지영』이 잠시나마 신간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1위에 오른 것도 바로 이 기업의 마케팅 노하우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이번에 『82년생 김지영』이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리 출판계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이는 한한령의 해제와 대중 저작권 수출의 본격적인 재개를 뜻하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2017년 1월, 김애란의 『비행운』이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된 후로 한국소설은 무려 2년 가까이 중국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2018년 12월이 돼서야 역시 인민문학출판사를 통해 구경미의 『라오라오가 좋아』가 겨우 출간됐다.

그 후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최제훈의 『일곱 개의 고양이 눈』,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그녀 이름은』 등 5권이 계속 출간되어, 중국에서 한국 도서의 출판 환경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82년생 김지영』이 한국산 문화콘텐츠임에도 대대적인 마케팅과 공개적인 논의가 허용된 것을 보면 이제 한한령의 보이지 않는 장막은 다 걷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물론 한국 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2년여 전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82년생 김지영』이 중국에서 거둔 이 작은 성공은 우리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 김택규(중국통신원)

1971년 인천 출생. 중국 현대문학 박사. 송실대학교 중문과 겸임교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국 저작권 수출 분야 자문위원. 출판 번역과 기획에 종사하며 송실대학교 대학원과 상암마당 아카데미에서 중국어 출판 번역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번역가 되는 법 / 유유>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중텐 중국사 / 글항아리>, <죽은 불 다시 살아나 / 삼인>, <암호해독자 / 글항아리> 등 50여 종이 있다.

---

[해외통신/중국]

## 광저우 프랜차이즈 독립서점 1200복습

김택규(중국어 번역가,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2019.11

국내에서 이른바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보통 거대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주인의 독특한 취향과 전문적인 컨셉트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의 작은 서점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독립서점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의미는 사뭇 다르다.

우선 '독립'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가 체제', 더 자세히 말하면 국영 프랜차이즈 서점조직인 '신화서점'(新華書店)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중국은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오프라인 도서유통을 전부 신화서점이 담당했다. 1996년이 돼야 비로소 민간인이 서점을 차려 운영하는 것이 법률로 허용되었다.

두 번째로, 중국의 독립서점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카테고리의 책들만 진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도 흔히 문학, 사회과학, 철학 위주여서, 상하이의 지평(季風)서점, 베이징의 단상제(單向街)서점 등 많은 독립서점들은 주로 소재 지역 지식인들을 위한 '인문학적 공공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4, 5년 사이에 막대한 민간 문화자본이 투자됨에 따라 중국의 독립서점은 성격이 크게 바뀌어 체인화와 복합문화공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팡쉬(方所)서점, 시시포(西西佛)서점, 다중(大衆)서국, 언지유(言几又)서점 같은 대형 독립서점들이 앞다퉈 대형 쇼핑몰마다 지점을 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점포 내 도서 진열 면적이 절반도 안 된다. 도서보다는 문구, 생활용품과 식음료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견 독립서점의 진화인 듯하지만 달리 보면 지역의 인문학적 공공 공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필자가 방문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의 프랜차이즈 독립서점 1200복습은 중국 서점업계의 그런 추세에 기본적으로 부응하면서도 독립서점 본연의 가치는 저버리지 않은 독특한 업체였다.



1200북숍 로고(왼쪽), 1200북숍 류얼시 사장(오른쪽)

인구 1500만의 대도시 광저우에 위치한 1200북숍은 명문 화난이공대(華南理工大) 출신의 젊은 건축 디자이너 류얼시(劉二驍)가 2014년 7월에 문을 열었다. '1200북숍'은 그가 타이완 유학 시절, 장장 1200킬로미터의 타이완 도보 일주 여행을 해낸 것을 기념해 지은 이름이다. 특이하게도 그는 2014년 초 타이완에서 돌아오자마자 중국 SNS 위챗에서 24시간 서점을 열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고, 30명으로부터 무려 120만 위안(한화 약 2억 원)의 창업 자금을 모금했다.

당시 그는 서점의 주주가 될 그 30명에게 배당금 수익을 얻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서점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광저우의 지역 문화에 기여하는 데에만 만족하라고 미리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24시간 서점이어야 했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 최초의 24시간 서점은 타이완 청핀서점이며 류얼시 역시 그 서점을 방문해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4시간 서점은 어둠이 깔린 뒤, 그 도시에 등불과 머물 곳을 제공하죠. 일종의 위로이자 보호이기도 하고요. 타이베이에 그런 정신적인 등대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광저우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티위동로점(體育東路店) 한 곳에서 시작한 1200북숍은 현재 광저우 내에만 6곳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 24시간 서점은 4곳이다. 나머지 2곳은 대형 쇼핑몰 안에 있어서 24시간 운영을 하기 힘들다. 1200북숍은 공통적으로 서점 내에 '무료 독서 코너'와 '카페 코너'를 두고 있으며, 밤을 새려는 고객은 양쪽에 다 머물 수 있다. 물론 카페 코너에 앉아 있으려면 식음료를 구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따로 '소파방'이라는 작은 방을 마련해, 미리 인터넷으로 사연을 보내 허락을 얻은 여행객을 재우기도 한다. 이런 서비스는 류얼시 사장의 다음과 같은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우리 1200북숍은 낮에 번 돈으로 밤에는 온정을 베푸는 서점으로서 인문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미까지 갖춘 장소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서점도 사업인 만큼 손해를 보며 무한정 '인간미'를 베풀 수는 없다. 그나마 다행히도 류얼시 사장은 적절한 입지 선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원화 경영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계속 수익성을 유지하고 지점을 늘려가고 있는 듯했다.

우선 1200복습의 모든 지점은 기본적으로 인구 유동량이 많은 시내 중심가 주변에 위치해 있었다. 예를 들어 티위동로점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고프트 머리의 소규모 3층 건물에 있었고, 중신후가점(中信後街店)은 대형 쇼핑몰 지하의, 후미지긴 해도 면적은 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본 부족으로 중심가 대형 건물의 1층에는 못 들어가도 어떻게든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다.

서점의 다원화 경영에 대해서도 류얼시의 철학은 확고했다.

“중국의 요즘 서점들은 보통 도서, 문화상품, 식음료, 이 3가지를 다 팔고 있습니다. 1200복습은 한걸음 더 나아가 '3+X'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위치와 고객 집단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테마가 바로 X입니다. 이 X는 술도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영화도 될 수 있고, 디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200복습 지점들은 일반적인 도서, 문화상품, 식음료 외에 음악(라이브하우스), 숙박, 심야식당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1200복습 티위동로점 역시 식당을 겸하고 있었다. 세 개 층 중 1층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밤에는 맥주와 칵테일도 파는 듯했다. 이런 다원화 경영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본래 건축디자이너인 류얼시 사장과 그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맡았다. 심지어 서점의 의자와 테이블, 책꽂이까지 그들이 손수 제작한 듯했다.

가장 감명을 주는 것은 역시 서점의 본령인 북 큐레이팅이었다.

“우리 서점은 인문학 서점을 표방하고 있어서 무협소설이나 교재, 자기계발서는 팔지 않습니다. 문학, 사회과학,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디자인, 예술, 생활 방면의 책을 더 들여놓는 편입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도 좀 있지만 되도록 배제하려 합니다.”

티위동로점에 진열된 책들을 보니 그의 설명에 수긍이 갔다. 1200복습의 도서 선정과 구매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은 꽤 유능한 듯했다. 중국 인문서 전문 기획자인 필자의 눈에도 꽤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추천도서 코너에는 류얼시 사장이 직접 쓴 『서점의 온도』를 비롯한 3권의 저서가 쌓여 있었다. 사실 1200복습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은 그의 저서와 SNS 계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200복습이 지역 커뮤니티와 맺고 있는 강력한 결합력이었다. 필자가 방문한 1200복습의 두 지점은 무료 독서 코너와 카페 코너 모두 빈 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손님은 대부분 20-30대 젊은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책과 노트를, 또 일부는 노트북컴퓨터를 펴 놓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광저우의 화려하기 그지없는 쇼핑가의 한 모퉁이에서 1200복습은 젊은이들이 머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장소인 듯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그 젊은이들 중 다수가 티위동로점에서 열린 심야 좌담회에 참석했다. 1200복습의 고정 프로그램인 이 좌담회는 매주 광저우 현지의 문화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SNS에서 생중계도 한다. 나는 그날 유유출판사 조성웅 대표와 함께 각기 류얼시 사장의 저서 『서점의 온도』 한국어판의 역자와 출판사 대표의 자격으로 그 좌담회의 손님이 되었고 밤 10시까지 청중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역시 젊었고, 책과 문화와 1200복습을 사랑하는 이들이었다. 서점과 독자의 결합이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광저우 이외 다른 도시에도 1200복습의 지점을 낼 계획이 없느냐는 어느 청중의 질문에 류얼시가 했던 답변이 떠오른다.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낸다면 제가 매일 그곳에 가보기는 힘들겠지요. 지금 제가 매일 우리 서점 6곳을 돌아보는 것처럼 말이예요. 저는 언제나 현장에서 우리 서점과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1200북숍 매주 심야 좌담회 현장(왼쪽), 왼쪽부터 통역 이선 교수, 역자 김택규, 출판사 조성웅 대표 - 1200북숍 체육동로점 『서점의 온도』 이벤트(2019.10.19)(오른쪽)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 김택규(중국어 번역가,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1971년 인천 출생. 중국 현대문학 박사. 숭실대학교 중문과 겸임교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국 저작권 수출 분야 자문위원. 출판 번역과 기획에 종사하며 숭실대학교 대학원과 상상마당 아카데미에서 중국어 출판 번역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번역가 되는 법 / 유유>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중텐 중국사 / 글항아리>, <죽은 불 다시 살아나 / 삼인>, <암호해독자 / 글항아리> 등 50여 종이 있다.

[해외통신/일본]

## 일본 책방거리를 수놓은 K-BOOK 페스티벌

김승복(쿠온출판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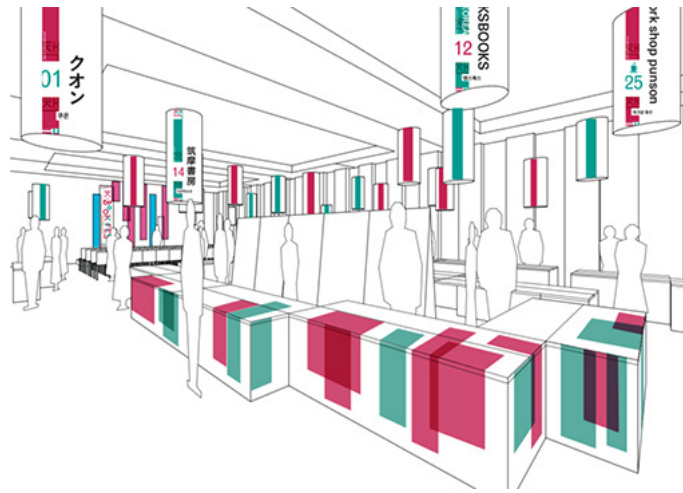
2019.11

원하던 것을 얻은 아이의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가. 아이까지 빌려 올 것도 아니다. 요 며칠 필자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아주 행복해 보인다고 말한다. 지금부터 필자의 행복한 순간을 지난 11월 9일에 있었던 <2019 K-BOOK 페스티벌>과 엮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한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문학, 한국서적이 어떻게 소개되어 가는지도 곁들여 쓰도록 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도쿄에서 한국 책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열어보고자 여러모로 궁리를 하고 애를 썼다. 그 열망이 지난 11월 9일 도쿄의 책방거리 진보초에서 이루어졌다. K-BOOK 페스티벌이 열린 것이다.



북 페스티벌 입구에 세운 안내도



전시회장 설치 이미지(왼쪽), 페스티벌 현장(오른쪽)

한국문학을 비롯하여 에세이, 인문서, 그림책 등을 낸 일본의 출판사 19곳과 한국의 독립서점 윌트앤시니컬, 땡스북스에서 한국의 원서들을 들고 와 장을 열었다. 부스에 진열한 책들은 대개가 한국책을 번역한 일본어 책이고, 참가한 한국서점들은 소설과 시집, 한국 저자가 쓴 에세이와 사진집, 일러스트집을 들고 나왔다. K-BOOK에 집중된 진정한 K-BOOK 장이 섰다.

일본에서 한국문학이 화제가 된 계기는 아마도 박민규의 『카스테라』가 제1회(2015년) 일본번역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일본번역대상은 번역자들과 독자들이 만든 상이다. 세계문학을 좀 더 쉽게 하자는 취지로 영어권 번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을 만들고 독자들이 작품을 추천하여 추천수가 많은 작품을 후보로 올려 선정해 가는 방식이다. 상금이며 수상식 비용마저도 독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해 모아가는 방식이 신선타다.

상을 제정하고 작품 후보가 올라가고 소설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이 상에 집중되었다. 박민규라는, 이렇게 엉뚱하고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가가 이웃나라에 있었다니. 독자들은 박민규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 여기서 빠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지금 한국문학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번역하는 사이토 마리코 씨다. 마리코 씨는 실은 한국어를 아는 편집자로, 한국어가 모국어인 현제훈 씨가 번역한 『카스테라』를 읽기 쉬운 일본어로 바꾸면서 번역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편집자이면서 번역가인 마리코 씨는 실은 시인이기도 하다. 90년대 한국에 유학하면서 『입국』이라는 한국어 시집을 1993년 민음사에서 내기도 했다. 시인이면서 편집자이면서 번역가가 빛어내는 글이란 얼마나 동글고 단단한가. 마리코 씨는 조남주, 한강, 편혜영, 황정은, 정세랑 작가의 글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번역했다. 그림책 『수박 수영장』도 그녀의 손길에 일본어로 다시 태어났다.

박민규가 일본번역대상을 수상한 이듬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했다. (필자가 운영하는 쿠온 출판사에서 일본어판이 2011년에 나온 터라 일본어 독자들도 한강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수상 발표 전날에는 독자들과 독서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큰 상을 통해 세계관이 전혀 다른 박민규 작가와 한강 작가를 알게 된 일본 독자들은 서서히 이웃나라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뒤를 이어 불세출의 부지런한 번역가의 출현으로 한국문학은 정말이지 아주 짧은 시간에 일본열도의 문학 좋아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기에는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의 도움도 상당했다. 아이돌 스타들이 읽은 책들이 일본어판까지도 베스트셀러를 만든다.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3년간 70만부가 팔렸는데 일본어판은 올 3월에 나와 현재 20만부를 넘어섰다. K-POP을 좋아하는 층들이 아이돌 스타의 안내로 에세이를 접했다가 한국문학으로까지 넘어오는 현장을 곧잘 목격하곤 한다.

필자가 운영하는 책방을 찾는 어린 여학생들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고 나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최은영 자각의 『쇼코의 미소』, 이현 작가의 『철원 1945년』, 백수린 작가의 『참담한 빛』까지 찾아 읽는다. 또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용준 작가의 『선릉산책』, 정미경 작가의 『밤이여 나뉘어라』, 편혜영, 김연수, 이기호, 김영하, 박성원, 하성란, 조경란, 은희경 작가를 찾는다. 이렇게 한국문학 코너가 풍성해졌다.

한국의 그림책들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 그림책 노포인 복음관 출판사가 한국적 정서를 가진 그림책들을 연이어 번역출판하고 브론즈신사에서는 백희나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 책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코너는 이 그림책 코너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읽어보려는 책이 그림책이기 때문이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방지기도 겸하고 있는 내 눈에는 한국의 번역서들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인다. 내가 하는 이런 경험을 모두가 할 수는 없는 일이나 북페스티벌을 열면 가능하지 않을까. (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인터넷 댓글을 읽는 것은 진짜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일이다.) 독자들의 생 목소리를 듣게 되면 책 만드는 에너지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나는 몇 번이나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내 주변의 편집자들이 한다면 한국책을 더 많이 낼 것이라는 흑심을 품으면서 북페스티벌을 열자고 속삭이며 다녔다. 이 생각을 주변에 바이러스처럼 뿌리고 다닌 덕에 뜻이 맞는 몇 개의 출판사와 실행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정한 방침은, 한국에 관한 책을 들고 나오자, 그리고 가능하면 편집자들이 나와서 책을 소개하자, 이 두 가지였다.

출점할 일본 출판사들을 모집하고, 한국에서는 책방이 출점할 수 있도록 해 보았다. 일본 독자들이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그 책방을 찾아 갈 수 있다면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집전문 책방 위트엔시니컬의 유희경 대표. 시인이 책방지기가 되었다.(왼쪽), 뒷쪽 라인에 문학전문 서점 고요서사가 있다.(오른쪽)

행사 당일 11시에 문을 열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책을 구입하고 준비한 토크 이벤트에서도 경청해 주었다. 방문객은 1200명.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았고 (82%), 2~3권 구입자가 많았으며, 30~40대가 40%를 차지했다. 북페스티벌 개최 정보는 트위터로 안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단지 순이었다. (전단지가 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는 우울한 사실)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을 들고 나온 편집자

관심도가 높은 이들이 오게 되니 행사장에 머무는 시간도 길다. 부스별 순례에 시간을 들이고 중간 중간 토크 이벤트며 퀴즈대회에서 다리를 쉬어가며 자신의 독서력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었다. 부스에 있던 편집자가 나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지 말하고 그 책에 관한 퀴즈를 냈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기도 했다.



"OO이 약이다" 1. 술 2. 세월 3. 김치(왼쪽), 가와테쇼보의 문예 담당 편집자(오른쪽)



책을 읽어 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고(왼쪽), 책속에 답이 있다. 퀴즈대회를 마치고 부스로 유도(오른쪽)

한국에서 온 책방지기들과 일본 책방지기들의 토크 이벤트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책방지기들의 희로애락은 어찌면 다들 비슷한지. 그 중 위트앤시니컬의 점주 유희경 씨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책방은 책을 파는 곳만이 아니라 독자가 책을 가까이하게 하는 장치를 하는 곳이다”

단, 하루만인 페스티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출점을 한 출판사들이 내년 북페스티벌에 맞추어 더 많은 신간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의 의도가 단 하루 만에 전달이 되다니. 오는 11월 20일에 다들 모여서 이번 북페스티벌을 점검하는 반성회를 열고 내년 일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들 독자들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단지 장이 없었던 것뿐이었다.

이번 페스티벌 중에 받은 한 장의 전단지가 준 감동을 한국의 출판 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림책 노포 출판사인 북음관에서는 올 10월에 번역 출판한 『책보』(이춘희 글, 김동성 그림)를 들고 나왔다. 담당자인 후지이 타카히로 씨가 만든 전단지 마지막에 들어간 문구를 두고두고 말하게 될 거 같다.

“그림책으로 이웃나라 문화를 안 어린이들이 자라면, 앞으로 두 나라 사이가 더 좋은 쪽으로 변해 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그림책을 계속 소개하려고 한다.”



**福音館書店と韓国の絵本** これまでとこれから

福音館書店は、日本の児童書出版社ではいち早く、韓国との交流を始めました。初代編集長・松居直が、ハンリム出版社社長と長年の友人関係にあったためです。ソウル五輪に沸く1988年、ハンリムは『ぐりとぐら』など福音館の絵本30点を翻訳出版する契約を結び、5年間かけて順次刊行しました。これが韓国で最初に刊行された日本の絵本といわれています。日本人著者名を表紙に示すことに当時はハンリム編集部内でも賛否の声があったそうですが、幸い多くの韓国の読者を得て、今も版を重ねています。

一方、日本では、1990年に韓国の絵本『山になった巨人・白頭山ものがたり』が福音館で翻訳出版されました。松居が韓国を訪れた際に、朝鮮の創世神話であるこの絵本の原画を見て、「ぜひ日本の子どもたちにも届けたい」と感動し、契約に至りました。続く1993年には、『山になった巨人』翻訳者であるイ・サンクムさんの自伝『半分ふるさと』を刊行。坪田譲治文学賞、産経児童出版文化賞・JR賞を受賞するなど評判となりました。イ・サンクムさんは松居の絵本論も韓国に紹介し、多くの韓国の作家・編集者を育てました。

福音館ではこれからも、子どもの本を通した韓国との文化交流を続けていきます。楽しみとともに隣国文化に出会って育った子どもたちが、これからの両国の関係を、よりよいものに変えてくれると信じているからです。  
(福音館書店・編集部)

**福音館の  
韓国の  
絵本、読みもの**

**K-BOOKフェスティバル  
2019/11/09**

복음관의 한국 책, 한국 그림책 소개 전단지



[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김승복(쿠온출판사 대표)**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현대시를 전공. 2007년 출판사 쿠온을 설립. 사무소 이전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칸다 진보초에 한국어 원서 책, 한국 관련 책 전문 북카페 'CHEKCCORI(책거리)'를 오픈했다. 현재 쿠온출판사를 통해 한국 문화와 문학 관련 도서들을 출판하며, 북카페에서는 연 120회 이상의 한국 문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